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Supporting Cultural Arts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Incheon



연구책임

최영화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이선정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함
-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2030」 및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017.6.5.)를 제정하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시설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 ‘장애예술’은 ‘장애인의 문화적·개인적·정치적 경험을 반영해 창작된 작품이나, 장애와 관련된 예술환경에서 창작된 작품’을 의미하며, ‘예술과 장애’의 상관관계는 ‘장애인의 예술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장애예술인’은 ‘예술인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 중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Ⅰ 요약 표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구분		내용
법률 및 조례	중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헌법, 문화헌장,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예술인복지법,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정책	중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전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새예술정책(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예술 분야 연구 및 정책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안)(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영화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구분		내용
사업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비전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중합발전계획(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동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 - 평생교육 확대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활성화, 유망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향수, 동호회 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선정 ◦ 무지개다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교류 확대사업 ◦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지역 내 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프로그램, 강사)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연주회 등(문화예술과) -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분야)(교육협력담당관실) ◦ 인천시 무지개다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 디아스포라영화제
시설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과 시설 대관사업 - 기획프로그램: 장애예술 확산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교류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창작활동 지원, 전시 및 공연 등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2개소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4개소 -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7개소, 기타 시설(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송암점자도서관) 7개소 ◦ 장애인야학 5개소, 장애인평생교육 4개소(2019년도 인천시 지원사업 참여 시설 기준)

2)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1)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현황

■ 인천시 장애인 현황

- 2019년 5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142,994명으로 전체인구의 4.83%(인천광역시 인구 총 2,957,179명, 외국인 미포함)임
 - 장애 유형별로 신체장애가 126,511명, 정신장애가 6,483명으로 신체장애인이 전체의 88.5%임

■ 인천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인천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는 2018년 11월 기준 38개임
 - 남동구에 인천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의 50%가 밀집해있음

■ 인천시 장애예술인(단체) 현황

- 인천시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예술단체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단체는 장애인 예술단체 5개, 장애예술인 7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4개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인천지역 장애예술인은 25명임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국 장애인을 6,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활동과 문화 및 여가활동 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시사점을 참고함

| 요약 표 2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구분		내용
사회 활동	외출 가능 여부	◦ 혼자 외출 가능(84.4%), 불가능(15.6%)
	1개월간 외출	◦ 거의 매일(70.1%)
	외출목적	◦ 통근·통학(37.8%) > 산책운동(29.9%) > ... > 지역사회시설 이용/행사 참여(6.5%)
	외부활동 불편정도	◦ 불편(46.6%), 매우 불편(13.1%)
	외부활동 불편이유	◦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49.7%)
문화 여가 활동	일주일간 문화참여율	◦ TV시청(96.6%) > 사교모임(51.4%) > 휴식(44.3%) ◦ 문화예술참여(3.5%)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만족(49.3%)
	문화여가 불만족 이유	◦ 건강·체력 부족(29.4%) > 경제부담(28.0%)
	1년간 문화관람실태	◦ 영화 제외 문화행사 참여 전무 97.5% 이상
	문화행사 정보습득	◦ TV·라디오(35.2%) > 인터넷(30.1%) > 지인(19.2%)
	문화행사 관람시 어려움	◦ 비용 부담(36.5%) > 시간 부족(18.4%) > 시설 부족(10.4%) > 프로그램 부족(10.0%)
	문화행사 관람 기준	◦ 비용 적절성(26.6%) > 내용 및 수준(22.9%) > 접근성(20.9%) > 교통편의성(10.8%)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예술인 416명과 장애인예술 활동가 5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3년 이상 활동한 장애예술인 유형별(시각/지체/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자폐성장애) FGI 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참고함

| 요약 표 3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주요결과

구분		내용
설문 조사	예술활동 현황	◦ 서양음악(38.3%) > 문학(18.0%) > 미술(17.2%) 등 - 활동기간: 평균 7.6년, 10년 이상 38.8%, 5년~10년 미만 22.0%
	개인의 예술활동	◦ 참여계기는 교육프로그램 68.5% ◦ 창작 및 실연(90.9%) > 교육(7.3%) 등
	예술 창작여건 (공간)	◦ 예술활동 위한 작업공간 없음 65.4% ◦ 연습공간(53.2%) > 창작공간(19.8%) > 발표공간(15.3%) 순 필요 - 발표공간의 '공간구조/형태가 예술활동에 부적합'(26.4%)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이 미비'(21.8%)하여 이용이 어려움

구분		내용
FGI	예술창작여건 (활동기회)	◦ 발표기회 부족 40.6% - 장애예술인 위한 연습공간 확보(92.7%) 필요
	단체활동	◦ 예술활동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않음 68.4% - 단체 가입 이유: 협업, 공동발표 등 활동 교류(41.9%), 활동 장르에 대한 정보 교류(34.2%) 등 - 단체 미가입 이유: 가입 필요성 없음(57.4%),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21.3%), 적합한 단체 없음(18.4%) 등
	작품/ 교류활동	◦ 보조도구 불필요(76.7%), 보조인 필요(65.3%) ◦ ‘그룹지도’(42.6%) 통해 전문예술교육 경험 - 개인레슨, 사설학원은 개인 비용부담, 그룹지도는 공공지원 - 전문예술교육 어려움 있음(67.0%). 전문교육인력 부족(40.9%), 교육기관 부재(24.4%), 시설 및 기자재 부족(18.2%)
	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및 정책 인식	◦ 예술활동 관련 지원 수혜경험 없음 62.0% - 창작활동 지원(기금 등)(79.0%) > 창작공간 지원(30.1%) > 창작 관련 인력 지원(27.9%) 순 ◦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수요: 장애인 예술활동 직접 지원사업 기회 확대(97.3%) > 장애인 예술활동과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비(93.8%) > 예술활동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91.5%) 순으로 중요 ◦ 창작발표 활동 시 어려움: 발표/전시/공연시설 부족(29.9%) > 연습/창작 공간 부족(21.6%) > 장애예술인 시설/장비 부족(13.7%) 등 ◦ 예술활동 지원으로 창작 기금/수혜자 확대(66.3%)가 가장 필요
	장애예술인 전반 관련 사항	◦ 예술활동의 경제적 부담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불충분 ◦ 비장애예술과의 감성 차이 존재 ◦ 이동의 제한과 소통의 어려움
FGI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 장애예술을 비장애예술과 동등하게 인정 필요 ◦ 협업 당사자 간 이해 필요
	장애인 예술 지원정책	◦ 장애예술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의 제한과 절차적 복잡성 ◦ 매개자(수어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 필요성 ◦ 청년지원정책, 예술활동 일자리 연계 통한 자립적 환경 조성 ◦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한 정보시스템 필요
	장애예술인 교육	◦ 기존 예술교육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 변화 필요 ◦ 장애 유형에 따른 단계별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
	문화- 예술분야 향유 경험	◦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문제 ◦ 예술 공연/전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공연/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 유형별 보조도구 필요 ◦ 장애 유형별 눈높이 맞춘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

-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 총 7명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2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 4명, 장애인 야학 관계자 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 인력, 사업 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함

| 요약 표 4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 결과

구분	내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활동보조인 인력 확충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가 임금 현실화 ◦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시설 개선 지원 ◦ 지역 내 장애인 친화시설 확충 ◦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발표공간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필요 ◦ 지역 내 관련 시설 연계 운영방안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파견 및 교보재 지원사업 ◦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 관련 조례 개정 ◦ 장애 인식개선 사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필요 ◦ 시립 장애인예술단 운영 ◦ 장애예술인 고용 안정화 방안 마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 장애예술인 교육 시설 필요 ◦ 장애예술인 발표공간 필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사업 ◦ 장애예술인 자립 지원 ◦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지원 ◦ 장애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 기회 제공 ◦ 장애예술인 심리치료 및 체력단련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3) 시사점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여건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 도출과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예술 포함된 문화다양성 정책 마련

- 인천시는 중장기 종합계획 내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음. 더불어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인천시에서도 향후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계획 마련과 이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무지개다리 사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세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장애인 문화시설 조성 및 기존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필요

- 현황분석 결과, 인천시 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문화시설이나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은 부재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공 전용시설은 송암점자도서관이 유일한 상황임
- 이렇듯 현재 인천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장애인예술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함.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시설 조성과 함께 기존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 내 장애인예술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 인천시 장애인 및 장애인예술인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인천시에는 총 142,994명(전체 인천시 인구의 4.83%)의 장애인이 거주함. 그러나 장애인예술인과 단체에 관한 실태 파악은 여전히 미흡함
- 인천시 장애인과 장애인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수요조사 결과, 장애 유형별로 보이는 특징이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각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필요함

■ 생활권 중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수립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생활권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거주지 인근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더불어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 시설의 자생력과 전문성을 키워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구축 필요

- 수요조사 결과,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열악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수준의 지역 인프라부터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함
- 인력 지원정책 수요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활동보조인 인력 확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가 임금 현실화,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시설 지원정책 수요
 - 지역 내 장애인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시설개선 지원, 지역 내 장애인 친화시설 확충, 장애인 교육 및 발표공간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함. 더불어 이렇게 새로 조성될 거점시설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간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필요사업 수요
 - 장애인 대상 원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 및 교보재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이동이 어렵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

아 지원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애주기별로 마련되어야 함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례

1) 사례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관련 해외 선진사례와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 및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시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조사대상 및 내용

| 요약 표 5 | 사례조사 개요

구분	사례명	조사내용	조사방법
해외	독일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 법적토대, 연방정부 장애인복지위원회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주체 및 인력현황 ◦ 주요사업 	문헌조사
	일본 하나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 관련 법률 및 정책, 에이블아트 운동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주체 및 인력현황 ◦ 주요사업 	
국내	서울 잠실창작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주체 및 인력현황 ◦ 주요사업 	문헌조사 현장답사 면담조사
	수원 에이블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주체 및 인력현황 ◦ 주요사업 	

2) 해외사례 조사결과

| 요약 표 6 | 해외사례 조사결과

해외사례	
구분	독일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① 법적 토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평등법」, 「동등대우법」 등②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이자 문화예술정책을 주관하는 독일연방 노동 사회복지부 신하기관-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 참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 전달 및 홍보, 직업과 학업에 관한 컨설팅 제공, 클라이스트하우스 운영 및 문화복지 정책 시행- 운영예산: 독일연방 노동사회복지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직접운영시설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운영목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증진 위한 문화프로젝트 등 운영-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성 발달시설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공간 리모델링- 1층: 로비, 사무실(클라이스트하우스), 콘퍼런스 홀, 인들- 2층: 다목적홀 3개실- 3층: 독일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실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운영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문화프로그램<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영화상영, 강연/워크숍 등 행사, 문학, 공연 등- 대부분 무료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오디오 설명, 자막 설명 등의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 운영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일본 하나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① 관련 법률 및 정책<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예술문화 활동 보급 지원사업」 등② 에이블아트(Able Art) 운동<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이블아트: '할 수 있다'는 뜻의 'Able'과 'Art'의 합성어로 장애인 문화예술 촉진- 장애인의 예술을 기능성의 예술로 인식하고 예술을 통해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예술과 사회와의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운영형태<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민틀레의 집 직접운영시설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NPO 민틀레의 집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아트센터운영목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이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시설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2층 규모- 스튜디오, 갤러리, 카페&숍, 정보센터, 회의실, 극장포토, 커뮤니티 칼리지, 레지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운영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민틀레의 집 직접운영아트프로그램<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틀라에 운영, 창작지원, 예술작품의 상품화 및 판매 등- 커뮤니티 칼리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사업-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강좌 운영, 지역 내 장애인-비장애인 예술인 네트워킹, 취업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장애예술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 우선적 고려 필요장애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원 지원

3) 국내사례 조사결과

표 1 | 요약 표 7 | 국내사례 조사결과

국내사례	
구분	서울 창작작스튜디오
시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 공공 장애인 예술인(시각예술 중심)- 2007년 조성, 2013년 리모델링 후 재개관° 운영예산<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 2천만원('19)-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사업 2억원- 기타 외부재원 약 2억원° 운영목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예술의 자존 확대 및 인포라 확산° 시설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1층 규모에 167개실(연면적 567㎡)- 입주실, 공용휴게공간, 전시공간(하늘연, 니온갤러리, 공작작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문화재단 공간기획2팀- 정규직 4명(매니저 1명, 기획행정 3명)과 임시직 1명, 수화통역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작가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장애인 예술인 창작활동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및 장애인 예술인 예술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창작지원 프로젝트, 장애인 이동청소년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 예술의 가치 확산- 장애인 예술의 가치 및 공존 관련 담론 확산, 장애인 예술인 네트워크 및 공동창작/회- 지역 장애인 예술인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예술 플랫폼 필요- 지역 장애인 및 장애인 예술인의 특성 및 수요 반영 정책 필요- 장애인 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장애인 예술의 질적 향상에 따른 세부화 정책 필요
시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예술 창작 지원 및 장애인 예술인 지원 지원- 지역 장애인 예술인 프로그램 진행

4.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1) 접근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률과 인천시의 조례에 명시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범위를 도식화하면 ①제도, ②시설, ③인력, ④사업 부문으로 구분 가능

표 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범주

제도	시설	인력	사업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사업 개발 지원제도 마련	관련시설 조성 이용편의 제공 교류협력 지원 보조장비 제공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교육인력 지원 활동보조인력 지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활동 문화향유사업 정보제공사업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표 9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증진◦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활동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전략	제도	◦ 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시설	◦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인력	◦ 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별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함

| 요약 표 10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도	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 인천시 무장애 문화예술시설 현황조사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 콘텐츠 및 레퍼토리 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제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사업 장애예술인 쿼터제 실시 - 시·군·구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협업구조 구축 ◦ 인천시 장애인 문화바우처 가맹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단체 발굴 및 가맹점 등록
시설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양성 및 배치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DB 구축 및 공유 ◦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용공간(연습/창작/발표) 조성 - 장애인 문화 체육 융복합 생활SOC 조성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 장애인 활동 보조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 공연관람용 특화차량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교류·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및 문화시설단체 네트워크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상호교류 지원

인력	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지원 -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발표 지원 - 장애예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지원 ◦ 장애예술인 공공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장애예술단 조성 및 운영 - 장애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운영 - 장애예술인 작품 상품화 및 판매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풀뿌리단체 발굴·육성 확대 -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경연대회 운영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장애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양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 장애인 문화기획자 양성 및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활용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교재 연구·개발·지원 - 발달장애인 특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 장애인 생활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발굴·지원 -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지원 - 장애인 커뮤니티아트 사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정기 공연 및 전시 관람행사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장애 인식개선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 발표/전시/공연 홍보 지원 - 장애예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정책제언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방향 설정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문화정책 분야와 복지정책 영역 간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음

2) 전담인력 확충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전문인력과 자문기구,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장애인 문화정책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책 파악, 모니터링,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장애인 문화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 경우 광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 내에 관련 팀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3) 장애인 실태조사 우선 추진

- 인천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는 정책구상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함. 이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시설 맞춤형 사업, 장애유형별, 중증정도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실태조사는 장애인, 장애예술인 외에 장애인 전문인력(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보조인, 문화기획자 등 매개인력)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장애인 전문인력과 문화예술단체 DB를 구축한다면 향후 지원사업과 관계기관 연계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배리어프리 시설 조사 및 확충

- 인천시 내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센터, 민간문화시설의 배리어프리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지도로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때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활동보조기기 확보 여부와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대안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하여 새로 짓는 문화시설을 배리어프리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 그 외에도 장애인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함.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충해나감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이동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차 례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10
4. 연구구성 및 흐름	12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1.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개념	15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19
3.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79
4. 시사점	122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례

1. 사례조사 개요	133
2. 해외사례	135
3. 국내사례	151
4. 시사점	168

4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1. 기본방향	175
2. 추진전략	180
3. 추진과제	181

차 례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13
2. 정책제언	216
참고문헌	221
부록	229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1
표 2-1 법정 장애인 분류 기준	16
표 2-2 장애예술의 개념	17
표 2-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률 및 조례 목록	20
표 2-4 「대한민국 헌법」 관련 내용	21
표 2-5 「문화헌장」 관련 내용	21
표 2-6 「문화기본법」 관련 내용	22
표 2-7 「문화다양성법」 관련 내용	23
표 2-8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내용	23
표 2-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련 내용	24
표 2-10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련 내용	25
표 2-11 「예술인 복지법」 관련 내용	25
표 2-12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관련 내용	26
표 2-13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	27
표 2-1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	28
표 2-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관련 내용	29
표 2-16 「문화비전203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	32
표 2-17 「새예술정책(2018~202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	34
표 2-18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현황	35
표 2-1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내용	36
표 2-20 「인천비전2050」의 관련 내용	38
표 2-21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관련 내용	40
표 2-22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의 관련 내용	41
표 2-23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창작 분야)	43
표 2-24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향유 분야)	44

표 차례

표 2-25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교육 분야)	45
표 2-26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국제교류 분야)	45
표 2-27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결과	46
표 2-28 2019년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선정 결과	46
표 2-29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사업 현황	47
표 2-30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개요	50
표 2-31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	52
표 2-32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개요	54
표 2-33 2018년도 장애인단체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지원 현황	55
표 2-34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2018 사업개요	56
표 2-35 2019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요	57
표 2-3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전 및 미션	58
표 2-37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별 업무	59
표 2-3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2019 기획프로그램	60
표 2-39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시설현황	63
표 2-40 2018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공간별 대관현황	65
표 2-4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대관시간 및 사용료	66
표 2-42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67
표 2-43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68
표 2-44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일평균 이용자수	69
표 2-45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69
표 2-46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추진현황	70
표 2-47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71
표 2-48 송암점자도서관 시설현황	74
표 2-49 송암점자도서관 주요사업	76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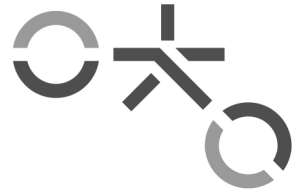
표 2-50 송암박두성기념관 주요사업	77
표 2-51 인천시 관련 기타시설 현황	78
표 2-52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79
표 2-53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성별 현황	80
표 2-54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등급별 현황	80
표 2-55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	81
표 2-56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연령별 현황	82
표 2-57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보장자격별 현황	83
표 2-58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군·구별 현황	83
표 2-59 인천광역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84
표 2-60 인천광역시 장애인예술인(단체) 현황	86
표 2-6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전국 장애예술인 현황	87
표 2-62 부문별 인천시 장애예술인 총 현황	87
표 2-63 연령별 인천시 장애예술인 총 현황	88
표 2-64 군·구별 인천시 장애예술인 총 현황	88
표 2-65 문화 및 여가활동의 주된 불만족 이유	92
표 2-66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	94
표 2-67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개요	95
표 2-68 FGI 주요 결과	107
표 2-69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	108
표 2-70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인력)	110
표 2-7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시설)	112
표 2-7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사업)	114
표 2-7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인력)	117
표 2-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시설)	118

표 차례

표 2-7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사업)	120
표 3-1 사례조사 개요	134
표 3-2 클라리스트하우스 시설개요	138
표 3-3 클라리스트하우스 문화프로그램	141
표 3-4 하나아트센터 시설개요	146
표 3-5 하나아트센터 주요사업	150
표 3-6 잠실창작스튜디오 개요	152
표 3-7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설현황	153
표 3-8 잠실창작스튜디오 업무분장	155
표 3-9 2019 잠실창작스튜디오 주요사업	158
표 3-10 에이블아트센터 시설개요	161
표 3-11 에이블아트센터 재정 현황('17년도 기준)	163
표 3-12 에이블아트센터 주요사업	166
표 4-1 법률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범위	176
표 4-2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상 지원범위	177
표 4-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범주	177
표 4-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방향	179
표 4-5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목표	180
표 4-6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전략	180
표 4-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과제	181
표 4-8 부산문화재단 2019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프로그램 개요	197
표 4-9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201
표 4-10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체계	20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12
그림 2-1 장애예술인 개념도	18
그림 2-2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체계	51
그림 2-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2-4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도	59
그림 2-5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시설	64
그림 2-6 2018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단체유형별 대관현황	65
그림 2-7 송암점자도서관 시설현황	75
그림 2-8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79
그림 2-9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	82
그림 2-10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군·구별 현황	83
그림 2-11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단체 현황	85
그림 3-1 클라이스트하우스 전경	138
그림 3-2 하나아트센터 시설현황	147
그림 3-3 하나아트센터 주요 프로그램	150
그림 3-4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설현황	154
그림 3-5 에이블아트센터 시설현황	162
그림 4-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과정	178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구성 및 흐름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조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헌장」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령에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2007년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고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을 본격화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9년 현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창작 활성화 지원(77건), 문화예술 향수 지원(34건), 동호회 활동 지원(24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27건), 국제교류 활동 지원(22건), 총 5개 지

4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원사업 영역에서 전국의 185개 단체를 선정해 32억 6천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3.29.).

그러나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 문화교육, 문화창작의 현장에서 장애인을 보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총 3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6.6%의 장애인이 TV 시청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예술 감상 및 관람은 6.4%, 문화예술 참여는 3.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실태도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356~359).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장애인 문화 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장애인의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장애인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2017년에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2017.6.5.)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제정 목적을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2018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만으로는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정책의 방향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문화다양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둘째,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인천시 여건에 맞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률, 제도, 정책사업,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상위법으로서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등을 살펴보고 관련 정부정책 및 사업,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관련 조례와 제도 및 계획,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및 수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자료 활용 기준연도)는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통계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2019년도 최신자료를 활용한다.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10개 구·군(8개구 2개군)을 모두 포함한다.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장애와 장애인, 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인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국내 여건을 검토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근거 법률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정책사업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해외 국가의 관련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 정책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제적 트렌드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책사업의 방향과 조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검토한다. 우선 인천시 장애인 인구 현황과 장애예술인 및 단체 현황을 조사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문화활동 현황자료를 분석한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설문조사가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여건상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문화 및 여가활동 조사결과와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의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 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장애예술인단체 활동가,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원수요를 파악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우수사례를 조사한다. 우선 한국보다 앞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해외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문화시설 건립, 장애예술인 단체 육성 등 선진적인 정책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가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앞서 조사·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기반 구축,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시설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발굴,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방안 등을 도출할 것이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안)을 발굴한 후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 정책과제(안)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률 및 조례,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연구 논문, 단행본, 언론기사, 홈페이지 등)와 현황조사(관계자 면담조사, 관련 기관 현장답사,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병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시대적 흐름과의 부합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현장수요 반영성을 높이고 전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장애와 장애인, 장애예술과 장애예술인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국내외 정책여건의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정책, 법률, 조례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문화비전2030」(2018)과 「인천비전2050」(2016)의 관련 내용도 살펴본다. 그 외에 관련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을 참조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최근 연구 동향과 선행연구의 지형을 파악한다.

둘째,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문헌자료 의존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실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 타 지역 현장답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답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해외사례의 경우에는 문헌조사로 대체하고, 국내사례의 경우에는 타 시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사례를 문헌으로 조사한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시설 및 기관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고 인천시의 여건에 부합되면서도 현실성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장애인 문화단체·장애인 문화활동 지원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조직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의견을 구한다. 심층토의 형식의 자문회의에서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의 기본방향, 비전, 전략,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00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 선행연구 동향

선행연구는 연구유형별로 크게 ①학술연구와 ②정책연구로 구분된다. 학술연구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사례 연구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연구, 장애인 여가활동 참여 영향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한편 정책연구로는 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연구대상별로 구분하면 ①장애인과 ②장애예술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장애인의 문화권,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참여 효과에 대한 분석, 장애인을 위한 문화공간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애예술의 개념,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경험,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론(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장답사, 자문회의, 워크숍)을 활용해 인천지역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단체 및 기관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인천시 여건에 맞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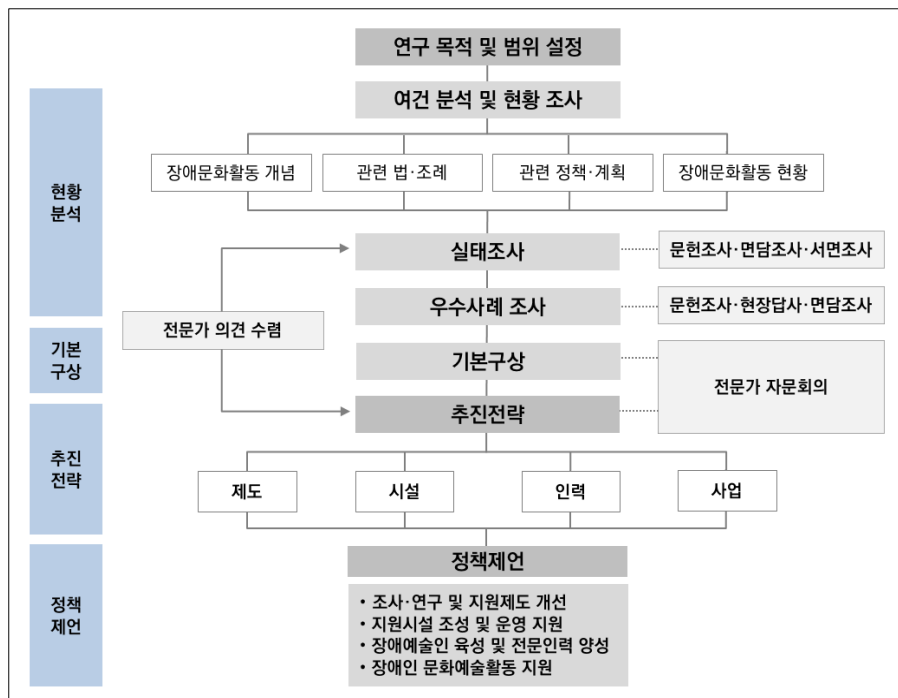
| 표 1-1 |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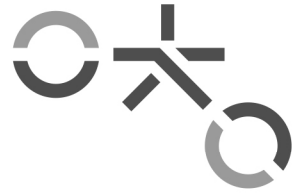
구분	제목(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방안 (2007)	전병태	문헌조사 사례조사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장애예술가 개념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 ◦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 지원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정책 방안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10)	전병태	문헌조사 사례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 현황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당위성 및 해외사례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한국장애예술인정책 연구 (2012)	이영규 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 ◦ 장애예술인 정책육구 ◦ 장애예술인지원법률(안) ◦ 유럽의 성공사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2013)	방귀희 외	문헌조사 실태조사 현장조사 심층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의미 ◦ 선진국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 ◦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개선점 및 지원방안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전병태	문헌조사 사례분석 현장조사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개관 및 정책 현황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및 시사점 ◦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장애인 특수교육현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2017 장애인 실태조사 (2017)	김성희 외	설문조사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설계 및 조사표 개발 ◦ 장애의 범위와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시사점 및 정책제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2018)	박신의 외	문헌연구 사례조사 현장조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범주 ◦ 장애예술인 개념 및 정의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지표 및 문항 개발 ◦ 장애인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구성 방향
본 연구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2019)	최영화 이선정	문헌조사 면담조사 서면조사 현장답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례 분석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안 <p>▶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현장여건 반영 ▶ 인천시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제시 ▶ 지자체 최초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p>

4. 연구구성 및 흐름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문헌조사(개념, 법안, 관련 정책·계획, 해외 우수사례)와 면담조사 및 현장답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및 현황), 워크숍(국내 우수사례) 등의 방법을 통해 현황분석을 마친 후,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후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 시설, 인력, 사업, 4개 부문별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1.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개념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3.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4. 시사점

제2장.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1.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개념

1) 장애 및 장애인 개념

(1) 장애

‘장애’의 개념은 나라별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좁은 의미로는 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개념으로 정의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이 이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의 장애 개념에는 의학적 차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곤란을 포함하는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된다(전병태 외, 2007: 9; 이영규 외, 2012: 9),

국내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에는 일상생활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장애와 사회생활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가 모두 포괄된다.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이 중에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

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장애의 종류에 따라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2-1 | 법정 장애인 분류 기준

번호	구분	유형	특징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
2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
3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4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6		안면장애	◦ 안면변형, 안면기형
7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 및 신장이식자
8		심장장애	◦ 중증 심장기능장애
9		장루요루장애	◦ 배변기능장애, 배뇨기능장애
10		간장애	◦ 만성 간질환
11		호흡기장애	◦ 폐, 기관지 질환
12		뇌전증장애	◦ 뇌신경세포장애
13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정신지체장애
14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15		자폐성장애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의 영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2가

지 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또한, 활동유형에 따라 범주화할 경우, 법과 조례에 제시된 지원사업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범위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설정한다. 인천시 조례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범주는 크게 문화예술향유(관람), 문화예술교육(교육), 생활문화활동(단체, 동호회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범주와 다르지 않다.

2) 장애예술 및 장애예술인 개념

(1) 장애예술

국내에는 ‘장애예술’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및 예술활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병태 외, 2007: 15).

한편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장애예술(disability arts) 및 예술과 장애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2-2 장애인 예술의 개념

구분	정의
장애예술	장애인의 문화적·개인적·정치적 경험을 반영해 창작된 작품이나, 장애와 관련된 예술환경에서 창작된 작품
예술과 장애	장애인의 예술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

출처: Arts Council England(2003)

(2) 장애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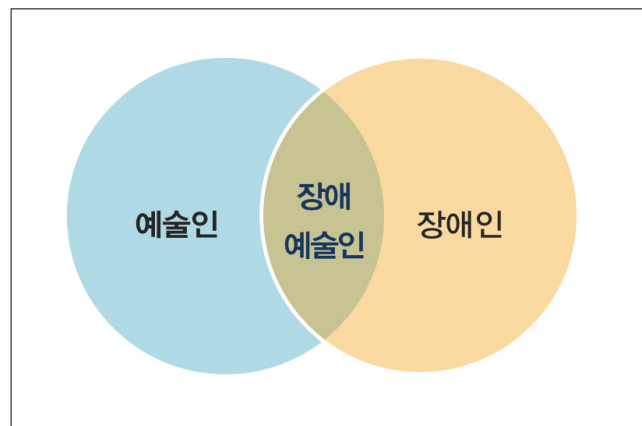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여기서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일컬으며, 앞서 기술한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총 12가지 장르의 분야를 포함한다.

한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제2조)을 말한다.

현행법의 장애인 및 예술인에 관한 개념을 종합하면 예술인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애인 중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예술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2-1 장애인 예술인 개념도



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여건

1) 관련 법률 및 조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은 복지정책 또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부문이 체육국 소관으로 되어있어 적극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2013년 3월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관하여 현재는 예술정책의 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됐다. 2008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책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2.25.).

본 절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과 활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률과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영역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향후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데 참고할 것이다. 먼저 법률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관련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인천시가 2017년에 제정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표 2-3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률 및 조례 목록

구분	법률/조례명	내용	소관
중앙 정부	대한민국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민관제정 위원회
	문화헌장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문화기본법	모든 국민의 문화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적 표현·활동 차별 금지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장애인 활동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인복지법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인권헌장	문화생활 차별금지 및 참여권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문화활동 참여권 및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인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 예술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문화권 관련 법

① 헌법

「대한민국 헌법」(1988.2.25. 시행)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표 2-4 | 「대한민국 헌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1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문화헌장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문화헌장」(2005.5.21. 공포)에서 구체화 되었다. 「문화헌장」 제5조(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나항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 표 2-5 | 「문화헌장」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5.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①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규정(제4조)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6 「문화기본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한다. 제4조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도 제시하고 있다.

| 표 2-7 | 「문화다양성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제15조의 2)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표 2-8 |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5조의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24조에서도 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 표 2-10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3조 (문화예술 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 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4조에서는 예술인이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표 2-11 | 「예술인 복지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① 장애인 인권헌장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국가와 사회가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1998년 12월 9일 국회에서 헌장으로 채택되어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1조는 문화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조는 이동 및 시설이용 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제7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표 2-12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권리(제4조), 장애를 이유로 한 문화생활 차별 금지(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비·환경 정비 및 문화생활 지원 노력(제28조)에 관해 규정하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교육문화 관련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의 2).

표 2-13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서 특

정행동 강요 금지, 정당한 편의(접근 및 편의시설·장비, 보조인력 배치, 기기 및 정보 등) 제공, 필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24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인천시 관련 조례

①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인천시의 기존 장애인 관련 정책사업은 주로 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과와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주관해왔다. 그러나 2017년에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801호)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세부적으로 ‘장애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천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제정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여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환경 개선,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2-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2조 (정의)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구분	조항 내용
수립 등)	<p>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p>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	<p>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관련 정책

(1) 중앙정부 관련 정책

① 문화비전2030¹⁾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문화비전2030」을 통해 다양성을 문화정책의 주요 가치 중 하나로 제시하며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을 강조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비전2030」의 의제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정책성에 대한 존중과 공평한 표현,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화다양성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상을 강화하고 법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행지침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며, 지침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한다. 더불어 현행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확대 개정 시 법률의 위상을 기본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 소관 영역은 반드시 문화다양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가칭)‘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과 (가칭)‘문화다양성 도시’를 지정한다. 현행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는 대상범위나 내용, 정책수단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지역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을 검토한다.

1) 해당 절의 관련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2018a)의 「문화비전2030」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마지막으로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문화적 표현과 체험 기회 확대 등 문화생태계 가치사슬 단계(창조, 유통/전파, 향유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예술지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차별받지 않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가칭)‘다양성 쿼터제’를 마련하여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표 2-16 「문화비전2030」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대표과제	1.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와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과 사업 전반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법정부 차원의 실행지침으로 확대)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 전반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표과제	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제고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정책과 미디어·콘텐츠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실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통합지침 마련 (가칭)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과 (가칭)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대표과제	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단계(창조, 유통/전파, 향유 등)에 따른 정책방안 도출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예술지원의 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비중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a), 문화비전2030

② 새예술정책(2018~2022)²⁾

「새예술정책(2018~2022)」은 「문화비전2030」의 핵심가치를 예술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한 정책이다. 「새예술정책(2018~2022)」 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새예술정책(2018~2022)」의 8가지 핵심과제 중,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크게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첫째,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지원’은 장애인예술활동 실태조사와 장애인 총서 발간, 새 가치 발굴을 위한 장애인예술 정책개발, 문체부 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장애인 예술정책을 추진할 중심 부서를 지정하고 장애인예술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예술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여전히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정보지원 시스템 및 공유 플랫폼 구축과 장애인의 저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예술 전용공연장을 조성한다.

셋째,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을 위해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을 구축하고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장애인 예술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가 육성,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력 확대 지원, 유망 예술인 및 신진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2018b)의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넷째,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에서는 심포지엄, 상호 방문공연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 간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장애예술단체와의 관계망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장애예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17 「새예술정책(2018~2022)」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

구분	내용
핵심과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세부과제	<p>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장애인 예술활동 조사(빈도, 장소, 애로사항 등) 및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등(‘18.6~’19.4월) - (장애인 총서 발간) 장애인 예술 및 담론 활성화를 위해 공연·전시·교육·장애학 등 해외 학술도서 번역·발간 및 국내 연구자료 발간(‘20) - (정책개발) ‘포용적 예술’ 등 새 가치 발굴을 위한 장애인예술 연구(‘19) - (문체부 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예술 접근성 제고, 창작·향유·유통의 선순환 촉진, 이해관계자 간 및 민간 협업 강화 등 장애인예술 정책 지원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지원 시스템/공유플랫폼 구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 - 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 사이트 구축(‘18~) - 창작·관·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 구축 -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Slow Arts Factory) 추진 - 장애인예술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 육성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확대 지원(‘20~) - 유망 예술인 및 신진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 심포지엄, 상호 방문공연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 간 교류 지원 - (국제협력) 국제장애예술단체와의 관계망 구축 및 협력강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b), 새예술정책(2018~2022)

③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³⁾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장애인 정책의 핵심 계획이다.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 삶 전반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계획이다(김성희, 2018).

그간 추진사항으로 1998년 「제1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제4차에 걸친 정책 시행 결과, 장애범주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18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현황

구분	1차('98~'03)	2차('03~'07)	3차('08~'12)	4차('13~'17)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세부 과제	3대분야 71개 세부과제	7대분야 103개 세부과제	4대분야 58개 세부과제	4대분야 71개 세부과제
주요 정책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장애인연금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
참여 부처	3개부처	5개부처	12개부처	12개부처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3) 해당 절은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경제, 권익 및 안전, 사회참여 등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이 중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정책이 포함되었다. 먼저, 장애인 문화향유 정도가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므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높이고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를 지원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을 마련하고 기존 문화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영화관람 접근권 지원을 강화한다.

표 2-1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중점과제	2-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 -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객 및 장애인 예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마련 추진 - 지역의 기존 문화시설·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권고 ◦ 장애인 영화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폐쇄 상영시스템 시범 운영 및 확대 추진 - 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영화 제작 편수 및 상영관 지속 확대 - 디지털케이블방송의 배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 확대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2) 인천시 관련 정책

① 인천비전2050

인천시는 2016년 중장기 계획을 넘어 인천시정 전반의 정책 프레임 구상과 실행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비전2050」을 수립·발표하였다. 「인천비전2050」은 인천시 경제·환경·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지침이며 향후 인천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인천광역시, 2016).

해당 계획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다민종,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등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천광역시, 2016).

더불어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생활문화예술 창조시대’, ‘다문화융합 문화’ 등의 어젠다를 통해 인천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문화다양성 자원 발굴 및 확장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한편, 「인천비전2050」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은 대부분 사회복지 관점의 정책으로 보육 서비스 제도화, 주택 등 무장애디자인 도입,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확대 운영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인천비전2050」은 인천시정의 초장기 계획이라는 특성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문화다양성 확장 등 큰 범주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일부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내용보다는 복지정책 위주로 제시되었고 문화다양성 관련하여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장기적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 표 2-20 | 「인천비전2050」의 관련 내용

의제	내용
지속가능한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름의 인정·상호공존 가치관 실현을 위한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곱 빛깔 무지개센터' 운영 -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차별 없애기 - 거주부터 일상생활까지 차별 없애기: 서로 다름의 인정 및 상호공존 가치관 공유 - 일곱 빛깔 무지개센터: 서로 다름의 인정·상호공존을 위한 지원센터 ◦ 2세대·3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대와 3세대 사회통합 지원의 필요성 -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우대정책 담당관' 제도 운영 ◦ 개방된 일반 국제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외국인학교 및 일상생활과 연계된 국제학교의 공존 - 구성원의 국제화 및 통합교육이 생활화된 국제학교 - 교육청의 '국제학교 담당관' 제도 운영 통한 자원 및 관리·감독 ◦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 시민현장'의 공포 및 시민행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 및 행동규범의 기본원칙으로서 '서로 다름의 인정·상호 공존' -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 시민현장'의 공포 -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 시민현장'의 시민행정 적용
시민 생활문화예술 창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형, 생활밀착형 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생활문화예술 및 창조적 여가활동 종합발전 계획 수립 - 거점형, 생활밀착형 시민예술촌 건립 ◦ 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재원 확충 ◦ 시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융합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가치 속에 녹아든 문화다양성 계승과 액션플랜 제시 ◦ 개항창조도시의 문화융합 선도지구화 ◦ 인천 고유 가치 재창안

출처: 인천광역시(2016), 인천비전2050

②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인천시는 인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문화도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책내용과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문화주체, 문화활동, 문화공간, 문화공동체, 문화산업, 문화연동, 문화협영, 문화재원 등 8개 실천범주에 21개 정책과제, 70개 세부사업을 제시한다(인천광역시, 2017).

그중 문화공동체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지역 간 문화협력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 간 접점을 발견하고 이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공공-민간 문화단체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인천 세대잇기 프로젝트,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인천광역시, 2017).

대부분 문화다양성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정책은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등이 있다. 다원문화예술단체에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및 컨설팅, 문화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인천광역시, 2017).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에 포함되는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액션 플랜 수립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등에 관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문화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표 2-21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관련 내용

정책과제	세부사업	내용
문화공동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다원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비주류, 대안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필요 - 민간 영역의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및 문화다양성 풍토 확산 ◦ 사업대상: 인천시 민간 영역 다원문화예술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문화예술단체가 필요한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추진 - 다원문화예술단체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다원문화예술단체와 및 타 문화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플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와 핵가족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다문화 인구의 증가, 소수자의 문제 등에 직면하여, 다양한 집단의 표현과 권리가 보장되고 공존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 필요 -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인천시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2,0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2014)을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제정과 실천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수를 측정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

출처: 인천광역시(2017),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③ 인천광역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인천광역시는 민선7기를 맞아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은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최상위 계획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의 5대 시정목표에 20대 시정전략 138대 시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인천광역시, 2018).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는 경제·교통·행정·문화·복지·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대상 정책은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등이 있으나(인천광역시, 2018), 문화 분야 정책은 대부분 문화공간 조성 정책 중심이고 문화다양성 확대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표 2-22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의 관련 내용

목표	전략	시정과제	주관부서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 훈련센터 건립	장애인 복지과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장애인 복지과
		◦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공감복지과

출처: 인천광역시(2018),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최근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에서의 정책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비전2050」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사업

(1) 중앙정부 관련 사업

①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 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을 건립했다. 이음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각종 공연 및 전시 사업을 시행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2019. 4.10. 검색).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장애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향유, 교육, 국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2019년도에는 ‘창작 활성화’, ‘유망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향수’, ‘동호회 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창작, 향수, 교육 분야의 예산을 증액한 결과, 사업의 총예산은 37억 6천만원 규모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1.30.).

먼저, 창작 분야 지원사업으로 ‘창작 활성화 지원’과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과 단체의 예술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시각예술, 문학 분야에 대한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장애인예술의 기획·창

작·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 표 2-23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창작 분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적 표현 권리 확대	1,000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및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가(단체) 신청 불가)	
	지원분야	◦ (공연)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예술 등 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연분야 창작 및 공연 ◦ (시각예술) 동양화·서양화·서예·조각·사진 등의 시각예술 분야 창작 및 전시 ◦ (문학) 시·시조·소설·수필·희곡·아동문학(동시, 동화)·평론 등의 문학 분야 창작 및 발간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예술의 기획·창작·역량 강화를 통해 대표적 프로그램 개발 및 발표를 지원하여 특성화된 장애인예술 콘텐츠 발굴 도모	500
	사업내용	◦ 장애인의 정체성, 감수성을 담아내는 기획·창작·협업 예술프로젝트 ◦ 장애인예술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및 국내·외 장애·비장애예술인과의 협업 등을 통한 융복합적 실험 프로그램, 고유 레퍼토리 개발 등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향유 분야에는 ‘문화예술 향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문화예술 향수 지원은 장애인 대상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장애인 예술단체이더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동호회 활동 지원은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 표 2-24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향유 분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900
	사업내용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공연, 시각예술, 문학)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지원분야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발표 사업 ◦ 비장애인 예술단체도 참여 가능하나 장애인 단체가 주체가거나 장애인을 대상(참여자, 향유대상)으로 하여야 함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200
	사업내용	◦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의 예술 활동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동호회	
	지원분야	◦ 장애인 예술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 및 체험 사업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교육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를 육성하고자 시행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 표 2-25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교육 분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 육성	600
	사업내용	◦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장애인 예술가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지원분야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교육·실습)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유형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연구, 시청각 장애인 교안 개발 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마지막으로 국제분야는 장애예술가 및 단체의 국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외기관과의 협업 및 국외에서 진행되는 작품활동 등을 지원한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 표 2-26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국제교류 분야)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목적	◦ 장애인 예술가의 해외 교류 및 예술활동 발표 통한 역량 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형성	560
	사업내용	◦ 국외 문화예술 교류 및 작품활동 지원(공연 분야: 음악, 무용 등/ 시각예술 분야: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 장애인예술가 및 장애인예술단체, 비장애인 예술단체	
	지원분야	◦ 국외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제작 및 발표 ◦ 국외 작품활동(공연·전시·비엔날레·페스티벌 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총 185건이 선정되었으며, 창작
활성화 지원 77건, 문화예술 향수 지원 34건, 동호회 활동 지원 24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27건, 국제교류 활동 지원 23건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3건 > 경기도 33건 > 부산 10건 > 전남 9건
> 전북 7건 > 인천, 충북 각 6건 등의 순으로 선정되었다(한국장애인문화
예술원 홈페이지, 2019.4.10. 검색).

| 표 2-27 |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결과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신청	194	90	20	9	24	7	10	17
선정	83	33	6	3	5	2	2	5
선정률	43%	37%	30%	33%	21%	29%	20%	29%
지역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신청	13	19	8	18	28	10	15	8
선정	2	10	2	9	7	5	5	6
선정률	15%	53%	25%	50%	25%	50%	33%	75%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4.10. 검색)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총 20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3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 결과는 <표 2-28>과 같다.

| 표 2-28 | 2019년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선정 결과

(단위: 백만원)

연번	단체명	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극단애인	극단애인의 1인극장 프로젝트	100
2	핸드스피크	Deaf Art Festival	100
3	사)한국장애인문화 협회	K 에이블 POP 그룹결성 및 음반제작 프로젝트	100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4.1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외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사업은 지자체 및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특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예술현장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2019년도에는 공모를 통해 부산, 광주, 대구, 제주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3~5년간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장애문화예술 거점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오세형, 2019.1.).

지원규모는 총 10억원이며, 2019년 기준 부산문화재단 4억 4천만원(3년간 약 15억원), 광주문화재단 2억 5천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3억원, 대구문화재단 1억원(3년간 총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각 지자체 문화재단은 지역장애인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작활동지원, 거점공간 구축,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구문화재단, 2019.7.5.; 부산문화재단, 2019.8.8.; 양가람, 2019.6.23.; 우종희, 2019.7.2.).

| 표 2-29 |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용	예산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기관: 부산문화재단 ◦ 사업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 목적: 부산 지역 장애 예술인·기획자의 창작활동 지원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여 ◦ '19년도 사업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 이해 확산 -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산 지역 장애 예술인·기획자를 발굴·지원 - 장애인 생활문화축제 개최: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킹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장애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44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기관: 대구문화재단 ◦ 사업명: 예술 활동지원 프로젝트 'ME WE' ◦ 목적: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창작가와 향유자로 공존 ◦ '19년도 사업계획 - 장애학생 활동지원: 대구문화재단 시각분야 예술인과 지역 내 16세 미만 미술에 관심 또는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 일대일 매칭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 장애인 공연 예술단 활동지원: 대구 기반 '공연예술' 분야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단체 활동지원 	10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기관: 광주문화재단 ◦ 사업명: 예술날개 프로젝트 ◦ 목적: - 장애인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의 구성원으로 공존하고 예술의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자는 의미 - 장애예술을 복지 혹은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차별 없는 예술·포용하는 문화'의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 ◦ '19년도 사업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및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실태 및 수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현황(규모, 장르, 창작여건, 경제활동 등)에 대한 조사 -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운영: 문화예술·복지·인권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단체, 예술인, 기획자,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선진사례 및 정책방안 등을 공유하는 워크숍·토론회 개최 -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시범 지원: 열악한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형(배리어프리) 편의시설 구축이나 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시범 지원 - 예술날개 네트워크 페스티벌: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소통의 장으로서 예술인 쇼케이스, 우수 장애예술단체 초청공연 등 ◦ 향후 계획 - 지역 특성화 기획 프로그램, 생활권 내 장애인 문화예술 거점공간 지원, 	25

구분	내용	예산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지원 등을 연차별로 추진·확대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행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사업명: '제주 장애예술 창작기반 구축사업-폴리시랩(Policy Lab) 프로젝트 ◦ 목적: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19년도 사업계획 -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특성화 모델을 연구하는 정책 설계와 실험 ◦ 향후 계획 - 2020년: 특성화 모델 개발을 통한 장애예술 시범사업 운영, 문화예술 무장애(BF)공간 실태조사 - 2021년: 장애예술 정책 실행을 통한 문화예술 BF공간 운영과 장애예술인 지역특성화 사업 	30

출처: 대구문화재단(2019.7.5.); 부산문화재단(2019.8.8.); 양가람(2019.6.23.); 우종희(2019.7.2.)

②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함께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시행한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문화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무지개다리 사업은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범위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확장되어 모든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계층, 거주환경, 소속집단, 지향가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해당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단년도 지원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광역 및 기초단위 공공문화재단·공공문화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문화기관을 선정 후 사업비를 지원하며, 1개 주관기관당 4천만원 내외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 표 2-30 | 2019년 무지개다리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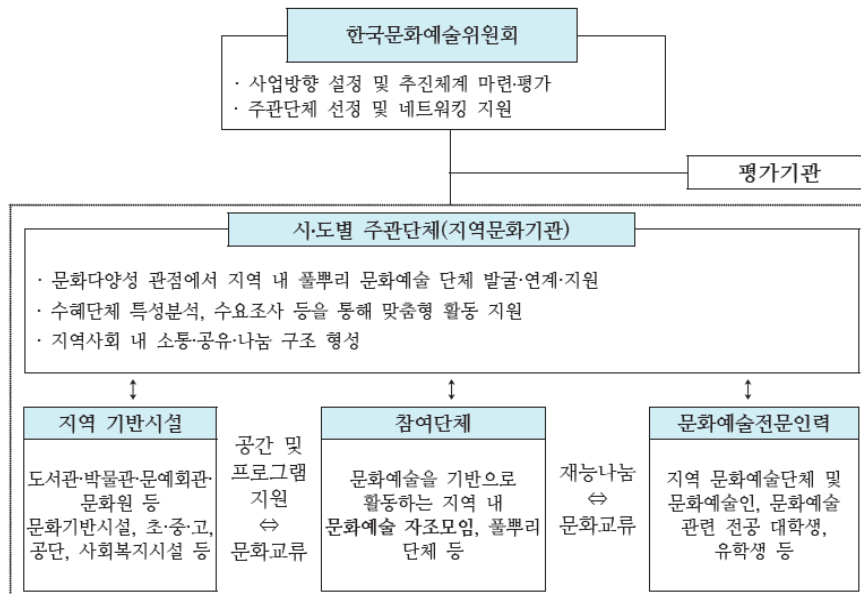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명	◦ (국고)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사업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예산	◦ 1,740,000,000원(민간경상보조)
공모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권의 공공문화재단·공공문화기관(문화재단·공공문화기관들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 있는 지역의 문화재단 등 공공 문화기관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 원 내외~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예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조사, 라운드테이블 구성, 워크숍연수 운영 등 ◦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 지역사회 소수자 집단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소수자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 - 청소년·노년층 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및 갈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 간 소통·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교류 확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주간(2019. 5. 21. ~ 5. 27.) 기념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문화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설명회

선정된 주관기관은 문화다양성 증진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소수자들과 선주민 간 문화활동을 매개로 한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사업의 추진은 예술위에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주관단체를 선정 및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평가기관을 거쳐 선정된 시·도별 주관단체는 지역 기반시설과 참여 단체, 문화예술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연계·지원하고 맞춤형 활동 지원 및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그림 2-2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설명회

③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다. 소외계층에는 복지기관(아동·노인·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소년원학교, 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되며, '복지

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9.11.28.).

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⁴⁾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조현성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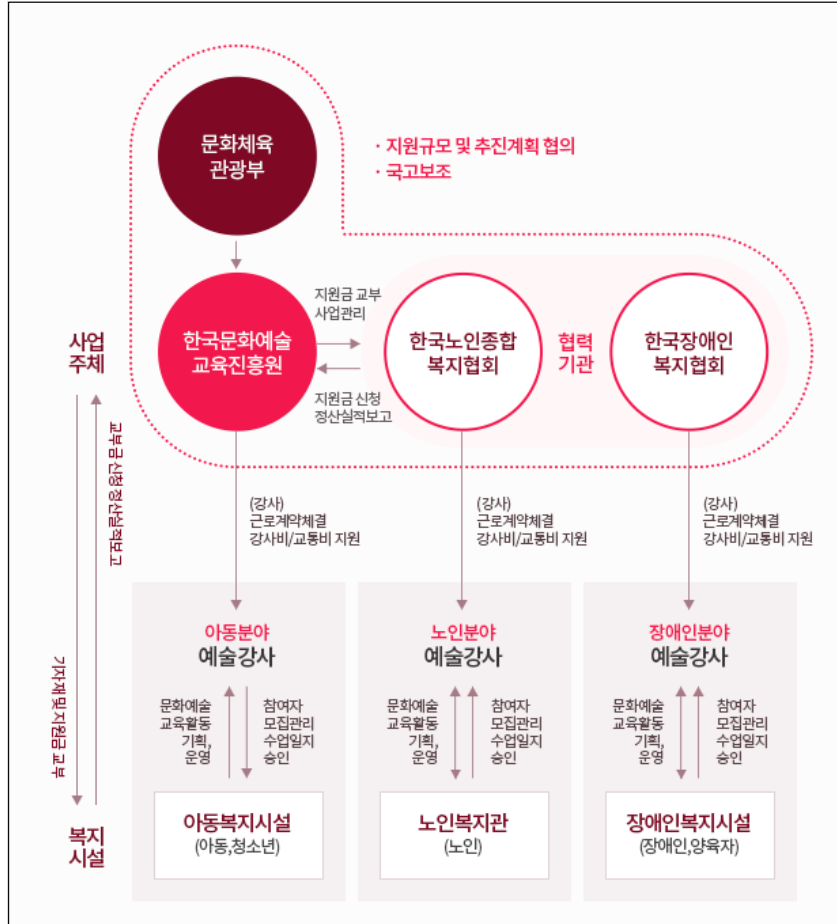
표 2-31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지원대상	◦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협력
지원규모	◦ 장애인복지시설: 210개 시설, 410개 프로그램
지원분야	◦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2019.11.28. 검색)

4) 장애인복지관협회의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제도개선, 중사자교육연수, 업무전산화,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특화 외부지원사업 및 업무협약, 조사연구출판홍보, 교류협력사업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검색, 2019.11.28.)

| 그림 2-3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2019.11.28. 검색)

치료·재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환경에서 일회성·이벤트성, 관람 위주로 문화예술을 접하던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을 확대하는 게 사업의 목표이다. 기존 장애인복지기관은 자체적으로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적·체계적이지 않아, 진흥원의 수준 높은 강사진과 예산 및 보조강사 지원으로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2) 인천시 관련 사업

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존에 인천시에서 추진해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의 주무부서는 교육협력담당관실이나 장애인복지과였다. 주로 장애인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예술행사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인천광역시, 2018.2.).

그러나 2017년에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도 2018년부터 조례에 따라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기반 장애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창작발표 및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 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연주회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연습비 등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용, 공연 등 행사비용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표 2-32 | 2018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년 2월~12월
지원분야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연주회 등 -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연습비 일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 장애인 공연 등 행사지원
지원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 장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단체 및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기준	◦ 단체별 최대 25,000천원 이내 / 2~3개 단체
사업주관	◦ (재)인천문화재단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출처: 인천광역시(2018.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8년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총 추진현황은 <표 2-33>과 같다. 문화예술과와 장애인복지과,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천시 장애문화예술단체를 합하여 총 15개 단체가 지원받았다. 다만, 각 부서의 사업내용이 음악, 미술 분야 활동 등 제한적이고, 사업수행단체도 일부 중복되어 지원사업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표 2-33 | 2018년도 장애인단체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수행단체명		사업내용	예산	재원	담당기관
계				317		
장 애 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18신규)	(사)꿈꾸는 마을		◦ 창작 다원예술 공연	22	시비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자: 인천문화재단)
	서음아트컴퍼니		◦ 실내악앙상블과 합창단 연합공연	18		
	(사)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인천시지부		◦ 복합댄스 및 뮤직페스티벌 개최	8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 분야)	인천장애인능력개발 문화센터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드림합창 단 공연	9	시비	장애인 복지과
	(사)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인천시지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18 공감 동행 음악 콘서트 등	150		
	인천가족사랑		◦ 사진으로 만드는 가족이야기(중증장 애인 사진·편집교육, 외부 출사활동, 전시회 개최 등)	10		
장애성인 야학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대상 교육 시설 (교육청 등록)	민들레장애인야학	◦ 미술, 통합예술	9	시비	교육협력 담당관실
		바래미야학	◦ 이야기창작교실	11		
		작은자야간학교	◦ 미술	4		
		인천밀알야학	◦ 난타, 노래교실, 미술치료	14		
		참빛드림학교	◦ 난타, 클라리넷	13		
장 애 인 평생교육 (문화예술 분야)	인천광역시 미추홀 장애인종합복지관		◦ 쉽게 들려주는 문화예술이야기, 노래 로 배우는 즐거운 세상	4	시비	교육협력 담당관실
	솔숲작은도서관		◦ 아름다운 캘리그래피	3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대상 공예교육	8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라운제나 오케스트라		◦ 발달장애인 라운제나 오케스트라 제8 회 재능나눔 정기연주회	34	국비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출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2019.5.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계획

② 인천시 무지개다리 사업

문체부는 2019년도 무지개다리 사업을 위해 약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6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별 한 곳의 지역 문화기관이 선정되었으나 인천시의 경우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두 곳이 선정됐다(문화다양성 아카이브, 2019.4.11. 검색).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은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이며,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의 사업은 ‘디아스포라영화제’이다. 두 사업 모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인천시 문화다양성을 발굴하고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영화제를 개최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은 미미하다.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는 인천문화재단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2018년도에는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인천’을 사업목표로 문화다양성 마켓, 세계음악 공연,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자 양성과정, 문화다양성 성과공유회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인천문화재단, 2018.11.). 그러나 이 사업에 장애인의 참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 표 2-34 |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2018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인천’ - 인천 문화다양성 방향 제시 - 문화다양성 정책논의를 위한 협력구조 구축 - 상호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국시장 파라다이스(만국시장-별난마켓/만국음악살롱) ◦ 세계음악소동 “인천에서 세계음악을 만나다” ◦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인천에서 세계문화를 만나다” ◦ 엄마는 문화예술선생님(신규) ◦ 2018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성과공유회 ‘올해도 수고했어요’

출처: 인천문화재단(2018.11.)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디아스포라영화제’ 역시 ‘이산(離散)’을 의미하는 영화제의 명칭과 주제의식에 따라 장애인이나 장애예술보다는 결혼이민자, 난민, 이주노동자, 새터민, 외국인 유학생 등 본국을 떠나 이주한 계층과 소수민들의 삶 자체에 주목한다.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영상문화를 매개로 영화제, 소수민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2018.5.).

표 2-35 | 2019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의 역사를 지닌 인천의 도시경체성을 확장하고, 영상문화를 매개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새터민,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들의 삶을 공유·소통할 수 있도록 함 	
사업 내용	부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카데미: 강연, 포커스 토크, 디아스포라의 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 전시: 자이니치 작가 사진전, ‘태양을 넘어서’ 체험프로그램: 직조체험, 유엔난민기구 VR체험 마켓&음식전: ‘만국시장-별난마켓’, ‘Cafe In, 모자이크’ 교육: 청소년 영화캠프 ‘영화, 소란’, 청소년 영화감상문 공모전
	본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폐막식 및 영화 상영(30개국 총 64편): 디아스포라 월드와이드, 코리안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아시아 나무, 시네마 피크닉, 특별상영,

출처: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2019.1.16.); 디아스포라영화제 홈페이지(2019.6.20. 검색)

무지개다리 사업의 취지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 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문화다양성 아카이브, 2019.12.31. 검색). 따라서 향후 인천시의 무지개다리 사업영역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까지 확대하거나 장애인도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의 사업 및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운영방식 등을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기관 및 시설

(1) 중앙정부 관련 기관

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개요

문체부는 2015년 3월 11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수행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행·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 문체부 장애예술 담당부서는 장애예술의 정책개발, 거버넌스(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구축에 집중하고, 예산 교부체계는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정책과 사업 영역을 분리하여 지원전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2.25).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자생적 창작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①소통: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②창작: 창작역량 강화, ③방향 제시: 정책 발굴·지원, ④대중화: 참여와 향유 확대)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2019.6.20. 검색).

| 표 2-36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비전 및 미션

비전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자생적 창작 생태계 구축	
미션	장애인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	
추진전략 (4C)	소통(Communication)	◦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창작(Creation)	◦ 창작역량 강화
	방향제시(Control Tower)	◦ 정책 발굴·지원
	대중화(Commonality)	◦ 참여와 향유 확대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6.20. 검색)

조직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팀(경영관리팀, 사업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은 이사장 1명, 경영관리팀 9명, 사업운영팀 12명, 총 22명이다.

그림 2-4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도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6.20. 검색)

경영관리팀은 주로 예결산, 회계, 급여 등 내부 운영 및 대관운영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운영팀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함께누리사업, 체육기금사업을 운영하며, 그 외 기획사업과 홍보, 조사연구 등을 담당한다. 경영관리팀에서 대관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조명·음향·무대감독이 없어 대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섭외해야 전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표 2-37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직별 업무

구분	주요업무	
경영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결산, 회계, 급여 기관행사, 업무협약, 민원 이사회, 제규정, 국회, 대외 대관 운영, 공간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계약, 직원교육 총무, 시설, 정보화, 용역 및 임대 관리 회계, 정보화, 수입관리, 서무
사업 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진, 극장조성, 대외 함께누리사업, 체육기금사업 기획사업,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시스템 홍보, 홈페이지, 기획 조사연구, 평가모니터링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6.20. 검색)

■ 사업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량 역할 및 정책 지원, 사업운영, 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예술 협력네트워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운영과 시설 대관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자체 기획프로그램이 있다. 2019년에는 장애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향유, 교육, 국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거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표 2-23~29〉 참조).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된 기획프로그램은 총 13개가 있으며 대부분 장애예술 확산과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창작활동 지원, 전시 및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2019.10.30. 검색).

표 2-38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2019 기획프로그램

사업명	내용
포용 다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세미나 - 일시: 2018.1.17. - 내용: 아시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례 공유 및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논의
Sync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간: 2018.3.17.3.21 - 주최/주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주한영국문화원 - 참가비: 무료 - 내용: 그룹활동, 개인 코칭(리더십 학습) - 지원자격: 장애가 있는 예술가 또는 예술기획자, 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경력을 가진 자, 본인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 가능한 자
스테이지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뮤지컬 제작 지원 - 내용: 시놉시스 및 대본 공모, 제작 지원 및 쇼케이스 ① 시놉시스 - 3~5개 작품 선정, 작품별 300만원 창작지원금 지급 - 우수작 1~2개 작품 낭독공연 제작 지원 - 차년도 창작뮤지컬 본공연 기회제공

사업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코칭, 멘토링, 특강 등 성장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기획사의 컨설팅 및 관리 지원 - 시놉시스 작가 개인 신청의 경우, 작곡가 매칭 <p>② 대본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작품 선정, 창작지원금 1,000만원 지급 및 쇼케이스 제작 지원 - 다음 연도 창작뮤지컬 본공연 기회제공 - 전문 기획사의 컨설팅 및 관리 지원(사업 규모 및 기대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항목 공연 관련 사례비, 제작비, 연습실, 임차료, 홍보비 등 지원)
조금 다른 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음악그룹 발굴·지원사업 - 목적: 역량 있는 음악 프로젝트 그룹 발굴하여 성장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음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장애예술의 대중성 확보와 인식개선 추구 - 신청자격: 장애인이 포함된 소규모 음악 그룹 - 공모분야: 대중음악(락, 힙합, 가요, 재즈 등), 퓨전, 클래식(실내악, 중창) - 지원내용: 창작활동비(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음악활동 및 작품발표공연 지원, 앨범·음원 발매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총 1~2팀 내외 선정
FabcoNN 팝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공예 인력양성 사업 - 모집분야: 총 8개 과정(도자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재봉, 염색 펠트, 레이저커파, 복합드로잉, 3D 프린터) - 신청자격: 공예예술에 관심이 있고 창작자로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또는 비장애인 - 교육기간: 2018.11.26.~2019.1.19.(분야별 주1회 총 6주) - 모집인원: 분야별 최대 10명 - 수강료: 1과목 당 장애인 30,000원, 비장애인 60,000원(재료비 전액 지원)
포용적 예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장애예술 전문가 초청 워크숍 - 내용: 공동협력 작업에서의 다양성의 가치와 평등
이음 해외 공연 쇼케이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영국문화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 목적: 한국과 영국의 장애예술인 및 예술 전문가들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장애예술 기반을 공고히 하고 예술적 지평을 확장하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향수 기회를 확대 ①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장애예술인 작품 국내 공연 ② 해외 장애예술 전문가 초청 강연 ③ 해외 장애예술 전문가 초청 워크숍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낭독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숨'의 모파상 작품 낭독공연

사업명	내용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가 창작활동 및 작품 홍보 지원 - 신청자격: 장애인 예술단체 ①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미술가들이 작품 전시·판매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300,000,000원 - 장애인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조명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국내외 작가 교류를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장애인 미술가 작품과 디자인을 결합한 다양한 아트상품 개발 및 마켓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창출 ②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장애인 미술가들의 기획전시 및 협업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원규모: 150,000,000원 - 국제교류를 통해 동시대 미술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국내 장애인 미술가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장애예술의 가능성 제시 - 해외 장애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 미술가들의 창작활동 저변 확대
시각장애인 문화예술 정보 콘텐츠 제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문화향유권 신장 - 내용: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정보 콘텐츠 제작(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가공 및 변환)·배포 - 지원규모: 100,000,000원 - 신청자격: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배리어프리 플레이 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 전시 및 페스티벌 개최
포용적 예술 프로젝트_언러닝, 뮤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미술관과 연계 프로젝트 -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연결되고 환대받을 수 있는 미술관 공간에 대해 고민하기 위한 프로젝트 - ‘포용적 예술’이라는 개념 안에서 ‘언러닝’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것 - 발달장애 예술가 4인, 비장애 예술가 4인 간 공동창작 전시회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10.30. 검색) 참조하여 연구자 재정리

■ 시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전용시설인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시설은 크게 이음아트홀(스튜디오), 커뮤니티룸, 갤러리(전시실), 연습실, 야외무대, 카페로 구성된다.

그 밖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문턱 없는 공간, 점자 및 음성안내시설, 휠체어 전용석, 안전 유도 손잡이,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표 2-39]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시설현황

(단위: m², 명)

공간명	층별	면적	장비	수용 인원
연습실	지하1층	95	◦ 다양한 예술장르 연습공간	15
갤러리	2층	165	◦ 시각예술 발표·전시공간	40
커뮤니티룸 1,2	3층	39	◦ 토론, 회의, 세미나, 교육공간 빔프로젝터, 모니터, 음향장비(스피커, 마이크)	16
		63		30
커뮤니티룸 3,4	3층	-	◦ 사무공간	-
이음아트홀	5층	172	◦ 각종 예술행사 및 공연공간 음향/조명콘솔, 빔프로젝터, 현수막걸이(2EA_가로 7.2m), 빔프로젝터 스크린(300인치)강연대(1), 의자(80), 댄스플로어(1.6m*5m)(5) 이동식무대(1m*2m*0.2m높이가변)(18)), 슬로프(1m*2m*0.2m)(2), 좌식의자(30), 그랜드피아노	80
야외무대	외부	-	◦ 전기시설	-
무장애시설	전층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2대), 경사로, 문턱 없는 공간, 시각장애인 공간(점자 및 음성안내도, 경사구간 내 점자 스티커, 건물 내외부 점자형 블록), 휠체어 전용석, 안전유도 손잡이 등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6.20. 검색)

| 그림 2-5|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시설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6.20. 검색)

2018년 기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시설 대관율은 74.4%로 총 791건의 대관이 있었다. 공간별 대관현황을 살펴보면, 이음아트홀이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커뮤니티룸 176건 > 연습실 171건 > 커뮤니

티룸1 109건 > 갤러리 53건 등의 순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2019.10.15.). 대관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이음아트홀의 경우 대부분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에서 대관하고 있으며, 갤러리의 경우 시각예술 단체가 주로 대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2018년에는 총 127개 단체에서 대관했으며, 이 중 장애 관련 단체 66개, 비장애 단체가 61개이다. 전체 대관에 대한 단체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장애인 및 단체 34.7%, 비장애인 및 단체 32.0%이며, 내부 대관비율이 3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 대관의 경우 대부분 장애예술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대관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2019.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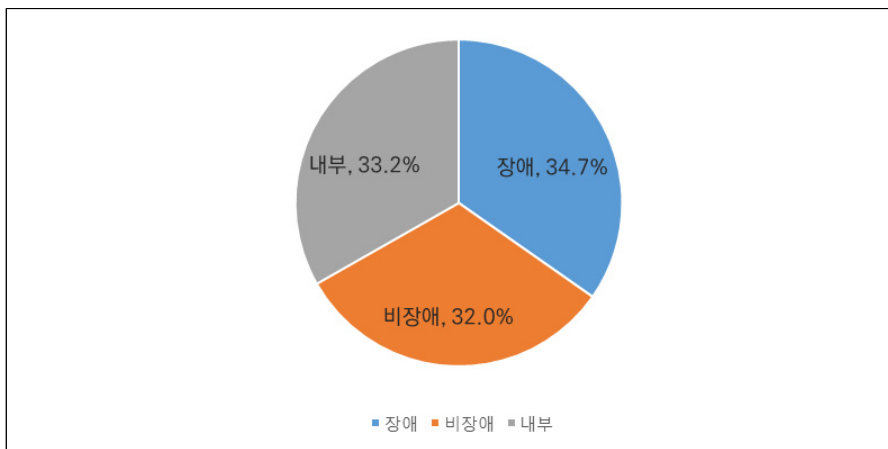
| 표 2-40 | 2018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공간별 대관현황

(단위: 건)

공간명	대관	공간명	대관
연습실	171	커뮤니티룸3	22
갤러리	53	커뮤니티룸4	17
커뮤니티룸1	109	이음아트홀	196
커뮤니티룸2	176	야외무대	47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2019.10.15.)

| 그림 2-6 | 2018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단체유형별 대관현황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2019.10.15.)

대관은 오전, 오후, 저녁, 1일로 구분되며, 이음갤러리와 야외무대의 경우 1일 대관만 가능하다. 대관료는 4~24만원 사이이며, 장애인의 경우 대관료의 50%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표 2-4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대관시간 및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구분	대관료	
		장애	비장애
연습실 커뮤니티룸1,2	오전(09:00~13:00)	20,000	40,000
	오후(13:30~17:30)	30,000	60,000
	저녁(18:00~22:00)	30,000	60,000
	1일 사용	50,000	100,000
이음아트홀	오전(09:00~13:00)	40,000	80,000
	오후(13:30~17:30)	50,000	100,000
	저녁(18:00~22:00)	50,000	100,000
	1일 사용	120,000	240,000
갤러리	1일 사용(09:00~22:00)	120,000	240,000
외부무대	1일 사용(09:00~22:00)	무료 (전기사용료 10,000)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2019.10.30. 검색)

(2) 인천시 관련 시설

① 시설개요

인천시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시설 등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시설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 직업훈련, 거주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크게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시설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표 2-42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구 분		내 용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생활)시설, 개인운영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입원 및 통원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유통 대행, 생산품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홍보·마케팅 지원시설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여기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여러 유형 중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외 복지시설 유형⁵⁾은 임상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장애인의 거주·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019년 5월 기준, 인천시 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62개소로, 이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54개소이다. 유형별로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7개소, 기타 시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송암점자도서관) 7개소이다(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2019.7.1.a).

표 2-43 |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9.5. 기준)

(단위: 개소)

총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	
	계	가주 (생활) 시설	개인 운영 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 재활 시설	소계	근로	보호		
							소계	복지관	주간 보호						기타
162	71	19	5	5	42	56	54	10	37	7	2	34	3	31	1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a)

- 5)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기능향상지원사업, 가족문화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 직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 말 기준, 용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평균 이용자수는 10개소 총합 2,189명이고,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291명 > 노틀담복지관 276명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266명 순이다.

| 표 2-44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일평균 이용자수(2019.5. 기준) (단위: 명)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시각	인천	남동	부평	노틀담	서구	강화
2,189	148	127	212	221	275	245	266	276	291	128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b)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문화여가 지원에는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예술인 육성, 평생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전병태, 2015). 시설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간단한 공예, 합창, 영화감상, 음악(악기연주), 미술교육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45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2019.5. 기준)

군·구	명 칭	운영주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구	인천광역시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지원사업 - 클레이, 오케스트라, 문학, 영화관람, 난타, 미술공예, 미술, 하모니카 등
동구	한마음장애인복지관	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프로그램 - 음악, 사진, 우쿨렐레, 미술, 서예, 공예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지원 - 댄스, 미술, 음악, 영화/공연 관람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지원사업 - 댄스, 우쿨렐레, 종창, 연극, 사진, 공예

군·구	명 칭	운영주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수구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지원 - 문화공연 및 문화체험, 영화관람 등 - 오케스트라(바이올린, 플루트)
남동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지원사업 - 공예, 음악, 댄스 ◦ 지역연계사업 - 여가문화지원(문화체험, 공연관람)
부평구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스포츠사업 - 작품전시회, 해밀합창단 ◦ 장애인 문화축제
계양구	노틀담복지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교육사업 - 공예, 도예
서구	인천광역시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축제 ◦ 가족문화지원 - 댄스, 도예, 플루트, 국악, 미술
강화군	강화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지원 - 서예, 미술, 음악, 무용, 영화감상, 공예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a); 각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2019.7.5. 검색) 참조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고 낮 시간에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인천시에는 총 37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군·구별 부평구가 총 8개소로 가장 많으며, 미추홀구 6개소, 계양구와 남동구가 각각 5개소 순이다.

표 2-46 |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추진현황(2019.5. 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개소	37	3	1	6	4	5	8	5	3	2
이용자	496	36	12	83	57	60	113	68	44	23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b)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주로 재활치료사업과 여행·견학 및 취미 생활 지원, 시설이용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2019.7.1.b). 그중 문화예술활동에는 이동이 불편한 지체,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대상 음악감상, 노래교실, 미술교육 등 간단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표 2-47 |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2019.5. 기준)

(단위: 개소, 명)

군·구	시설명	정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구 (3)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5	◦ 서비스 제공 - 동아리 활동, 교육활동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16	◦ 정서지원사업 - 영화관람, 미술, 음악, 콘극미디어(창작콘텐츠 연계 활동)
	영종주간보호센터	10	◦ 지역사회심리프로그램 - 음악극, 종이접기, 영화감상, 미술 등 ◦ 자립훈련지원 - 공예, 도예 등
동구 (1)	동구한마음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2	◦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활동, 수감각활동, 문해 활동, 시청각활동
미추 홀구 (6)	미추홀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2	◦ 교육지원 - 문화활동: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감상
	시각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0	◦ 민요교실, 노래교실, 합주교실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20	◦ 공예프로그램 등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5	◦ 정서안정프로그램 - 문화체험 영화관람, 공예교실
	늘푸른샘 주간보호센터	18	◦ 미술, 음악활동, 공예교실 등
	미추홀장애인아동 주간보호센터	15	◦ 여가활동지원사업 - 공예놀이, 음률활동, 미술활동

군·구	시설명	정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수구 (4)	해내기 주관보호센터	15	◦ 문화여가지원사업 - 여가활동, 정서지원, 문화활동, 연극활동
	연수허브 주간보호센터	18	◦ 문화체험활동
	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	15	◦ 도예활동 등
	연수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	◦ 정서안정지원 - 예능활동: 음악감상, 리듬체조, 악기, 노래 등 - 미술활동, 시청각활동 등
남동구 (5)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14	◦ 여가 및 취미생활지원 - 음악활동, 공예, 국악
	하늘고운 주간보호센터	12	◦ 취미교실 - 미술활동, 노래, 악기연주
	바다의별 주간보호센터	12	◦ 교육 재활프로그램 - 난타, 미술
	셋별주간보호센터	12	◦ 교육재활사업 - 아트플러스(공예), 페니뮤직(찾아오는 공연)
	동그라미 주간보호센터	12	◦ 음악교실, 미술활동, 공예, 댄스 등
부평구 (8)	해늘 주간보호센터	16	◦ 문화여가지원사업 - 음악, 미술, 공예, 도서관 이용 등
	성동 주간보호센터	21	◦ 사회적응훈련 - 문화활동: 영화, 음악활동, 견학 등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5	◦ 문화여가지원사업 - 음악활동(악기연주 등)
	아카펠라주간보호센터	15	◦ 음악활동 등
	헤인 주간보호센터	15	◦ 스토리뮤직, 미술, 도예 등
	베데스다	15	◦ 교육재활사업 - 음악, 미술활동

군·구	시설명	정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주간보호센터		◦ 사회심리재활 - 풍물활동
	나래 주간보호센터	12	◦ 사회심리재활사업 - 음악치료, 공예, 미술
	꿈이룸 주간보호센터	12	◦ 사회재활사업 - 영화관람, 노래, 악기, 미술활동
계양구 (5)	노틀담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4	◦ 여가활동지원 - 우쿨렐레 연주감상, 연극관람 등 ◦ 교육지원 - 오르프 음악활동
	노틀담성인 주간보호센터	12	◦ 여가활동지원 - 문화여가, 예술활동, 기타취미활동
	사랑터 주간보호센터	12	◦ 음악감상, 영화감상, 음악, 미술, 도예, 공예, 라인댄스
	해도두리 주간보호센터	12	◦ 교육·재활프로그램 - 미술, 음악활동
	예원주간보호센터	10	◦ 여가지원사업 - 미술활동
서구 (3)	태화인천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	◦ 심리재활 프로그램 - 음악활동, 미술활동, 음악/영화감상
	서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5	◦ 교육재활사업 - 집단활동(음악, 미술)
	노티나무 주간보호센터	15	◦ 교육재활사업 - 음악활동, 창작활동(미술, 공예, 조형 등)
강화군 (2)	마리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	◦ 정서지원 - 미술, 음악활동, 타악기교습
	강화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10	◦ 인지정서지원사업 - 미술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a); 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홈페이지(2019.7.9. 검색)를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 송암점자도서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다. 송암 점자도서관은 일반적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정보·복지의 종합센터로서 역할 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되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인천의 인물이자 최초로 한글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이름에서 명칭이 결정되었으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송암점자도서관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인천시 내 장애인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은 송암점자도서관이 유일하다.

시설은 총 351.75㎡의 부지에 연면적 766.55㎡(지상3층) 규모이며, 열람실, 점자도서제작실, 녹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송암박두성기념관을 함께 운영 중이다.

| 표 2-48 | 송암점자도서관 시설현황

(단위: ㎡)

구분	시설현황
지상1층 (30.21)	◦ 주차장(7석)
지상2층 (368.71)	◦ 열람실, 유아열람실, 서고, 점자도서제작실, 사무실
지상3층 (367.69)	◦ 송암박두성기념관, 열람실, 녹음실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7.1.b)

| 그림 2-7 | 송암점자도서관 시설현황



출처: 송암점자박물관 페이스북(2019.7.10. 검색)

송암점자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제작 및 보급하고 대면낭독, 자료전환 서비스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도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행사, 방학프로그램, 특수도서 전시 및 체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비장애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력자원봉사 활동과 녹음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송암점자도서관의 주요사업 내용은 <표 2-49>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2-49 | 송암점자도서관 주요사업

구분	내용
내관 대출 및 열람	◦ 1인5권(아동도서 1인8권), 14일 이내 대출(점자도서 / 녹음도서-테이프, CD / 목자도서)
이동도서 및 책나래 서비스	◦ 대상: 시각장애인 회원 ◦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방식으로 대출서비스
대체자료 배포	◦ 기증도서 중 복본 및 점자도서 제작을 통한 배포
도서 제작 및 보급	◦ 점자도서 제작 - 점자도서, 통합(라벨)도서 제작 ◦ 전자도서 제작 - 텍스트 데이지 도서, BBF전자도서 제작 ◦ 전자음성도서 제작 - 텍스트파일을 활용한 전자음성 cd도서 제작 ◦ 녹음도서 제작 - 녹음도서(tape, cd)제작, 자료전환서비스, 녹음서비스
메일링서비스	◦ 저작권 보호형 파일과 MP3 파일 보급
특수도서전시 및 체험	◦ 특수도서전시 및 점자체험활동 진행(수시접수) ◦ 대상: 관내유치원, 초등학교, 지역도서관 등
문화행사	◦ 낭독회, 저자강연회, 화면해설영화, 함께 듣는 북카페 등
방학 중 프로그램	◦ 연 2회 지역 아동대상 독후활동
대면낭독 서비스	◦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연계 및 대면낭독실 제공
정보검색 서비스	◦ 시각장애인의 인터넷 검색 지원
점역서비스	◦ 대상: 공공기관/유관기관/시각장애인
입력 자원봉사활동	◦ 고등학생 이상, 도서 입력 및 교정
녹음 자원봉사활동	◦ 주1회 2시간, 1년 이상 정기녹음 봉사활동

출처: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2019.7.10. 검색)

송암박두성기념관에서는 송암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점자 교육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표 2-50 송암박두성기념관 주요사업

구분	내용
기념관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암박두성기념관 전시내용 설명 및 해설, 관련 영상물 시청 ◦ 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각 및 저시력 체험, 흰자팡이 보행체험, 시각장애인 스포츠체험, 한글 점자체험, 점자이름찾기
박두성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두성의 업적 고찰 및 한글점자 우수성 홍보
박두성 유품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두성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기념관 관람의 편의성 제공
송암 자원봉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방학기간 중 청소년 대상으로 박두성 및 한글점자 교육 진행, 봉사활동 연계
박두성 할아버지를 소개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방문하여 한글점자 및 송암박두성 선생에 대한 영상 시청, 교육
송암장학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내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출처: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2019.7.10. 검색)

③ 기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공공 문화시설 및 민간시설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장애성인야학(5개소), 장애인평생교육(6개소) 분야에서 총 11개 단체가 사업을 수행했으며, 연간 2,00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2개 분야에서 14

개 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간 수혜인원은 2,023명으로 예측된다.

이 중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송암점자도서관) 5개를 제외하면, 2019년도 사업 추진기관은 장애성인야학 5개, 장애인평생교육 4개로 총 9개 기관이 있다. 대부분 미술활동 및 공예, 악기연주 등 장애인들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표 2-51 인천시 관련 기타시설 현황(2019년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분야	수행단체명	주요사업	연간 수혜인원	지원 예산
계			2,023	109
장애성인야학 (5개소)	민들레장애인야학	◦ 미술, 통합예술	132	10
	바래미야학	◦ 미디어 창작 교실, 요리, 음악, 미술&이야기 창작 교실	208	13
	작은자야학교	◦ 미술	80	5
	인천밀알야학	◦ 생활체조, 난타, 컴퓨터,푸드아트,미술 심리치료,노래교실	870	12
	참빛드림학교	◦ 사물난타,미술,농구,관악악기,바리스타	389	13
장애인평생교육 (9개소)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 찾아가는 나눔공예교실	40	7
	인천광역시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 미술로 쉬어가는 하루, 춤과 하나 되는 세상, 노래로 배우는 즐거운 세상	40	6
	노들담복지관	◦ 체력단련교실	14	2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 플라워아트교실	15	4
	송암점자도서관	◦ 매듭공예	15	1
	계양도서관	◦ 책이 영화와 만났을 때, 책이 음악과 만났을 때	28	4
	꿈꾸는거북이	◦ 자전거 교실, 풋살 교실, 킥볼 교실, 달리기 교실, 점핑 다이어트 교실	70	11
	아미고엠센터	◦ 푸드아트테라피, 힐링댄스테라피, 힐링뮤직스토리, 천상의목소리	60	11
	인천장애인 능력개발협회	◦ 양말목공예 통한 심미감각 깨우기	62	10

출처: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2019.7.1.)

3.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1)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현황

(1) 전국 장애인 총 현황

2019년 5월 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2,589,814명이며, 지역별로는 경기(551,781명, 21.3%) > 서울(393,214명, 15.2%) > 경남(186,769명, 7.2%) > 경북(178,940명, 6.9%) > 부산(174,269명, 6.7%) > 인천(142,994명, 5.5%)·전남(141,942명 5.5%) > 충남(133,048명, 5.1%) 순이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6번째로 장애인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2019.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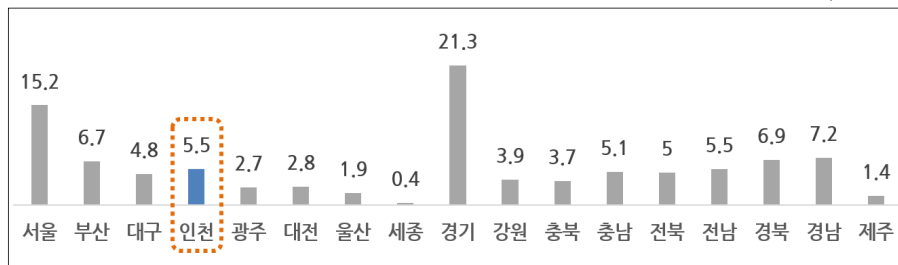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수	393,214	174,269	124,210	142,994	69,936	73,068	50,683	11,649	551,781
비율	15.2	6.7	4.8	5.5	2.7	2.8	1.9	0.4	21.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수	100,941	97,346	133,048	131,944	141,942	178,940	186,769	36,080	2,589,814
비율	3.9	3.7	5.1	5.0	5.5	6.9	7.2	1.4	1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그림 2-8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2019.5. 기준)

(단위: %)



(2) 인천시 장애인 현황

2019년 5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142,994명으로 전체인구의 4.83%(인천광역시 인구 총 2,957,179명, 외국인 미포함)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85,567명(2.89%), 여성이 57,427명(1.94%)으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0.95%가량 더 많다.

표 2-53|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성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명, %)

등록장애인 수			인천시 인구수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합계	
85,567 (2.89)	57,427 (1.94)	142,994 (4.83)	2,957,179 (1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장애 등급별로는 1~3 장애인이 52,696명(36.9%)이며, 4~6급 장애인은 90,298명(63.1%)으로 4~6급 장애인 수가 26.2%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⁶⁾은 29,833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54|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등급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명,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0,695 (7.5)	17,808 (12.5)	24,193 (16.9)	21,987 (15.4)	32,009 (22.4)	36,302 (25.4)	142,994 (1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장애가 126,511명, 정신장애가 16,483명으로 신체장애인이 전체의 88.5%를 차지한다. 세부 유형별로는 지체장애(69,795명, 48.8%) > 청각·언어장애(21,420명, 14.1%) > 시각장애

6)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를 말함

(13,795명, 9.6%) > 뇌병변장애(13,208명, 9.2%) > 지적장애(10,292명, 7.2%) > 신장장애(5,403명, 3.8%) > 정신장애(4,742명, 3.3%) > 언어장애(1,334명, 0.9%) > 장루·요루장애(829명, 0.6%) > 간장애(640명, 0.5%) > 호흡기장애(633명, 0.4%) > 뇌전증장애(402명, 0.3%) > 심장장애(242명, 0.2%) > 안면장애(144명, 0.1%)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5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2019.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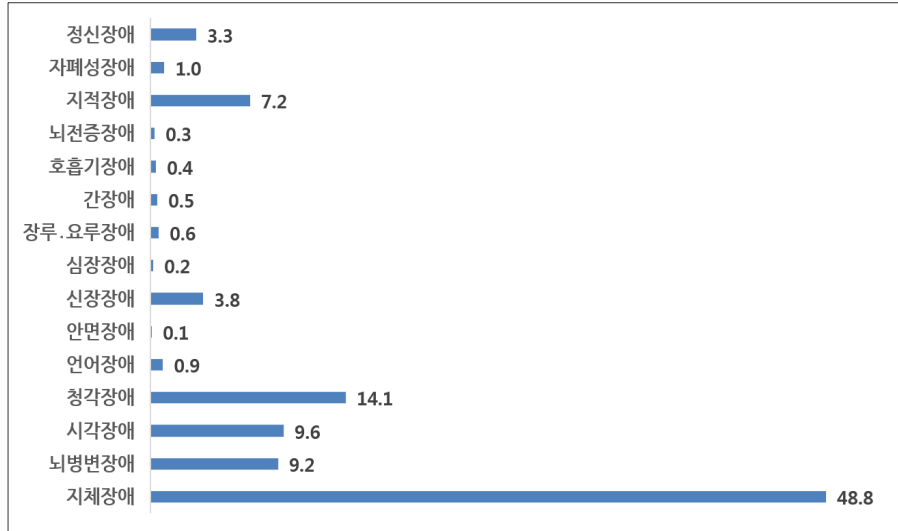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유형	등록장애인 수
합계			142,994(100)
신체장애 (126,511)	외부 신체장애 (118,362)	지체장애	69,795(48.8)
		뇌병변장애	13,208(9.2)
		시각장애	13,795(9.6)
		청각장애	20,086(14.1)
		언어장애	1,334(0.9)
		안면장애	144(0.1)
	내부 신체장애 (8,149)	신장장애	5,403(3.8)
		심장장애	242(0.2)
		장루·요루장애	829(0.6)
		간장애	640(0.5)
		호흡기장애	633(0.4)
		뇌전증장애	402(0.3)
정신장애 (16,483)	발달장애 (11,741)	지적장애	10,292(7.2)
		자폐성장애	1,449(1.0)
	정신장애	정신장애	4,742(3.3)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 그림 2-9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가 829명(0.6%), 7~18세 청소년이 3,866명(2.7%), 19~64세 성인이 76,499명(53.5%), 65세 이상 노인이 61,800명(43.2%)이다.

| 표 2-56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연령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명, %)

영유아 (6세 이하)	청소년 (7~18세)	성인 (19~64세)	노인 (65세이상)	합계
829 (0.6)	3,866 (2.7)	76,499 (53.5)	61,800 (43.2)	142,994 (1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보장자격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8,504명(19.9%), 차상위계층이 7,225명(5.1%), 일반이 107,265명(75.0%)으로 장애인 중 저소득층은 전체의 25%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7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보장자격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합계
28,504 (19.9)	7,225 (5.1)	107,265 (75.0)	142,994 (10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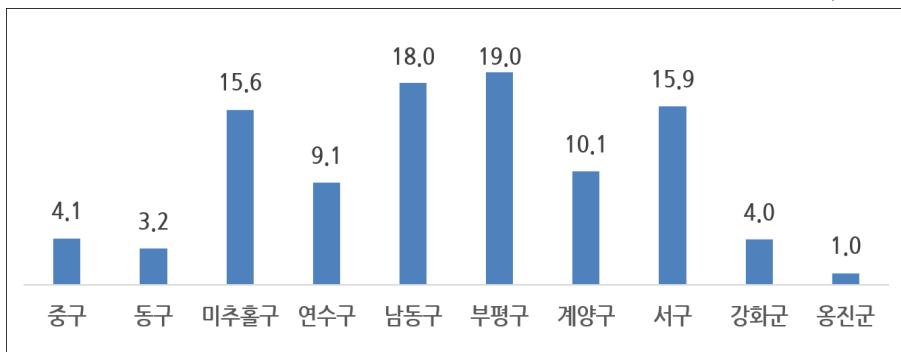
군·구별로는 부평구(27,156명, 19.0%) > 남동구(25,791명, 18.0%) > 서구(22,759명, 15.9%) > 미추홀구(22,259명, 15.6%) > 계양구(14,425명, 10.1%) > 연수구(12,984명, 9.1%) > 중구(5,810명, 4.1%) > 강화군(5,716명, 4.0%) > 동구(4,584명, 3.2%) > 옹진군(1,510명, 1.0%) 순이다.

표 2-58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군·구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명,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합계
5,810 (4.1)	4,584 (3.2)	22,259 (15.6)	12,984 (9.1)	25,791 (18.0)	142,994 (10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7,156 (19.0)	14,425 (10.1)	22,759 (15.9)	5,716 (4.0)	1,510 (1.0)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9.6.9.)

그림 2-10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군·구별 현황(2019.5. 기준) (단위: %)



(3) 인천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인천시에 소재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는 2018년 11월 기준 38개이며 총 회원수는 19,738명이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 2018.11.16.). 지역별로는 중구 2개, 동구 1개, 미추홀구 3개, 남동구 19개, 부평구 4개, 계양구 5개, 서구 4개로 남동구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는 작은자 야간학교, 민들레장애인야학, 인천장애인 능력개발문화센터 등이 있다.

표 2-59 | 인천광역시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18.11.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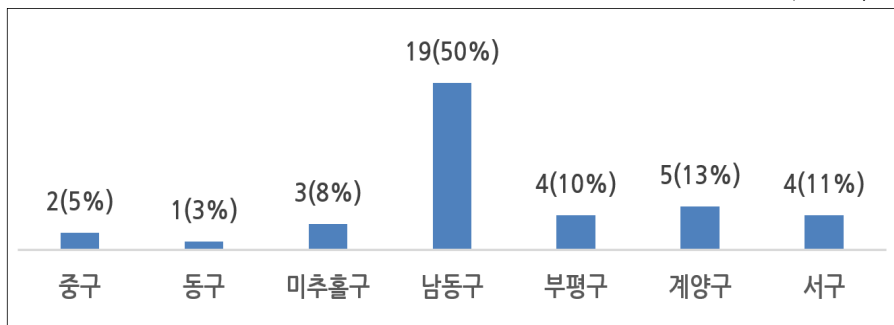
번호	단체명칭	회원수	소재지
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밝은미소	120	중구
2	NGO기업장애인협회	120	
3	동구 굿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2	동구
4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	104	미추홀구
5	사단법인 나눔회	100	
6	사)함께걷는 길벗회	350	
7	(사)한국공동리봉사회 인천광역시지부	110	남동구
8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인천협회	101	
9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천지부	105	
10	작은자 야간학교	190	
11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0	
12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광역시지부	1,834	
13	(사)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1,729	
14	인천광역시장애인한마음복지협의회	150	
15	다함께장애인협회	111	
16	위더스(with-us)	145	
17	사)한국장애인부모회인천광역시지회	1,229	
18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27	

번호	단체명칭	회원수	소재지
19	사)인천산업재해인협회	116	남동구
20	매스미디어협회	130	
21	인천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2,700	
22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893	
23	(사)인천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500	남동구
24	사)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4,411	
25	인천여성장애인연대	277	
26	부평서무지개봉사회	118	부평구
27	솔&스토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4	
28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4	
29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부	195	
30	인천교통장애인안전협회	112	계양구
31	안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19	
32	민들레장애인야학	103	
33	경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50	
34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136	서구
35	인천가족사랑	107	
36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	111	
37	큰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42	
38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3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8.11.16.)

▶ 그림 2-11 |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애인단체 현황(2018.11. 기준)

(단위: 개, %)



(4) 인천시 장애인예술인(단체) 현황

인천시의 장애인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가 없어 인천시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거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예술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먼저, 인천시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예술단체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단체 목록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활동 중인 장애인예술단체는 5개, 장애인예술인은 7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는 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0 인천광역시 장애인예술인(단체) 현황(2019.4.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단체명칭	소재지	분야
장애인 예술단체 (5)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중구	다원예술
	발달장애인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계양구	음악(기악)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인천광역시협회	남동구	장애인 문화단체 교류
	민달팽이 사회적협동조합	남동구	시각예술
	starseed	-	음악
장애인 예술가 (7)	김경숙	계양구	문학(소설)
	꿈드래사랑(나유정)	연수구	예술일반
	문*훈	미추홀구	음악(팝페라)
	우*배	-	음악(작곡발표)
	차*운	서구	음악(작곡발표)
	최*선	미추홀구	음악
	최*림	-	시각예술(서양화)
장애인 동호회 (4)	꿈너머꿈	계양구	음악(기악)
	잠상	동구	시각예술(사진)
	종이로 만든 나의 꿈	부평구	예술일반(생활예술)
	큰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	음악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2019.4.8.);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2019.4.8.) 참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인천지역 장애인예술인은 25명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예술인 중 5.56%의 비중을 차지한다(2019.6. 기준)⁷⁾. 지역별로 서울 165명(36.67%) > 경기 108명(24.00%) > 경남 28명(6.22%) > 인천 25명(5.56%) > 대구 19명(4.22%) 등의 순이다.

| 표 2-6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전국 장애인예술인 현황(2019.6. 기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9	165	14	19	25	5	17	8	-	108
비율	36.67	3.11	4.22	5.56	1.11	3.78	1.78	-	24.0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9	8	4	14	16	4	9	28	6	450
비율	1.78	0.89	3.11	3.55	0.89	2.00	6.22	1.33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2019.6.27.)

인천시 장애인예술인의 44%는 음악 분야 예술인(11명)이며, 미술 분야 4명(16.0%) > 문학과 연극 분야가 각각 3명(12.0%) 순이다.

| 표 2-62 | 부문별 인천시 장애인예술인 총 현황(2019.6. 기준)

(단위: 명, %)

구분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연극	영화	연예	복수	합계
인원	3	4	1	11	3	1	1	1	25
비율	12.0	16.0	4.0	44.0	12.0	4.0	4.0	4.0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2019.6.27.)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장애인예술인 등록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장애인예술인 수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장애인예술인의 수임

연령별, 20대와 40대가 각각 6명(24.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5명(20.0%), 60대 3명(12.0%) 순으로 대체로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분포한다.

| 표 2-63 | 연령별 인천시 장애예술인 총 현황(2019.6. 기준)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	6	5	6	5	3	25
비율	24.0	20.0	24.0	20.0	12.0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2019.6.27.)

군·구별, 남동구와 서구에 각각 6명(24.0%), 부평구와 계양구에 각각 4명(16.0%) 등의 순이다.

| 표 2-64 | 군·구별 인천시 장애예술인 총 현황(2019.6. 기준)

(단위: 명, %)

구분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합계
인원	1	2	1	6	4	4	6	1	25
비율	4.0	8.0	4.0	24.0	16.0	16.0	24.0	4.0	1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2019.6.27.)

인천시 장애예술인 현황을 종합하면, 장애인예술단체 5개, 장애인예술가 7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 4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예술인 25명이 파악되었다. 다만, 부문별 예술인·단체가 중복되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미등록 장애예술인과 단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1) 장애인 일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⁸⁾

① 조사개요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에 근거한 조사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25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했으며, 이 중 총 36,200가구의 6,549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원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가구조사 및 장애판별조사 외에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외출정도,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점, 이용하는 교통수단, 문화·여가 활동 영역별 참여빈도, 선거 투표여부, 투표하지 않는 이유 등)과 생활만족도,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여건 상 인천시 장애인을 상대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 연구내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분야 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 조사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현황에 대한 보편적인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8) 해당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발췌 및 정리함.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 참고

② 조사결과

■ 사회활동(외출, 이동)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혼자서 외출할 수 있습니까’ 물음에 대해 84.4%가 ‘혼자서 외출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15.6%의 장애인은 ‘혼자서 외출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15.6%의 장애인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이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 혼자 외출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자폐성장애(71.3%) > 뇌병변장애(42.7%) > 지적장애(34.8%) > 호흡기장애(23.1%)의 경우 혼자서 외출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외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이 70.1%, 주 1~3회 외출이 19.5%, 월 1~3회 외출이 5.9%, 그리고 전혀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거의 매일 혹은 주 1~3회 이상 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지난 1개월간 전혀 외출하지 않은 유형은 뇌병변장애인(17.8%) > 정신장애인(11.8%) > 호흡기장애인(8.5%) 등 순으로 높았다.

외출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통근·통학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책·운동(29.9%) > 병원 진료(12.1%) > 친척·친구·이웃 방문(8.7%) > 지역사회시설 이용/행사참여(6.5%)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출의 주요 목적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45.0%)와 호흡기장애(33.6%)는 병원진료 목적으로 외출하는 빈도가 높았다. 통근·통학 목적은 지체장애(43.0%), 언어장애(54.0%), 시각장애(41.4%), 자폐성장애(69.7%), 안면장애(67.0%)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목적의 경우, 심장장애(20.8%) > 지적장애(10.8%) > 정신장애(10.7%) > 자폐성장애(10.3%) > 청각장애(9.4%)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46.6%가 집 밖 활동 시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3.1%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도 53.4%로 나타났다.

집 밖 활동 시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장애 > 뇌병변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26.9%,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11.0%,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33.5%) > 일반버스(26.6%) > 지하철·전철(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반택시(6.8%)와 자전거·오토바이(3.0%)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보의 비중도 12.0%여서 생활권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장애인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문화활동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유형별로 TV시청(96.6%) > 사교모임(51.4%) > 휴식(44.3%) > 가족 관련 일(외식 등)(34.3%) > 컴퓨터·인터넷(30.5%) > 사회봉사·종교활동(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문화 및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감상·관람(6.4%), 승부놀이(4.2%), 문화예술참여(3.5%), 자기계발활동(6.2%), 여행(6.8%), 해외여행(5.5%) 등의 활동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49.3%였으며,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0.7%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과

만족하는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장애유형별 뇌병변장애 > 호흡기장애 > 뇌전증장애 > 정신장애 > 신장장애 > 안면장애의 순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4%가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해서, 28.0%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시간이 부족하여(10.6%),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9.9%), 교통혼잡 및 이용교통수단 불편(8.5%)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문화·여가에 대한 정보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해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표 2-65 | 문화 및 여가활동의 주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재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전체
경제부담	33.6	15.5	31.3	24.4	37.0	22.8	5.6	21.5	31.9	0.0	35.3	21.0	48.5	33.2	33.7	28.0
시간부족	15.6	2.1	14.6	8.8	3.5	5.2	0.0	5.4	2.2	0.0	0.0	7.8	3.4	2.4	9.3	10.6
이동불편	10.2	15.2	7.4	2.9	2.2	1.1	0.0	2.5	4.7	0.0	2.8	3.0	0.0	8.7	0.0	8.5
도우미부재	1.3	3.0	4.3	0.4	8.5	13.5	8.8	7.6	2.7	0.0	0.0	0.0	0.0	0.0	0.0	3.1
여가시설부족	1.3	0.9	3.7	1.7	0.0	1.1	13.1	1.7	0.0	0.0	0.0	0.0	0.0	0.6	1.3	1.5
시설내 편의시설부족	0.8	1.1	1.6	0.4	0.0	1.4	0.0	0.0	0.0	0.0	0.0	0.0	11.7	0.0	0.0	0.9
정보 및 프로그램부족	1.4	2.1	3.1	2.3	1.3	11.7	22.1	5.5	0.3	0.0	0.0	0.0	21.4	10.3	3.7	2.8
취미부재	9.3	4.2	13.2	11.0	12.5	16.1	4.1	25.1	2.2	18.2	0.0	5.5	0.0	3.9	12.1	9.9
건강·체력부족	25.7	51.9	19.0	29.5	23.6	6.7	0.0	22.6	54.1	81.8	62.0	62.7	3.1	34.2	40.0	29.4
의사소통 어려움	0.5	3.7	1.5	18.5	11.4	20.5	46.3	8.2	1.5	0.0	0.0	0.0	3.0	0.0	0.0	5.1
기타	0.2	0.2	0.4	0.0	0.0	0.0	0.0	0.0	0.5	0.0	0.0	0.0	8.8	6.6	0.0	0.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한편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97.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용의 경우, 전혀 관람한 적이 없는 비율이 99.8%에 달했고, 서양음악은 98.9%, 전통예술은 98.5%, 문학과 연극은 각각 98.1%가 전혀 관람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전체 장애인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장애인들만이 영화관람 외의 문화예술 관람활동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에는 76.0%가 전혀 관람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연 1~3회 관람이 13.5%, 4~6회 관람이 6.1%, 그리고 7회 이상이 4.4%로 나타나 최소 1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비율이 대략 24% 정도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인의 영화관람 비율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는 주로 TV·라디오(35.2%) > 인터넷상의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30.1%) > 주변사람(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 안내문(4.8%), 공공단체 교육기관(4.7%), 동호인 모임(1.0%) 등을 통해 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예술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 방식에 큰 차이는 없으나, 지체, 시청각,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정보획득 방식이 다른 점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행사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 부담(36.5%) > 시간이 나지 않는다(18.4%) >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10.4%) >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10.0%) 등의 순이며, 그 외 편의시설 불편(6.2%) >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5.0%) > 관련 정보 부족(4.6%) > 교통이 불편하다(3.9%) > (화면해설 서비스 등) 편의지원 부족(3.9%)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편의지원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과 접근성,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이동의 문제나 물리적인 시설의 편의 제공, 그리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

표 2-66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재발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전체
비용문제	36.8	38.1	39.8	26.9	46.2	30.2	24.7	42.3	55.0	23.1	23.2	30.1	37.5	50.0	52.1	36.5
시간여유	23.9	6.2	20.6	19.9	28.3	9.2	6.0	7.7	12.7	0.0	0.0	5.7	34.0	12.7	10.5	18.4
프로그램 부재	10.9	4.3	7.2	7.0	0.0	14.3	17.1	10.0	9.7	39.7	8.9	8.0	0.0	0.8	19.6	10.0
교통불편	4.0	7.7	2.8	3.2	0.0	2.8	0.0	11.3	0.0	13.6	0.0	0.6	0.0	2.9	0.0	3.9
편의시설 불편	6.0	19.1	4.4	4.1	6.7	3.1	7.9	0.0	7.7	0.0	35.2	9.7	0.0	12.8	0.0	6.2
편의지원 부족	1.2	2.8	6.4	21.4	0.0	2.5	12.4	4.4	0.0	0.0	0.0	0.0	0.0	0.0	0.0	3.9
관련정보 부족	5.4	2.2	5.4	2.1	1.5	4.5	6.9	0.0	1.8	8.7	20.5	22.7	20.2	6.6	0.0	4.6
동반인 부재	2.3	5.0	3.6	3.6	5.5	17.5	12.0	5.1	3.2	0.0	12.1	0.0	8.3	0.0	16.7	5.0
인접시설 부재	8.5	13.6	9.9	10.6	11.9	12.9	13.0	19.3	10.0	0.0	0.0	19.1	0.0	14.3	0.0	10.4
기타	0.9	1.0	0.0	1.1	0.0	3.0	0.0	0.0	0.0	14.8	0.0	4.0	0.0	0.0	1.2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의 적절성(26.6%) > 내용 및 수준(22.9%) > 접근성(20.9%) > 교통편의성(10.8%) > 편의시설 구비여부(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참가자의 유명도(3.9%), 주변 네티즌 의견(3.0%) 등을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예술인: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⁹⁾

① 조사개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통해 국내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예술 활동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 416명, 장애인예술 활동가 584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¹⁰⁾ 해당 연구는 설문조사 후 예술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심층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수집된 모집단 중 연령·예술분야·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시각/지체/뇌병변장애예술인 2개 그룹, 청각/언어장애예술인 1개 그룹, 지적/자폐성장애예술인 2개 그룹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 2-67 |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9년 3월 25일 ~ 5월 3일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조사대상	◦ 장애예술인 416명, 장애인예술 활동가 584명
FGI	조사기간	◦ 2019년 5월 2일 ~ 5월 3일
	자료수집도구	◦ 인터뷰 가이드라인
	조사방법	◦ 표적 집단 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대상	◦ 장애예술인 중 3년 이상 예술활동을 한 자 ◦ 시각/지체/뇌병변장애예술인, 청각/언어장애예술인, 지적/자폐성장애예술인 총 5개 그룹 참여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9) 해당 조사결과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를 요약 발췌함

10) 현재까지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예술 활동가에 대한 모집단이 없으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장애인 등록명부를 활용할 수 없음. 장애인 등록명부를 활용하더라도 그중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장애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등록된 장애예술인 명부를 활용함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개인의 예술활동, 예술 창작여건, 단체 및 작품/교류활동, 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및 정책 인식, 문화향유 실태 등으로 구분된다. FGI는 장애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장애인 예술지원 정책, 장애예술인 교육,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 등의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장애인 일반의 문화향유 실태 외에 장애예술가 및 활동가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해당 조사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실제 예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대상 설문 조사결과와 FGI 결과 중, 연구결과 도출에 참고할만한 문항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발췌·정리했음을 밝힌다.

단, 앞서 살펴본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같이 지역적 구분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사결과를 통해 인천시 장애예술인의 활동실태를 구분해낼 수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임과 동시에 앞으로 인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대상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② 실태조사 결과

■ 예술활동 현황

장애예술인 중 ‘서양음악’(38.3%) 분야 예술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학’ 분야(18.0%) > ‘미술’ 분야(17.2%)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지체 장애예술인은 문학(32.7%) 및 서양음악(24.3%) 분야 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시각 장애예술인의 경우 과반이 서양음악(53.8%)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은 평균 7.6년이며, 10년 이상 38.8%, 5년~10년 미만 22.0%로 비교적 활동경력이 긴 예술인 비율이 높았다.

■ 개인의 예술활동

장애예술인의 68.5%가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즉,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예술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향후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예술활동의 중심형태로는 ‘창작 및 실연’(90.9%)이 대부분이며, 그다음으로는 ‘교육’(7.3%)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창작 및 실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강사’(39.0%) > ‘마을예술강사’(21.4%) > ‘초·중등 교사/강사’(19.6%) 순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예술 창작여건(공간)

장애예술인은 대부분 ‘예술활동을 위한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5.4%).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택 내 작업공간’ 보유자는 12.5%, ‘자택 외 작업공간’ 보유자는 22.1%로 조사되었다.

분야별로 문학 분야의 경우 자택 내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44.5%로 비교적 작업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공예 분야의 경우 작업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89.9%로 나타나 분야별 편차를 보였다.

작업공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지원공간(63.6%)이었으며, 자가(소유 및 임대)로 소유한 경우는 36.4%에 불과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독립된 작업공간이 아닌 공유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술활동 시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는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연습공간’이라고 답했으며(53.2%), 다음으로 ‘창작공간’(19.8%), ‘발표공간’(15.

3%) 순이었다. 연습공간과 창작공간은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평소 예술활동을 위한 발표공간을 이용할 때에도 해당 발표공간의 ‘공간구조/형태가 예술활동에 부적합’(26.4%)하며, ‘장애인 관련 시설이 미비’(21.8%)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장애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술활동에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인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예술인의 경우 40.6%가, 지적장애예술인의 26.8%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점이 가장 문제(1순위)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현행법과 장애인 시설 관련 매뉴얼에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이나 지적/발달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이 미흡하다는 점은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무장애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신체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각장애인이나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나 설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최도인, 2019.8.9.).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온전히 개인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개별 작업공간을 갖지 못하였으며, 연습공간과 창작공간, 발표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창작공간 및 연습공간 등의 공간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공간은 장애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예술 창작여건(활동기회)

장애예술인의 40.6%(‘부족한 편이다’ 31.9%, ‘매우 부족하다’ 8.7%)가 예술활동 관련 발표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과반의 의견은 아

니지만 기회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20.0%인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장애인 예술인들은 발표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창작·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연습 공간 확보’(92.7%)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여 앞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결과와도 일치했다. 설문에서 제시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연습공간 외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0%, ‘장애예술인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5.4%에 달했다. 즉, 장애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애예술을 널리 알리고 제도적으로나마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장애예술인 쿼터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3%로 조사되어 기존 예술지원사업 내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확보하도록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단체활동

장애예술인은 대부분 ‘예술활동 관련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68.4%)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협업, 공동발표 등 활동 교류’(41.9%), ‘활동 장르에 대한 정보 교류’(34.2%) 등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 등이 주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입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57.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21.3%), ‘적합한 단체가 없어서’(18.4%) 등의 순이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경우 정확한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각종 지원사업에 소외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천지역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 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동호회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활동 보조도구 및 보조인

장애예술인 대다수가 창작활동을 위한 보조도구는 ‘필요하지 않다’(76.7%)라고 응답한 반면, 보조인은 ‘예술 창작활동 보조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26.3%,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18.6%로 조사되었다. 예술창작을 위한 직접적 도움 외에도 ‘이동, 신체 움직임 등에 보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로 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총 65.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활동보조인(art worker)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여전히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방귀희, 2015.4.16.). 따라서 인천 장애예술인이 행동의 제약 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문 예술교육 경험 및 비용부담

장애예술인은 ‘그룹지도’(42.6%)를 통해 전문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기타(33.9%), 개인레슨(23.0%), 예술전문학교(9.5%), 사설학원(8.8%) 순이다. 전문 예술교육을 받을 때 비용은 예술전문학교, 개인레슨, 사설학원의 경우 대체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답하였으며, 그룹지도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부담’(67.3%)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문 예술교육을 받는 데에 67.0%의 장애예술인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 유형별로 자폐성 장애예술인(87.8%), 주 활동 분야별로 서양음악(77.9%) 장애예술인에게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애예술인이 전문 예술교육을 받을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전문 교육 인력의 부족’(40.9%)이 가장 많으며, ‘교육기관의 부재’(24.4%), ‘시설 및 기자재 부족’(18.2%), 정보의 부족(12.8%) 등의 순이다. 대체로 인력·시설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향후 장애예술인 대상 전문 예술교육 인력양성, 예술교육공간 및 전문장비 확충 등의 기반 마련 사업이 필요하다.

■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수혜경험

장애예술인의 62.0%는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여 여전히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지원사업에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시각장애예술인(44.7%) 및 청각/언어장애예술인(42.9%)은 ‘공공지원을 받은’ 경험이 비교적 많았으나, 뇌병변장애예술인(86.6%) 및 지체장애예술인(70.0%)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79.0%가 ‘창작 활동 지원(기금 등)’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창작공간 지원’(30.1%), ‘창작 관련 인력 지원’(27.9%), ‘교육/연수 등 역량강화 지원’(20.1%)의 순이다.

■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인식(중요도, 만족도)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대부분 제시된 모든 정책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나, 특히 ‘장애인 예술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97.3%), ‘장애인 예술활동과 관련된 시설 확충 및 정비’(93.8%), ‘예술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91.5%), ‘창작발표의 기회 확대’(89.2%)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제시된 정책의 현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활동 결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 강화’(만족하지 않는다 47.7%),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기회 확대’(만족하지 않는다 41.5%), ‘장애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재교육) 증대’(만족하지 않는다 40.4%) 순으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및 공간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생계 및 자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송은일, 2019.8.9.).

■ 창작 및 발표활동 시 어려움

창작 및 발표 활동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발표/전시/공연시설 부족’(29.9%), ‘연습/창작공간 부족’(21.6%), ‘장애예술인 시설/장비 부족’(13.7%) 등을 꼽았다. 즉,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향유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9.1%, ‘지역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8%로 뒤를 이어, 공간 확충과 더불어 장애예술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창작 기금/수혜자 확대’(66.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역량강화 교육/재교육’(12.7%), ‘프로모션 지원’(7.2%), ‘지원사업 관련 자문(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FGI 조사결과

■ 장애인 전반에 관한 사항

장애예술인 활동 전반에 대해 참여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불충분’, ‘비장애 예술과의 감성 차이로 인한 공감 부족’, ‘이동의 제한’,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먼저 ‘경제적 부담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불충분’과 관련하여 장애예술인들은 예술활동에 필요한 장비, 재료 구입 및 교육비, 공간대여비 등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재료비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 전문보조인력, 보조도구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이나 장애예술 향유층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으로 작품성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예술과의 감성 차이로 인한 공감 부족’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경험에서 비롯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대중이 이해하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시/청각적 경험을 토대로 작품활동을 하며,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이해한 외부세계를 작품에 반영하게 된다. 이런 활동들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상호간 경험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동의 제한 및 소통의 어려움’은 기본적인 지원 및 시설이 미비하여 겪는 어려움이다. 장애예술인들이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동지원을 받기 어렵고 공간 내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 등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상에게 온전히 전하기 어려워 예술활동과 관련한 심도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창작 의도 등을 비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장애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 장애예술에 국한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술협업 시 ‘협업 당사자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효과’라고 답했다.

먼저 참여자들은 ‘예술활동이 장애예술에 국한되지 않기’를 원했다. 즉, ‘장애예술’이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정형화된 주제, 내용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술활동으로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비장애예술인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예술인 및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업 활동 시 ‘협업 당사자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효과’라고 답했다. 협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 실제 의도와 다른 방향의 결과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동등한 예술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과의 협업을 불편해하는 장애예술인이 많다고 말한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의 협업은 예술 분야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함께 높일 수 있으며, 서로의 예술적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장애인예술 지원정책

국내 장애인예술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장애예술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 제한과 절차적 복잡성’에 대해 지적하며, ‘매개자 필요성’과 ‘발달장애예술인 자립,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예술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며 특히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답했다. 특히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우며, 정보검색에 익숙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장애예술인이 활동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정산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원사업 참가 자체를 포기하는 예술인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일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상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반면, 장애인 기금의 경우 정산절차가 복잡한 편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장애예술인들은 신체적 활동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경우 활동 도우미나 수어통역사 등 ‘매개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매개자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작업 도우미, 디렉터, 큐레이터, 수어통역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각 장애 유형과 활동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매개자 양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예술인들은 특히 예술적 기량이 있더라도 직업으로 연계가 어렵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강사로 선정되더라도 지속성이 낮으며, 인력 정원이 적고 나이 제한이 있어 많은 장애예술인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므로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활동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의 기회 확대와 함께 발달장애예술인 대상 자립·교육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장애예술인 교육

장애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예술교육 경험과 만족도에 관하여 ‘기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대상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프로그램이거나 재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심화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에도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참여자 대부분이 장애예술인들은 예술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매개자가

필요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제도적·비용적 문제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예술인들은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이 부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할 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이상행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조기에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

문화·예술향유 경험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 접근성 문제’, ‘예술 공연/전시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있으며, ‘공연/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의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기본적인 이동권의 문제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전시 눈높이나 동선, 장애인을 위한 보조도구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 접근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대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규모 예술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 공연/전시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문화예술공간의 시설문제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공연/전시 시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있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 전시장은 직립한 성인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전시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작품 감상하기 어렵고, 배리어프리 시설이지만 경사가 높아 실제 이용하기 힘든 시설인 경우 등이 있다.

시청각적 자극 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영상해설, 음성해설, 점자 설명, 자막 등 ‘공연/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도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보조도구가 설치된 시설이 드물며, 있다 하더라도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표 2-68 | FGI 주요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장애예술인 전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의 경제적 부담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함 ◦ 비장애 예술과의 감성의 차이 존재 ◦ 이동의 제한과 소통의 어려움
포용적 예술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이 장애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비장애 예술인과 동등하게 인정되길 바람 ◦ 협업 당사자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효과
장애인예술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의 제한과 절차적 복잡성 ◦ 매개자(수어통역사, 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한 필요성 ◦ 청년층지원정책, 예술활동 일자리 연계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적 환경조성 ◦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일원화한 정보시스템 필요
장애예술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 필요(균등한 장애예술 교육 기회 제공) ◦ 각 장애유형에 따른 단계별 교육체계 및 로드맵 필요
문화·예술분야 향유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향유 경험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문제 ◦ 예술 공연/전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공연/전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도구의 필요성 ◦ 각 장애유형의 눈높이 맞춘 향유 및 관람 체계 필요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3)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

① 조사개요

인천시 장애인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와 인천시 장애인 시설·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7명으로, 장애인예술단 관계자 2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 4명, 장애인 야학 관계자 1명이 포함되었다.

2019년 10월 21일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외 조사 대상에게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시설, 사업 지원방안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시설, 사업 등이다.

표 2-69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

구분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7명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2명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 4명 - 장애인 야학 관계자 1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 및 서면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시설, 인력, 사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시설, 인력, 사업
수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조사: 2019.10.21. 서면조사: 2019.11.4.~11.8.

② 조사결과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력 지원 방안

수요조사 결과, 인력 측면에서 강사 및 활동보조인의 확충, 문화예술 강사 임금의 현실화, 지역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양성 및 DB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 최소한 두 명 이상의 강사 혹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함에도 현재는 여러 장애인을 강사 한 명이 담당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신체활동이 힘든 지적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조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강사가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예술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기존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문화기획자를 발굴하여 양성 및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인력풀 DB를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표 2-70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인력)

구분	내용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활동보조인 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당 강사 2인 이상 배치 필요 - 현재 장애인 미술교육의 경우, 학생이 5명이든 10명이든 1인의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 지적장애인: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1인이 감당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만들기, 판화, 염색 등 교사의 조력이 좀 더 필요한 수업에서는 교사 1인이 감당하기 어려움 - 뇌병변장애인: 신체를 자유롭게 쓸 수 없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는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만 30분 이상이 걸리며, 수업 도중에 물감을 짜주거나 연필, 색연필을 손에 쥐여줘야 하는 등 모든 것을 교사가 준비해야 하기에 그림을 가르친다는 것보다 활동보조 역할에 가까운 시간일 때가 많음 ◦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는 보조인력 필요 ◦ 전시장 및 공연장 이동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필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가 임금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 2명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 ◦ 장애예술인 고용 및 월 200만원 수준 급여생활자 제도화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한 전문예술인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예술강사 발굴·양성 방안 필요(ex.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파견사업) ◦ 장애인 풀뿌리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양성 지원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양성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인력풀 DB 구축 및 공유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지원방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시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지역 내 장애인 친화시설 확충,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발표공간 조성,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조성, 지역 내 크고 작은 장애인 문화예술 시설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수요가 조사되었다.

먼저,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이 공간적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간이 좁고 방음시설이나 배리어프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설 보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천시 문화시설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공연장 및 전시장을 확충하고 인천시 내 공공문화예술시설 내 배리어프리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간 신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 후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관, 공연장 등이 권역별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기초단위의 기존 장애인 시설(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풀뿌리조직 등)에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거점시설은 창작공간 기능, 장애인 자립 지원 기능, 복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초단위 시설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 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표 2-71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시설)

구분	내용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시설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필요 - 만들레장애인이야학: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상 휠체어를 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한 명은 발로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입으로 그림을 그림. 작은 공간에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공간에 들어오면 움직임이 불편함 - 작은자장애인이야학: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책상을 붙여 놓고 수업을 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시설보강사업 실시(방음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 등)
지역 내 장애인 친화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러리 탐방 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갤러리가 많음 (계단 등) ◦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장애인친화적 공연장 및 전시장 ◦ 장애인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공문화예술시설의 전문시설 구비 필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발표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갤러리 필요 - 각자의 시설에서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갤러리가 갖추어진다면 더욱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발표공간 권역별 설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 거점센터 확보(ex. 인천시사회복지회관) ◦ 문화예술형 장애인자립센터 활성화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소(플랫폼) 설치 - 예술적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예술창작 장소와 판매처 마련 ◦ 문화예술 중심형 힐링센터 조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체육학교 운영(자치구별 빈 교실 활용사업, 생존수영 시설 활용한 건강교실 운영)
지역 내 관련 시설 연계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풀뿌리 조직 등에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조성 지원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방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강사 파견 및 교보재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조례 개정, 지역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등이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가 부족하고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교보재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야외활동이나 거주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직접지원 혹은 간접지원(교보재 및 강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장애 유형에 따라 시설로의 이동이 불편하거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지원사업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유아기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걸친 생애주기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아동 대상으로는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청소년 대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단없는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과 홍보 지원, 바우처 사업과의 연계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지역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및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문화복

지센터를 거점으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이 결합된 커뮤니티 케어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에 자생적으로 움직이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권역 내 거점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대체로 지역자원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음악회나 발달장애인 가요제 프로그램의 점층적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성교육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7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사업)

구분	내용
강사 파견 및 교보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참여자에게 맞는 교보재 부족(예산 부족 포함) ◦ 야외활동을 하고 싶으나 교사 및 교보재 부족 ◦ 거주공간 내 예술활동을 위한 교보재 및 교사 지원 필요 - 많은 장애인이 교육시간 이외도 집이나 시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자 함. 각자의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교보재 및 교사의 지원 필요 ◦ 문화예술 교육사업 기자재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강사 파견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아 문화예술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밖에 나오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필요 ◦ 공연장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의 사업 필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위한 유아·아동 예술체험 프로그램 ◦ 유아·아동의 예술적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및 복지시설 장애인의 정기 공연 및 전시 관람 ◦ 초·중·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 성인기 장애인 문화예술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 끊임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현재 시에서 지원해주는 문화예술예산으로는 20~30차시 정도 운영 가능.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예술과는 단절된 시간을 가짐

구분	내용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사업 홍보 ◦ 문화예술교육 사업 프로그램비 등 지원 ◦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 인력지원과 시설지원이 연계되어있는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 필요 ◦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바우처 사업 전개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와 삶에 필요한 교육이 같이 제공되어야 함
관련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조례 내 바우처 사업 관련 조항 명시 통한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지역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융복합 커뮤니티케어 시설 조성 ◦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커뮤니티아트 지원사업 필요 ◦ 기존의 풀뿌리 조직들이 장애인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사업 필요 -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의 실질적인 방안은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장애인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아트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임. 커뮤니티아트 정착을 위한 인력과 시설 지원 필요 -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의 일상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생활, 문화, 학습의 공동체로서 장애인 자립 생활에 대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있는 장애인 풀뿌리 조직이어야 함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공모사업 확대와 사업추진에 관한 컨설팅, 피드백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관련 지역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 노력 필요 ◦ 민간단체는 소재한 기초지자체와 밀접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천시와 각 군·구 간 협업구조 필요
장애 인식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인식개선 음악회 등
기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가요제 사업(1단계 수도권, 2단계 전국, 3단계 한·중·일·북한) 추진 ◦ 발달장애인 성교육 시행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력 지원방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창작활동을 돕는 전문 예술교육강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예술인은 장애로 인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예술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활동 분야에 맞는 개별 지원인력과 강사 외에 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분야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개인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예술강사와 장애예술인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행정인력에 대한 수요도 있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자립 지원과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시립예술단 운영과 고용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예술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행동 개선 및 사회성 함양을 넘어 직업으로서 전문예술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립예술단 외에 장애예술인을 예술강사 및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기업체 고용연계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표 2-73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인력)

구분	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에 따른 예술교육 전문인력 필요 - 예술강사는 전문적인 예술지식과 더불어 장애에 대한 이해도와 장애인 예술교육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을 두거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장애인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린 창작활동 및 특별한 장애예술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개방된 사고의 전문 예술강사 필요 ◦ 개인별 능력과 장애 정도와 따라 지도해 줄 수 있는 개별지도 강사 필요 ◦ 전체지도 강사 및 보조인력 필요 - 공동작업이나 전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지도 강사 및 보조 인력 필요 ◦ 예술적 기술을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예: 편곡자) 필요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예술적 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인력 필요 ◦ 예술강사 및 장애예술인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와 교류하여 장애인 예술 표현활동을 도울 수 있는 행정인력 필요 ◦ 예술활동 지도교수 등 지원
시립 장애인예술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과 주 4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월 100만원 수준의 인천시립장애 예술단 운영 - 인천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 오디션을 통해 공정하게 실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선발하고 직업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성실성 요구 - 연주자에 한해 타 지역 객원 제도 고려
장애예술인 고용 안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예술강사 및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용 ◦ 장애예술인 거주시설 및 문화예술재단 인력 운영 ◦ 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장 장애인/장애예술인 연계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지원방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공간은 장애인의 이동 및 안전이 확보된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 작업공간 및 공동 작업공간, 연습실,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등이 갖춰져야 한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일반 예술대학과 같이 전문 장애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설치와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및 공연장, 야외무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2-7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시설)

구분	내용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음악 및 미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 장애인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SOC 거점 문화센터 추진 ◦ 장애예술인이 소속감을 갖고 출퇴근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용공간 필요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센터 설립 ◦ 연습실, 작업실 등 예술활동 공간 제공 ◦ 다양한 장애인이 공존하는 문화시설 부족 ◦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내 필요시설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작업과 공동작업을 위한 작업실 및 연습실 - 예술활동 중 휴식과 교류 위한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 장애인 이동 및 안전이 확보된 전용 예술공간 - 대중예술과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장비 설치
장애예술인 교육시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예술대학 강사진이 공유되는 시립 장애인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장애예술가를 양성하는 방안 필요
장애예술인 발표공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공연장 필요 ◦ 상시 전시나 공연을 위한 소규모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전시나 발표는 예술활동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음 ◦ 야외광장 거리공연 시설 확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방안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이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작지원금 지급 및 일자리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장애예술인이 활동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 차원의 활동기회 제공과 함께 일반 예술인 대상 사업 내 장애예술인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향유와 관련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장애예술인 및 일반 장애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교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예술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예술인이 예술계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교류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등 다양한 교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문화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및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지원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운영되는 크고 작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표 2-75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수요조사 결과(사업)

구분	내용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고유의 표현방식과 창작 욕구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숙소에서도 창작할 수 있는 재료·교육지원 ◦ 장애예술인 출연료 지원 통한 생활임금 사업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활동비 지원사업 ◦ 문화예술활동 재료 및 기자재 지원
장애예술인 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장애예술인 대상 일자리 사업과 연계 통한 안정적 교육 및 연습 지원.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순환 체계 필요 - 성인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자립은 어린 장애인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동기유발 가능 - 학령기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사업 필요 ◦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교육에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업종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장애예술인 양성과정 포함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을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제도도 미비 ◦ 장애예술인 공연인프라 구축 사업(인천시 및 기초단체 공연 장애인 쿼터제 10% 운영) ◦ 장애인 공연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 행사나 장애인단체 행사에 장애인 의무공연 비율 확보 ◦ 인천의 전통문화 예술단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장애인을 일정 수 배정 ◦ 정기적인 발표회, 전시회, 공연 등 예술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향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공연 관람 위한 버스임차사업 ◦ 음악적 감성 충전을 위한 공연 관람
장애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장애인과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문화예술활동의 합동 전개 ◦ 장애인들만을 위한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부족 - 노래나 난타 등 단순한 연주가 주를 이루거나, 가정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 미비 ◦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가요제, 영화 제작 등 콘텐츠 지원사업

구분	내용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비장애 예술인 멘토링 지원사업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이 주류예술계와 만나고 경험하는 과정 지원 - 일반 신진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신진 장애예술인과의 교류문화 확산 - 문학적, 예술적 소질이 있는 장애인과 전문예술인 간 교류 확대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장애예술가 육성, 발굴사업 ◦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 콜라보 공연 활성화
장애예술인 심리치료 및 체력단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추세인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심리지원 필요 ◦ 체력단련 프로그램 병행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대상 지원방안 마련 ◦ 기존 문화시설 대상 배리어프리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공간조성비 지원 ◦ 인천시는 예술인 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비 ◦ 장애인예술단체 육성 및 공간지원사업

4. 시사점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여건

▣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 필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문화권 보장과 관련한 「헌법」, 「문화헌장」,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예술인복지법」 등의 법률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생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인천시 역시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2018년에 처음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조례에 따라 실제 추진 가능한 수준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방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 도출과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예술 포함한 문화다양성 정책 마련

인천시는 「인천비전2050」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시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비전2050」에서는 ‘지속가능한 일곱 빛깔 무지개 사회’라는 의제를 통해 전반적인 차별문화를 없애고 이를 행정운영에 반영하며, 2세대, 3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목표로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와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플랜 수립 등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명확한 정책대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천시가 수립한 장기계획에서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인천광역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향후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계획 마련과 이를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인 ‘무지개다리 사업’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세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문화시설 조성 및 기존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필요

현황분석 결과, 인천시 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문화시설이나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상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는 인천시 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4개소가 있다. 이 중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장애인 중간보호시설 37개소, 기타시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송암점자도서관) 7개소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장애인 재활, 돌봄이 주요 목적이므로 문화예술 전용시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인천시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공 전용시설은 송암점자도서관이 유일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 문화시설은 2019년도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애성인야학 5개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개소 등이 파악된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미술활동 및 공예, 악기연주 등 장애인들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인천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장애예술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장애인 문화시설 조성과 함께 기존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 내 장애예술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예술의 거점으로 역할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문화시설에 배리어프리 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현황

■ 인천시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인천시에는 2019년 5월 말 기준, 총 142,994명(전체 인천시 인구의 4.83%)의 등록장애인이 있다. 장애등급별로 1~3급 장애인이 36.9%, 4~6급 장애인 63.1%, 중증장애인은 29,833명이다. 장애 유형별로 신체장애가 88.5%, 정신장애가 11.5%이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19.0%, 남동구 18.0%, 서구 15.9%, 미추홀구 15.6% 등의 순으로 많다.

인천시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애예술단체는 5개 단체가 확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장애예술인은 총 25명이다. 이들의 44%는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 분야 16.0%, 문학과 연극 분야가 각각 12.0%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인천시에는 신체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시설 내 보조시설 및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구축 시에는 장애인 인구가 많은 부평구나 남동구, 서구 등에 우선 조성되어야 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요조사 결과, 장애 유형별로 보이는 특징이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각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 예술활동보다는 기초적 체험활동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 유형 및 예술활동 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의 편차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생활권 중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수립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생활권 중심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대부분이 건강과 체력의 문제, 이동수단의 불편함 및 동반자 부재 등의 이유로 외부활동의 불편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먼 거리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장애 유형별 특성이 매우 상이하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즉,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지원과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나 단체, 시설의 자생력과 전문성을 키워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구축 필요

수요조사 결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열악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여건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지역 인프라부터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인력 지원정책 수요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활동보조인 인력 확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가 임금 현실화,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여건의 개선을 통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설 지원정책 수요

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시설개선 지원, 지역 내 장애인 친화시설 확충(배리어프리 시설 확충 등),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발표공간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렇게 새로 조성될 거점시설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간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필요사업 수요

장애인 대상 원활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강사 및 교보재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장애인의 경우 입이나 발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는 교보재가 지원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동이 어렵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기에 걸쳐 끊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세부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육 후 휴식기가 있으면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문화 경험을 통해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 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및 자립 지원

수요조사 결과,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작여건 개선과 장애인이 예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 지원정책 수요

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강사들이 예술활동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인의 표현상 어려움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인은 비장애인 예술인에 비해 활동기회가 적고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 차원의 장애인 예술인 고용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장애인 예술인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장애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업체 연계고용 지원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 시설 지원정책 수요

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시설 조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용 창작시설에는 배리어프리 시설이 갖춰진 창작공간 및 연습공간,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전시장, 휴게공간 등이 필요하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 및 전문장비를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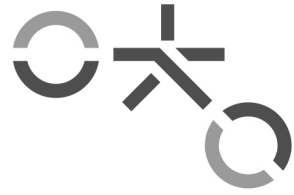
• 필요사업 수요

장애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사업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활동기회 확대, 교류활동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창작지원금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욕구 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성장한 역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예술계와 접촉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계의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술계 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장애예술인 쿼터제 시행을 통해 제도적으로 활동기회를 보장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장애인과 장애 예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예술 인식개선 사업 및 장애-비장애 예술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장애예술 확산 지원사업 등이 있다.



제 3 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례

1. 사례조사 개요
2. 해외사례
3. 국내사례
4. 시사점

제3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례

1. 사례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과 관련한 해외 선진 사례 및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 및 운영 시설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로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와 일본 ‘하나아트센터’의 사례를 분석했다.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시설로 장애인의 문화향유 및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아트센터는 일본 내 장애인문화예술운동인 ‘에이블아트(able arts)’ 운동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문화예술창작공간이자 창작활동 지원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국내사례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가 전용 창작공간 ‘잠실창작스튜디오’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전문 장애인문화예술공간인 ‘에이블아트센터’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이며, 에이블아트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한 장애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전시, 공연, 교육 등 장애예술인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분석구조는 관련 시설의 개요, 운영 주체 및 인력현황, 주요사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해외사례의 경우 국가별 행정체계 및 법적·제도적 여건이 상이하므로 본 장에서는 각 해외사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는 국내사례의 경우 문헌조사와 현장답사 및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다만, 해외사례의 경우 현지답사 방식의 직접조사가 아닌 문헌조사로 진행되어 국내사례와 정리구조 및 정보량에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 표 3-1 | 사례조사 개요

구분	사례명	조사내용
해외	독일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 법적 토대,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일본 하나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 관련 법률 및 정책, 에이블아트 운동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 주요사업
국내	서울 잠실창작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수원 에이블아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요 - 운영형태, 시설개요, 운영목표, 시설현황 ◦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 주요사업

2. 해외사례

1) 독일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

(1) 독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① 법적 토대

독일은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동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AGG)」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장애인평등법」은 2002년 독일기본법 제3조, 제3항, 2문에 명시된 장애인에 특화된 차별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불평등한 장애인의 사회생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이명희, 2019.4.24.).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 근로계약 시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독일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 홈페이지, 2019.9.19. 검색).

「동등대우법」은 2006년 제정되었으며,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은 근로, 사회보장 및 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호, 사회 복지, 교육, 주택문제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동등대우법은 공적 영역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평등법의 보완적 입장에서 직업 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적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독일 연방 차별금지기구, 2019; 이명희, 2019.4.24.).

②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Das Amt des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이하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이자 문화예술정책을 주관하는 독일연방 노동사회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2002년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면서 기관의 역할과 존재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박신의,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 전달 및 홍보, 직업과 학업에 관한 컨설팅 제공, 클라이트하우스 운영 및 문화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한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19. 검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전체 운영예산은 독일연방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지원된다. 노동복지부는 2020년 예산이 약 1,496억 유로(한화 약 197조원)로 독일 연방정부 중 예산 규모가 큰 부처이다(독일 연방 재무부, 2019.6.26.).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문화프로젝트 예산은 비공개이나 2010년 기준, 연방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연간 억대의 예산이 편성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전체 사회복지 기관과 분리되어 문화복지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위원회 자체적으로 별도 기금을 통해 개인 및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는 없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 중 신청을 받아 의회 기간 내 선출되며, 전체 조직은 위원장 이하 홍보실, 상담실, 문화프로젝트실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장애인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실에 소속되어있으며 문화프로그램 및 클라이트하우스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실장 1명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 시설개요

클라이스트하우스(Kleisthaus)는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을 표방한다. 클라이스트하우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신의 외, 2018). 즉, 클라이스트하우스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문화시설이지만 공간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예술가 등 모두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독일 베를린 미테(Mitte)에 1912~1913년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사무실로 활용하였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현재는 독일 연방정부 소유의 노동복지부 건물로 장애인 복지위원회 사무실과 문화시설인 클라이스트하우스 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건물은 전체 지상 3층 규모이며, 1층에는 로비, 콘퍼런스 홀, 등이 있으며 콘퍼런스 홀은 동시통역 및 멀티미디어 설치 등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는 3개의 큰 홀이 있으며 1~2층에는 클라이스트하우스 사무실 공간, 3층에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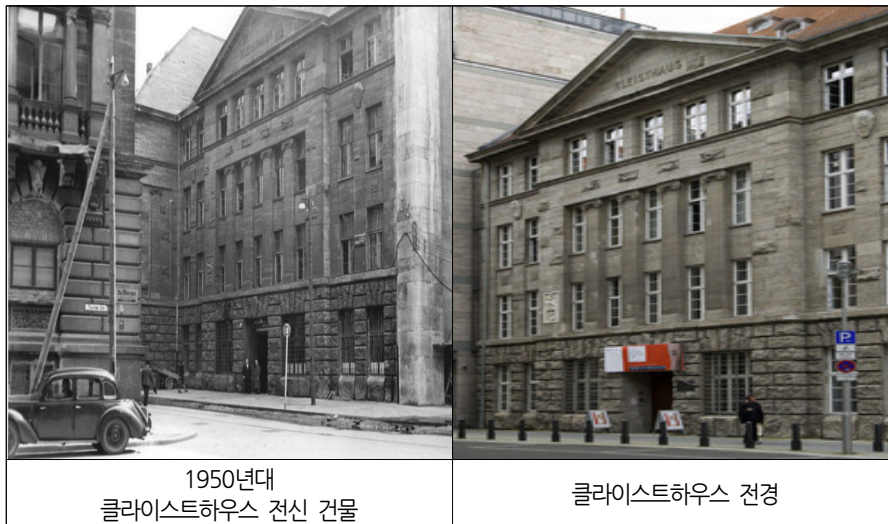
건물은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더불어 방문 전 사전신청을 통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표 3-2 | 클라이스트하우스 시설개요

구분	내용
운영형태	◦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직접운영
시설개요	◦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 ◦ 장애인을 최대한 배려한 국립 문화하우스
운영목표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뿐 아니라 문화다양성 증진 위한 문화프로젝트 등 운영 ◦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감성 발달
시설현황	◦ 유희공간 리모델링 ◦ 지상3층 - 1층: 로비, 사무실(클라이스트하우스), 콘퍼런스 홀, 안뜰 - 2층: 다목적 홀 3개실 - 3층: 독일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실

출처: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2019.9.20. 검색); 박신의 외(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참조하여 연구자 재정리

| 그림 3-1 | 클라이스트하우스 전경



출처: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2019.9.20. 검색); 위키미디어 독일어판 검색(2019. 9.20. 검색)

(3)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독일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조직구성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의 연구결과¹¹⁾에 의하면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내 클라이스트하우스 담당 직원을 두고 있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인력은 프로젝트별 유동적으로 조직될 것으로 추정된다.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독일 내 16개 주의 주정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법인, 장애인 예술가 법인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더불어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미술관 및 화랑과의 협력하고 듣는 영화 상영을 위해 오디오 디스크립션(Audio Description) 제작사와도 협력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그 외 베를린 호헨쾨하우젠 슈타츠 형무소 기념재단(Stiftung Gedenkstätte Berlin Hohenschönhausen), 홀로코스트 기념재단(Stiftung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체코센터(Tschechischen Zentrum)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클라이스트하우스의 문화프로그램은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공동주최기관의 예산 및 인력을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11) 해당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홍보관과 문화프로그램 담당 매니저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였음. 홍보관과의 유선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직원은 상당 인력이며, 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장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문화프로그램 매니저에 의하면, 클라이스트하우스에서는 문화 관련 행사 개최 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필요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4) 주요사업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장애인 혹은 장애인 예술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비장애인에 대한 분리라는 인식 하에 특정 집단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다만, 장애인이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 혹은 듣는 영화, 수화번역, 텍스트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클라이스트하우스가 설립된 2001년부터 배리어프리 전시회, 영화 상영(오디오), 독서, 콘서트 및 패널 토론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2018~2019년도에 진행된 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의 전시 및 장애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 및 강연, 워크숍 등의 행사, 공연,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였으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오디오 설명, 자막 설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 외에도 ‘제26회 독일 어린이 미디어 페스티벌’ 등 타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하이너 카로프 상(Heiner Carow Prize)’을 위한 조직위원회에 공동 참여하는 등 타 기관과 연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 2019.9.20. 검색).

클라이스트하우스의 문화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표 3-3 | 클라이스트하우스 문화프로그램

연도	구분	내용
2018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Adi Hoesle의 전시회 - 전시와 토론회, 워크숍 등 연계 진행
	영화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저니 투 선데빗(Die Reise nach Sundeit)' 상영 및 시상식 개최 ◦ 영화 '숲속의 작은 마녀(The Little Witch)' 상영 - 제26회 독일 어린이 미디어 페스티벌 연계
	강연/워크숍 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오픈 투어 - 시민 대상 연방정부 노동사회복지부 사무실 오픈 투어 ◦ 브레인 페인팅 워크숍 - 뇌파측정기술을 이용한 페인팅 기술 체험 워크숍 ◦ 장애예술인 Adi Hoesle 전시회 관련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관련 강연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Laura Gehlhaar 낭독회
2019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zy-정신 질환과 함께하는 삶(Crazy-Life with Mental Illness)' 사진전 개최 - 전시와 토론회, 워크숍 등 연계 진행
	영화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쥔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상영 ◦ '모래 소녀(Sand girl)' 상영 및 간담회
	강연/워크숍 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나치 T4(장애인 학살 작전) 희생자 기념식 - 기념식 및 투어 프로그램 운영 ◦ 베를린국제영화제 Heiner Carow Prize(하이너 카로프 상) 공동 조직 - 시상식 내 영화상영 시 서면 및 수화통역, 오디오 설명 등 제공 ◦ 사진작가 지빌레 펜트(Sibylle Fendt) 강연 ◦ 조증 VR(Manic Virtual Reality Workshop) 워크숍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 뒤(Behind the Windows)' 공연

출처: 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홈페이지(2019.9.23. 검색)

2) 일본 하나아트센터

(1) 일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① 관련 법률 및 정책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근거로서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예술 문화 활동 보급 지원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22조에서는 “국가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충실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전병태, 2014).

또한, 일본의 문화청(文化庁, Agency for Cultural Affairs(ACA))에서는 2019년 3월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개성과 능력의 발휘 및 사회 참여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을 추진할 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 창작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의 작품 발표 및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실현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19.9.23. 검색).

기본계획은 2018년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해당 법률에서 언급한 사업 범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19.9.23. 검색).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①감상 기회 확대, ②창조의 기회 확대, ③작품 등의 발표 기회의 확보, ④예술상 가치가 높은 작품

등의 평가 등, ⑤권리 보호의 추진, ⑥예술상 가치가 높은 작품 등의 판매 등에 관한 지원, ⑦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교류 촉진, ⑧상담 체제의 정비 등, ⑨인재 육성 등, ⑩정보 수집 등, ⑪관계자의 연계 협력 분야에 걸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19.9.23. 검색).

문화청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략 예술 및 문화창작 촉진 프로그램’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하고 있다. ‘전략 예술 및 문화창작 촉진 프로그램’은 문화청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모사업이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프로젝트’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감상과 창작발표 기회의 확충, 작품 등의 평가 등을 개선하는 노력 등 공생 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19.9.23. 검색).

이외에도 일본의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MHLW))에서는 2014년도부터 3년간 지역의 장애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예술 활동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7년도부터는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예술 문화 활동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2019.9.23. 검색).

② ‘에이블아트’ 운동

‘에이블아트(Able Art)’ 운동은 일본에서 최초로 추진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민예술운동이다. 에이블아트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Able’과 ‘Art’의 합성어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총칭하는 단어이다(아르떼 365, 2018.2.5.). 즉, 장애인의 예술을 ‘가능성의 예술’로 인식하고 예술을 통해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예술과 사회와

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일본의 에이블아트 운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시민예술운동이라는 특징이 있다. 에이블아트 운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 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생하고 감성 넘치는 표현 활동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장애예술인도 예술을 할 수 있다는 능력 확인 차원을 넘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1990년대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화되어 1994년 ‘에이블아트 재팬(Able Art Japan)’이라는 NPO가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중심으로 에이블아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에이블아트 재팬은 ‘에이블아트 무브먼트(가능성의 예술운동)’ 제창, 공모전, 포럼, 전시회 개최, 조사연구 사업, 장애인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실험적인 아틀리에 활동, 장애인 제작작품의 상품화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 제작작품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에이블아트 컴퍼니’를 설립하여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상품화하고 디자인 등록을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2) 시설개요

하나아트센터는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1976년 설립)이 운영하는 장애인 아트센터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민들레의 집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지역의 공동체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본 에이블아트 운동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민들레의 집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아시아의 장애인들과 교류하는 네트워크 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그중에서도 장애예술 관련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하나아트센터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한다(송기호, 2017). 하나아트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으로는 ①창조성의 개발(스스로의 존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활동인 창조성의 개발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는 것), ②관계성의 창조(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클수록 창조성도 높아짐), ③기획성의 개척(장애가 있는 자신이 먼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④자기 주체성의 장소(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장소)가 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즉, 하나아트센터는 장애인의 예술 활동 지원기관이자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서 역할 하는 것이다.

하나아트센터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스튜디오, 갤러리, 카페·숍, 정보센터, 회의실, 극장 ‘포포’, 커뮤니티 컬리지, 레지던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스튜디오 및 전시실로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극장, 카페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었다(민들레의 집 홈페이지, 2019.9.24. 검색).

| 표 3-4 | 하나아트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운영형태	◦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 직접운영
시설개요	◦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NPO 민들레의 집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아트센터 ◦ 민간(비영리단체)시설
운영목표	◦ 모든 사람이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감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2층 규모 - 스튜디오: 회화, 입체 조형, 섬유,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꽃, 컴퓨터, 어린이를 위한 아트 스쿨 등 - 갤러리: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의 표현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아트센터 작품을 전시·판매 - 카페&숍: 카페 및 아트센터 예술작품·도서 판매 - 정보센터: 국내외 장애인 예술과 의료 복지에 관한 책 열람 가능. 각지의 전시회·이벤트·세미나 정보 소개 - 회의실: 강연회, 연구회, 영화감상, 미니 파티 등이 가능한 지역 교류의 장(40명 수용 가능) - 극장포포: 댄스, 음악, 스포츠, 콘서트와 교류회 등이 가능한 홀(100명 수용 가능) - 커뮤니티 컬리지: 지역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새로운 창작 체험, 요리와 독서, 건강·생활 관련 프로그램 등 - 레지던스: 국내외 장애예술인 레지던스. 필드 워크를 목적으로 한 NPO 직원과 연구원 등도 이용 가능하며, 홍콩,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미국 등과 교류

출처: 민들레의 집 홈페이지(2019.9.24. 검색); 송기호(2017)

| 그림 3-2 | 하나아트센터 시설현황



출처: 민들레의 집 홈페이지(2019.9.24. 검색)

(3)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민들레의 집은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과 사회복지법인 와타보우시 모임, 나라 민들레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은 ‘아트·케어’의 관점에서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시민단체다. 주로 예술의 사회적 의의 및 시민문화 확산과 국내외 단체 간 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와타보우시 모임은 장애인 어린이와 노인이 안심하고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트·케어·라이프’라는 관

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라 민들레 모임은 민들레의 집 활동과 관련한 지역 내 봉사단체이다(민들레의 집 홈페이지, 2019.9.24. 검색).

하나아트센터의 조직구성은 2012년 기준 상주인원 20명, 비상주인원 20명 총 40명이다(김홍규, 2012). 정확한 인력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문화융성위원회(2014.4.16.)의 조사에 의하면 하나아트센터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3배수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시행하며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하나아트센터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민간기업의 기부, 개인의 모금 운동 등을 통해 운영되며, 미술가, 미술 전공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아트 서포터와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전체의 85% 규모이며, 재단법인은 약 9,000만 엔(기업지원금)이다. 하나아트센터가 위치한 나라현에서는 전체 예산의 약 10% 정도 지원받는다(김홍규, 2012).

(4) 주요사업

하나아트센터는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강조하며, 장애예술인이 작품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직업 활동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아트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은 2012년 기준, 50명이며 대부분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특한 점은, 시설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하나아트센터를 기반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센터를 나가는 비율이 낮아 전반적으로 고령화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입주 장애예술인들의 활동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장애예술인은 식비 정도를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김홍규, 2012).

하나아트센터의 장애예술인들은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으로서 예술 프로그램 및 전시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기반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운영하고 있다. 아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틀리에를 운영하고 도예·텍스타일(textile) 등의 분야에 대한 창작 지원과 함께 예술작품의 상품화 및 판매 등을 지원한다(민들레의 집 홈페이지, 2019.9.24. 검색).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아트센터는 작가들을 유명 갤러리에 소개하거나 국제교류를 지원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작품 홍보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나 디자인에 대해 판매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박신의 외, 2018).

국내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2009년 하나아트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의 ‘하나아트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약 20일간 단기 예술인 파견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지역예술인과 하나아트센터 장애예술인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 5명의 한국 작가와 6명의 일본 장애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하여 영상, 설치미술, 그림 등의 분야에서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전을 개최한 바 있다(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2019.9.24. 검색).

하나아트센터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이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네일아트 프로그램,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민들레의 집 홈페이지, 2019.9.24. 검색).

그 외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등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트링크’를 통해 일반 지역예술가와 하나아트센터의 예술가의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 표 3-5 | 하나아트센터 주요사업

구분	내용
아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틀리에 운영, 도예·텍스타일(textile) 등 창작 지원, 예술작품의 상품화 및 판매 등 지원 ◦ 장애인예술인의 장애유형, 예술활동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시설 이용기한의 제한이 없음
커뮤니티 컬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 대상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네일 프로그램,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강좌 운영 ◦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트링크 - 지역 내 일반예술가와 장애인예술인 간 네트워킹·공동작업 지원 ◦ 생활 간호 사업 - 정원 30명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직업, 영양, 재활 및 왕진, 보조기구 수리 등) ◦ 취업 계속 지원 B형 사업 - 정원 10명 - 장애인의 직업으로서의 예술활동 지원, 예술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接客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출처: 민들레의 집 홈페이지(2019.9.24. 검색);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2006)

| 그림 3-3 | 하나아트센터 주요 프로그램



아트 프로그램

경기문화재단
하나아트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출처: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2019.9.25. 검색); 민들레의 집 홈페이지(2019.9.25. 검색)

3. 국내사례

1) 잠실창작스튜디오(서울)

(1) 시설개요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이다. 서울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를 위탁운영하였다(서울문화재단, 2013.9.5.; 잠실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2019.9.25. 검색).

그 후 장애인 차별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 명칭을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공간의 열악함을 보완하여 2013년 재개관하였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3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화를 통해 현재는 재단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문화융성위원회, 2014.4.16.).

2019년도 운영예산은 서울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2억원 및 외부재원 2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2천만원이다. 시비 확보를 통해 장애예술인(단체) 당 500~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내 민간기업으로부터 매년 약 2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시설로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나아가 장애예술의 지면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문화융성위원회, 2014.4.16.).

향후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로의 확대 운영 및 장애-비장애 예술가 간 교류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내 장애예술 확산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표 3-6 | 잠실창작스튜디오 개요

구분	내용
운영형태	◦ 서울문화재단 직접운영
시설개요	◦ 국내 유일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시각예술 중심) ◦ 2007년 조성, 2013년 리모델링 후 재개관
운영예산	◦ 5억 2천만원('19) - 서울시: 서울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 기타 외부재원 약 2억원
운영목표	◦ 장애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지원 ◦ 장애예술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확산

출처: 관계자 인터뷰(2019.10.15.); 문화융성위원회(2014.4.16.); 잠실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2019.9.25. 검색)

시설은 지상1층 규모에 16개실(연면적 567㎡)로 조성되었으며, 작가 입주실 및 전시공간, 공용작업공간 및 휴게공간 등을 갖추었다(서울문화재단, 2013.9.5.). 장애예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로 입구경사로, 비상벨(각 입주공간 설치), 시각초인종, 점자블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작가 근태 체크기와 부엌시설을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주작가가 이용하기 편하게 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시 수어 통역, 오디오 디스크립션, 점자 리플렛 등을 제공한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예술인이 모이는 공간이니만큼 공유부엌 시설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초기 공간조성 당시 다소 협소한 공간에 창작공간이 조성됨으로 인해 입주한 장애예술인에게 개별 작업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공동 작업실만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오히려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개별 입주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실별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예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메세나 등을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3D 프린터, 전동이젤, 전기가마, 전기물레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서울문화재단, 2013.9.5.). 이에 잠실창작스튜디오 근처 유휴공간에 간이 공간을 설치하고 분진작업이나 전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작업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을 기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기 비좁은 입주공간과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없어 시각예술에 한정하여 운영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문화융성위원회, 2014.4.16.).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인플랜(안)’의 반영과 서울시 동북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가칭)‘서울굿월아트센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 표 3-기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설현황

(단위: m)

구분	공간명칭	면적	용도
입주실	꿈채운	131.2	작가입주실(총12실)
공용휴게공간	미소뜰	58.9	카페테리아
전시공간	하늘연	105.9	전시, 교육 등 다목적 공간
	니온갤러리	9.2	전시 쇼케이스
	공갤러리	3.2	
기타	해오른 외	163.6	운영사무실 및 경비실, 창고
공용작업공간	공용작업공간	95	가마실, 분진작업실
계		567.0	

출처: 서울문화재단(2019.1.28.)

| 그림 3-4 |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설현황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2019.9.25. 검색)

(2)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기획본부 공간기획 2팀 내 일부 인력이 운영을 담당한다. 2019년 기준, 정규직 4명(매니저 1명, 기획행정 3명)과 임시직 1명, 총 5명의 운영인력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인력은 없었으나 2019년부터 사업실행 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장애예술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잠실창작스튜디오 업무분장

직급	담당업무
매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및 사업운영 총괄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보고 ◦ 공간시설 및 예산 운영 총괄 ◦ 운영위원회 총괄 및 간사 역할 ◦ 대외협력, 홍보업무 책임 및 총괄 ◦ 입주작가 지원관리 총괄
기획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 장애예술인 민관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 기획 및 관리운영 ◦ 입주작가 대외활동 협력 및 연계 ◦ 대외협력, 홍보업무 운영관리 ◦ 입주작가 지원관리 ◦ 잠실창작스튜디오 예산관리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입주예술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잠실창작스튜디오 시설 운영 및 관리 ◦ 대내외 보고 업무 관리 및 협조
임시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업무보조 ◦ 지원사업 정산

출처: 서울문화재단(2018.1.19.)

사업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여러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아제약의 경우 7년간 매년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대상 프로젝트A’를 운영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2년간 매년 5천만원의 기부금을 통해 입주작가 기획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현금 지원 외에도 KT&G는 전시공간 지원과 함께 작가당 200만원 상당의 작품소장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창작화랑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전시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내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간 장애예술인 당사자와 큐레이터, 기획자, 언론, 연구자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19년도 운영위원회는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 5인과 내부위원 1인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분야 민관협력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장애·비장애예술인 동행프로젝트 공유 및 활성화, 사업운영의 홍보 채널 확장 및 활성화 등을 운영목표로 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3년도부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기본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서울문화재단, 2019.4.5.).

이 외에 지역연계 차원에서 잠실종합사회복지관과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복지관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등을 분담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3) 주요사업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레지던시 중심의 서울시 장애예술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다만 잠실창작스튜디오는 레지던시 기능에 집중하여 일반 장애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목표로 ‘서울형 장애예술인 지원모델 개발 및 운영’, ‘장애·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을 제시하였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잠실창작스튜디오의 ‘2019년 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서울시 장애예술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 간의 교류를 지원하여 장애예술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입주작가 지원을 위해 2019년 12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입주작가는 만 19세 이상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한 달 기준 15일 이상 혹은 12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입주작가 선정 시, 활동경력을 기반으로 심사하지만, 반드시 예술인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도 서울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중증장애인보다는 대부분 시설까지 이동이 가능한 장애예술인이 지원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창작공간 지원 외에 입주예술인 인큐베이팅을 위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Artist Statement) 작성, 포트폴리오 제작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더불어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유망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아동·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3년부터 시행된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와 함께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을 신규 추진한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는 현재 만 17세 미만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이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장애예술의 가치 및 공존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네트워킹 및 공동 창작기회 지원’ 및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서울문화재단, 2019.1.28.). 이를 위해 서울시 창작공간 입주작가 간 공동작업 및 상호 티칭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만나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예술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의 경영지원팀과 함께 서울시 창작공간 내 배리어프리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하고 있다(관계자 인터뷰, 2019.10.15.).

| 표 3-9 | 2019 잠실창작스튜디오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내용	예산
입주작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굿모닝스튜디오> - 대상: 10기 입주예술가 12인 - 내용: 입주작가 창작역량 개발과 작품발표를 위한 시각예술 전문가 인큐베이팅 지원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스튜디오 개최 - 사업기간: 10월 4일~10일 - 내용: 입주작가 작업실 공개 및 부대행사를 통한 예술가 역량 홍보 및 네트워크 장 마련 	14,500

사업명	내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 공모기간: 2019.11., 선정발표 2019.12. ◦ 10기 입주작가 운영 현황 - 입주인원: 10기 입주자 총 12명 - 입주기간: 2019.01.07.~2019.12.27. - 입주작가 구성: 총 12명(뇌병변장애 3명, 지체장애 2명, 청각장애 3명, 시각장애 1명, 발달장애 3명) 	5,093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대상: 서울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할 만19세 이상의 장애예술인 개인 및 단체 - 사업기간: 3월~12월 - 내용: 유망 장애예술인의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전통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200,000
장애아동 및 청소년 예술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A - 사업기간: 4월~11월 - 내용: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아동 선발, 1대1 멘토링 지원 및 전시발표 지원 	조아제약 조건부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기간: 4월~11월 - 내용: TA, 예술(교육)단체의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시범운영 지원 	100,000 (예술창작본 부 연계)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 가치 및 공존 관련 담론 확산 : “(가칭)공존하는 미래” 3회 개최 - 공존하는 삶, 예술 관련 이슈 제기,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창작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네트워킹 및 공동 창작기회 지원 - 공간기획본부 입주작가 기획전시 등 프로그램 참여 및 교류기회 지원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사업 선정예술작품의 발표공간 지원(창작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경영지원팀 협업 추진) -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등 입주공간 확대 및 개선 	

출처: 서울문화재단(2019.1.28.)

2) 에이블아트센터(수원)

(1) 시설개요

수원에 위치한 에이블아트센터는 국내 최초의 전문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에이블아트센터는 비영리단체 운영기관으로 장애인의 문화권 리실현 및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조성되었다. 2000년부터 목사인 장덕용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에이블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그 후 2009년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법인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2011년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6. 검색).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신의 삶과 꿈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직업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서 역할 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다(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6. 검색; 장병용, 2011).

에이블아트센터가 타 장애인 문화시설과 차별화되는 점은 단순히 기회 제공의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예술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애-비정상, 비장애-정상이라는 통념을 깨고 ‘장애예술’이라는 장르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임해원, 2017.11.13.).

또한, 대부분 에이블아트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발달장애인이다(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6. 검색). 에이블아트센터는 신체장애인에 비해 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에게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이블아트센터는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1,220.44㎡ 규모이며, 회화실, 도예실, 공예실, 영상실 음악실, 전시실 등 다양한 예술 활동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장, 카페, 하늘 공원, 아트숍 등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되었다(경기건축포털 홈페이지, 2019.9.26. 검색; 장병용, 2011). 에이블아트센터는 추후 6층에 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다(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표 3-10 | 에이블아트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 민간 비영리단체 운영
시설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전문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운영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4억 6천만원('17년 기준)
운영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세우게 하는 것 ◦ 예술적 재능과 흥미를 고루 갖춘 발달장애인을 교육해 작품성을 갖춘 전문 예술가로 성장시킴으로써 '장애예술' 장르 확립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2층~지상7층 ◦ 연면적: 1,220.44㎡ ◦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1,2층: 다목적 공간(콘서트홀) - 1층: 갤러리 및 도서관 - 2층: 문화카페 - 3층: (사)에이블아트, 센터장실 - 4층: 세미나실 및 식당 - 5층: 도예실, 공예실 - 6층: 회화, 영상, 음악실, 도서관(예정) - 7층: 하늘정원

출처: 경기건축포털 홈페이지(2019.9.26.); 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2019.9.26. 검색); 임해원(2017.11.13.); 시흥저널(2011.7.16.); 장병용(2011)

| 그림 3-5 | 에이블아트센터 시설현황



출처: 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2019.10.10.)

(2) 운영 주체 및 인력 현황

에이블아트센터는 (사)에이블아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무인력은 총 6명으로 공연예술팀 2명, 시각예술팀 2명, 회계행정팀 2명이다. 그 외 장애예술인을 1:1로 돕고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약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미술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아트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강사를 도와 수업을 준비한다(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에이블아트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개인의 CMS 후원금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사업별로 정부 및 민간기업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16.2.11.).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원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 삼성전기, 아산복지재단 등 민간기관이 있다(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표 3-11 | 에이블아트센터 재정 현황('17년도 기준)

(단위: 원)

구분	내용	금액
후원금	후원금(CMS, 정기계좌, 일시후원) *CMS수수료제외	75,977,020
	행사후원금 (샘정기연주회, 헬로우샘 행사 후원금)	11,345,050
	물품후원금	5,803,000
	아트상품후원금 (에코백, 뱃지)	3,091,150
	지정후원금(시각예술 전시)	3,000,000
	보조후원금(에이블아트스쿨, 새파란)	30,685,350
	소계	129,901,570
보조금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17년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7,000,000
	[삼성전기] hello! SEM 오케스트라(17시즌 지원금)	163,000,000
	[아산복지재단] 에이블아트스쿨(17년 1차 7월 - 12월)	100,000,00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18,000,000

구분	내용	금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13,000,000
	[수원문화재단]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칠보탕 시즌4	9,000,000
	[꿈e든] 새파란, hello! SEM 오케스트라	15,249,070
	소계	325,249,070
이월금 (목적 사업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16년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1,400,00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16년 시각장애 미술교육 지어보다	2,891,586
	소계	4,291,586
기타수입	이자수익	54,939
	잡이익	3,955,955
	소계	4,010,894
총 계		463,453,120

출처: 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2019.10.10.)

(3) 주요사업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예술인 및 아트서포터즈 양성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연 및 음악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사업은 크게 시각미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로 구분되며,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을 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16.2.11.; 수원평생학습관, 2013.3.4.).

먼저, 시각미술 분야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에이블아트스쿨’, ‘새파란스튜디오’가 있다. ‘에이블아트스쿨’은 전문예술강사(TA)와 아트서포터즈가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링크 형식의 사업으로, 도예·회화·영상·공예 등의 분야에서 전문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전문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자생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장애예술인이 가진 특성이 작품 내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프로그램이지만 작가 개개인이 갖는 스타일을 존중하고 인정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이블아트스쿨 참여작가 선정 시 예술 활동과 작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16.2.11.; 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7. 검색).

에이블아트스쿨에서 생산되는 예술상품 및 콘텐츠는 ‘로브먼트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새파란스튜디오’는 만 13~25세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전문 예술활동은 아니지만, 예술에 관심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장르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표현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7. 검색).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 프로그램은 ‘헬로우셈(Hello! SEM)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다. SEM은 ‘특별하고(Special), 재능있는(Excellent), 음악인(Musician)’이라는 뜻으로 장애음악인 육성과 체계적 음악교육 시스템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 2013년 창단되어 현재는 약 37명의 단원이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 연주 초청회를 비롯해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공연, 정기연주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아르페365, 2018.2.5.; 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7. 검색).

‘기쁜SEM플룻앙상블’은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플룻 앙상블이다. 현재 총 1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주회와 악기교육을 통해 연주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단원으로서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에이블아트센터 내부자료, 2019.10.10.).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 교류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블아트센터에서는 ‘에이블뮤직그룹’을 운영한다. 에이블뮤직그룹은 장애 음악인의 잠재된 예술성을 드러내며 전문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전문 앙상블 그룹이다(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 2019.9.27. 검색).

에이블아트센터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외에도 공연 및 음악회, 장애예술인 개인전 및 단체전 개최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겐 활동의 기회를,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표 3-12 | 에이블아트센터 주요사업

구분	내용
공연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로우샘오케스트라 - 개요: 장애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 창단: 2013년 10월 15일 - 목표: 장애음악인 육성과 체계적 음악교육 시스템화 - 운영: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주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협력, 삼성전기 후원 - 파트강사: 총 23명(바이올린 2명, 비올라 7명, 첼로 2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1명, 클라리넷 5명, 트럼펫 1명, 하프와 기타 편곡 및 반주자 2인) - 단원: 총 37명(바이올린 12명, 비올라 7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2명, 플루트 4명, 클라리넷 4명, 트럼펫 1명, 하프 1명) -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적, 체계적 맞춤형 음악교육 ② 연주회 및 협동연주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초청연주, 타 장르와의 협연, 찾아가는 기획연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쁜샘플룻앙상블 - 개요: 만13세에서 만23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플룻 앙상블 - 목표: 악기지원과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연주 활동이 가능한 연주자로서 성장 - 단원: 12명 - 주요활동: 초청연주회, 플루트 그룹레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뮤직그룹 - 개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의 상징인 전문앙상블
시각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블아트스쿨 - 개요: 시각예술 기반의 데이케어 교육 서비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대미술 관련 학문과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 수업 별 배치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회화, 도예, 영상, 그래픽, 무용, 감각 수업, 커피 등 ③ 예술적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전시, 출판, 판촉, 장르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 ④ 공동체성·사회성 계발: 공동창작, 향유, 체험 등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파란스튜디오 - 개요: 만13-25세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예술 교육프로그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 강사진이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장르의 활동 지원 ② 전시관람이나 야외스케치 등 참여 ③ 활동보고전: 한 해 동안 새파란스튜디오 활동 소개 ④ 본인부담금: 재료비 월 150,000원(경기도교육청 꿈e든 카드 사용 가능)
아트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더 프로젝트 - 개요: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 내용: 작가들이 제작한 컵 홀더를 지역 카페에서 제공
로브먼트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브먼트 마켓 운영 - 내용: 에이블아트스쿨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콘텐츠를 판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출처: 에이블아트센터 홈페이지(2019.9.27. 검색)

4. 시사점

1) 독일 클라이스트하우스

▣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 운영

독일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모두를 위한 문화의 집을 표방하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장애인·장애예술인이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장애인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클라이스트하우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동등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을 단순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를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예술의 한 분야로서 장애예술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었으며, 프로그램 이용 시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더불어 듣는 영화, 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예술인의 전시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2) 일본 하나아트센터

■ 장애예술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우선적 고려 필요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한 ‘에이블아트’ 운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장애예술을 통한 사회에 새로운 가치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민예술운동이다. 일본의 에이블아트 운동은 장애예술을 가능성의 예술로 인식하고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시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장애예술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타 예술 분야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합의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하나아트센터는 입주작가의 작품을 상품화하여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더불어 시민 대상 전시 및 공연을 개최하고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트링크’ 사업을 통해 장애예술인과 일반 예술가 간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이렇듯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사회 및 예술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서울 잠실창작스튜디오

■ 지역 장애예술 플랫폼 필요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이다. 국내 장애예술 관련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공공 차원에서 지역 장애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의 영역에서 일반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은 많은 반면,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가로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작공간 및 창작지원금 지원, 전시지원, 예술가 간 교류기회 제공 등의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장애예술 거점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인천시 역시 현재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이 미비하고 인천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실태 및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예술의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내 장애예술인 및 일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특성 및 수요 반영 정책 필요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서울형 장애예술인 지원모델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입주예술가의 의견을 공간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마련 시 인천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장애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입주작가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장애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 개최, 장애-비장애 예술인 네트워킹 및 공동창작기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예술인이 예술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창작 및 향유 지원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필요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장애예술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관계자 인터뷰 결과,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 간에도 일상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설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심하다면 창작공간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즉,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과 시설이 매우 상이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향후 실질적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수원 에이블아트센터

■ 장애인예술 장르 확립 및 장애인예술인 자립 지원

수원 에이블아트센터는 일본의 에이블아트 운동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향유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자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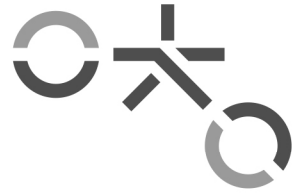
장애인예술인이 전문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에이블아트스쿨’ 사업을 통해 작가의 특성이 작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전 개최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 장애인예술인의 작품을 상품화하여 ‘로브먼트 마켓’을 통해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앞선 국내·외 사례와 같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복지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예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예술을 확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에이블아트센터는 ‘홀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장애인예술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홀더 프로젝트는 에이블아트센터의 작가들이 제작한 컵 홀더를 인근 카페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예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내 커뮤니티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제 4 장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1. 기본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과제

제4장.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1. 기본방향

1) 접근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범위

2장에서 살펴봤듯이 중앙정부의 장애인 관련 법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범주와 필요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 4-1>은 관련 법 중에서 비교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지원정책의 내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크게 장애인 일반을 위한 지원과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장애인 일반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①시설 지원(시설 조성, 관련 시설 지원, 이용편의 제공), ②인력 지원(관련 단체 지원, 보조인력 지원), ③사업 지원(문화예술교육, 문화생활, 여가활동), ④장비 지원(보조장비 및 기기 제공), ⑤정보 제공(문화예술활동 정보)으로 구분된다.

또,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범위는 ①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②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로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의 창작 및 활동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물론 장애인 일반을 위한 시설, 인력, 사업, 장비, 정보 등의 지원대상에 장애예술인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4-1 | 법률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범위

구분	법률명	관련 내용
중앙 정부	문화예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관련 시설 설치 ◦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경비 보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사회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
	예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인권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 의사표현 및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 ◦ 문화여가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생활 관련 시설 및 활동 지원 ◦ 문화생활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 참여 편의 제공 ◦ 문화예술시설 이용 지원 ◦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문화예술활동 보조장비 및 기기 제공 ◦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서도 인천시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 4-2>는 해당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지원 내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크게 ①기본계획 수립, ②장애문화예술인 육성·지원, ③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과 협력 및 기반 구축, ④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⑤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기관 설치·운영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의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더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기관 협력 및 네트워킹’,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가 추가되어 있다.

| 표 4-2 |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상 지원범위

조항	내용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 지원 - 기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필요사항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 기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홍보 -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 기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률과 인천시의 조례에 명시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범위를 도식화하면 크게 ①제도, ②시설, ③인력, ④사업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인천시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이다.

| 표 4-3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범주

제도	시설	인력	사업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정책·사업 개발 지원제도 마련	관련시설 조성 이용편의 제공 교류협력 지원 보조장비 제공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 인력지원 활동보조 인력지원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활동 문화향유사업 정보제공사업

이 장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방안을 위의 네 가지 범주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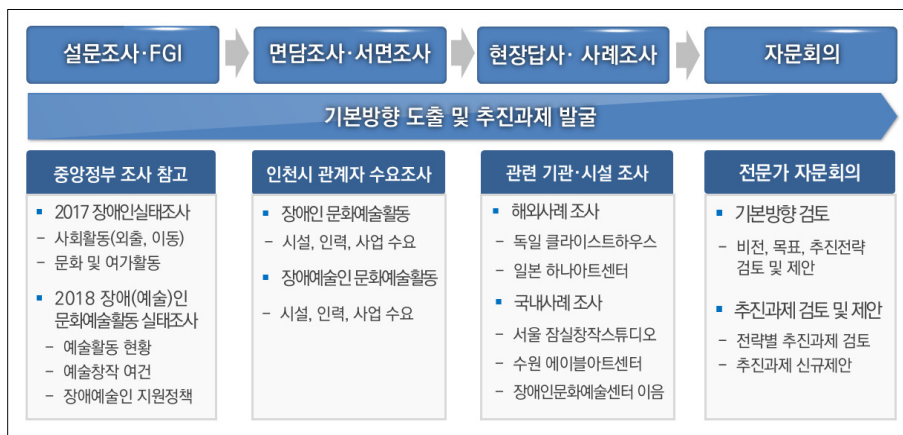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발굴 과정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참고했다. 연구 여건상 예산이 수반되는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설문조사와 FGI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와 장애인 예술인 지원수요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인천시 장애인시설·단체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 문화예술교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수요를 조사하여 추진전략과 사업 발굴 시 반영했다. 장애인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체로 지원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토대로 전문인력의 보조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매개인력의 활동 지원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중앙정부 설문조사·FGI, 인천시 관련 단체·기관 방문조사 및 서면조사, 타 시도 사례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거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그림 4-1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과정



2) 기본방향

■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다(제1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문화권’은 장애가 있든 없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헌법과 문화헌장, 문화기본법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실상 대다수의 장애인은 기본적인 문화향유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 생활문화 참여, 예술 창작, 문화예술교육 등 비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진흥 정책은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으로 고도화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이로부터 여전히 소외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기본방향을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부터 기존 문화예술정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까지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시민 전체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표 4-4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방향

기본방향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
------	--------------------------

2. 추진전략

1) 목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표 4-5>와 같이 3대 목표를 설정한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과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표 4-5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목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향유 증진 ◦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및 활동 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	---

2) 추진전략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기본방향과 3대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을 앞서 법률과 조례 검토를 통해 도출한 4가지 영역(제도, 시설, 인력, 사업)의 측면에서 아래 <표 4-6>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표 4-6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전략

추진전략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 추진과제

제도, 시설, 인력, 사업 부문 4대 추진전략별로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아래 표와 같이 도출했다.

표 4-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추진과제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제도	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 -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 인천시 무장애 문화예술시설 현황조사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 콘텐츠 및 레퍼토리 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제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사업 장애예술인 쿼터제 실시 - 시·군·구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협업구조 구축 ◦ 인천시 장애인 문화바우처 가맹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단체 발굴 및 가맹점 등록
시설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양성 및 배치 -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DB 구축 및 공유 ◦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용공간(연습/창작/발표) 조성 - 장애인 문화·체육 융복합 생활SOC 조성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 장애인 활동 보조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 공연관람용 특화차량 운영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교류·협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 및 문화시설·단체 네트워킹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상호교류 지원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인력	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창작 및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지원 - 장애예술인(단체) 창작·발표 지원 - 장애예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지원 ◦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장애예술단 조성 및 운영 - 장애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운영 - 장애예술인 작품 상품화 및 판매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풀뿌리단체 발굴·육성 확대 -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경연대회 운영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확대 및 컨설팅 지원 ◦ 장애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 장애인 문화기획자 양성 및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활용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교재 연구·개발·지원 - 발달장애인 특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 장애인 생활문화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발굴·지원 -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지원 - 장애인 커뮤니티아트 사업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정기 공연 및 전시 관람행사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문화예술총서 발간 - 장애예술 발표/전시/공연 홍보 지원 - 장애예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1) 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실시

본 연구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이자 최초 연구로서 향후 인천시의 추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이제껏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이유로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와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결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도 정확하게 조사된 적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여건 파악이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가 2018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사업 신청단체,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장애인 수를 파악하여 미흡하나마 인천시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향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와 ‘인천시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 제5조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인천시의 문화예술시설을 대상으로 무장애시설 설치 현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여 시설지도를 제작해 보급한다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 문화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전면적으로 무장애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방안과 가이드라인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사업 개발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와 ‘인천시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에는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참고하여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찾아내고 단계적으로 사업화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 외에도 과제별 사업화에 앞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많다. 장애유형이 15가지로 분류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생애주기별, 경력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세분화된 문화예술정책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실제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콘텐츠 및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앞서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 영역에 장애인 문화예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장애인 문화예술은 시장경쟁력을 지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존 문화예술 콘텐츠 중에는 장애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장애와 장애인에 공감할 만한 내용을 지닌 것이 거의 없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어려움 중 ‘비용’과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프로그램 부재’였다.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고, 향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도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행사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장애인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레퍼토리 개발이 요구된다. 장애인이 핵심적인 역할로 참여하거나 장애인과 관련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제도 체계화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기에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여지는 없다. 대부분의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예술의 수월성과 실현 가능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장애예술의 감성과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거나와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창작활동 실현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장애인이 불리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장애예술을 비장애예술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예술인 쿼터제’를 실시하여 기존 예술지원사업 내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확보하도록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에 장애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용적 예술’의 관점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사업화하는 방법으로는 인천시의 공공행사에 장애인 의무공연 비율을 확보하거나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일정 부분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쿼터제’의 시범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 쿼터제를 운영하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일반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협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중 하나가 ‘인접시설의 부재’로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나 문화향유를 할 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광역권 거점 문화시설이 부재하므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기초 생활권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기반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민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이 생활권역 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옹진군 외

9개 군·구에 소재한 10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사업 비중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지관의 여러 사업과 문화예술활동이 복합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인천시 장애인 문화바우처 가맹점 확보

인천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을 위하여 발급되는 문화바우처로서 1인당 연간 8만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인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므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2019.11.26.).

해당 제도는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약 15년간 운영되어왔으나 실상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인천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문화(도서, 음반, 영화, 공연, 미술), 문화체험(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 체험관 등)과 여행(숙박, 교통, 여행사, 관광지), 체육시설(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1,033개소가 등록되어 있다(이동화, 2018.8.6.). 그러나 문화 가맹점 중 대부분이 서점이고 기존 문화시설도 무장애시설로 조성되지 않아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의 사업을 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누리카드 연계사업

을 통해 장애인들은 생활권 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나 시설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운영하며 연중 상시 가맹점을 발굴·모집하고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조례에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자기발견과 재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의 설치 관련 조항(제8조)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지원기관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홍보’,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민간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을 이해하는 문화예술교육강사 부족, 활동보조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

인복지관협회 등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이 주도하여 지원해왔으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2015.5.8.)에 따라 5년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인천시도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인천문화재단, 2018)을 최근 수립했으므로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기관의 설치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원기관이 설립된다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양성 및 배치, 장애인 문화예술강사 DB 구축 및 공유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생애주기별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유형(신체장애, 정신장애)과 중증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강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화된 강사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전문강사를 필요한 단체나 시설에 연결해줄 수 있도록 DB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조성

인천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과 송암점자도서관 외에는 아직까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없다. 복지시설에서는 간단한 공예, 합창, 미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송암점자도서관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보급·낭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연습, 창작, 발표 욕구를 충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외사례와 타시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갖춘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중심으로 예술인 창작 지원, 예술작품 상품화 및 판매, 문화프로그램(전시, 영화, 강연, 공연 등)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장애인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좁고 방음시설이나 무장애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간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조성한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공동작업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간, 장애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공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광장, 휴게공간 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이용 수요가 높은 예술 장르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무장애시설로 조성되어야 하고 관련 설비도 갖춰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더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과 융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건강·체력 부족’(29.4%)이라고 응답했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건강관리와 재활 차원에서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므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융복합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하나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민들레의 집’은 ‘아트·케어·라이프’라는 관점으로 문화예술과 복지서비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에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과 간호시설이 조성되고,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까지 보완된다면 장애인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편의 제공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문화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도’ 분야 추진과제로 인천시의 문화예술시설을 대상으로 무장애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문화시설은 개보수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새로 짓는 문화시설은 반드시 무장애시설로 조성하여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외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보조장비와 기기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휠체어는 물론이고 점자안내책자, 독서보조시설, 보청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자막 장비 도입 등이 요구된다.

그 밖에 문화시설까지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공연관람 특화차량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시는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시가 택시사업자를 모집해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도 확충할 방침이다(최태용, 2019.10.15.).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 단체관람 사업을 운영할 때 장애인 특화차량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특화차량¹²⁾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휠체어 전동리프트와 안전바가 설치

12) 특화차량은 특수 개조된 15인승 미니버스임. 휠체어 전동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휠체어 3대가 동시에 탑승할 수 있음. 차량 내부에는 안전바가 설치돼 있음. 송파구는 재활치료를 위해 송파구 보건지소를 찾는 중증장애인에게 특화차량 이동 서비스를 우선 제공함. 추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내 의료기관 이동 및 공연 관람, 자조모임 참석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임(고영득, 2019.4.18.)

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특화차량을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동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교류·협력 지원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이 부재한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장애 유형과 정도, 생애주기 및 참여자 수요에 맞게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전문성을 지닌 지역 단체 및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 문화사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은 총 54개소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7개소, 장애인복지관이 10개소, 기타시설 7개소가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낮 동안 재활치료사업과 음악감상, 노래교실 등 간단한 체험 위주의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타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예, 달리기 등 활동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가족문화지원사업, 여가프로그램, 문화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인력들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강사 확보가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전문강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한국장애인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전국 210개 장애인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대상으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과 협회가 장애인예술강사와 시설을 선정하여 매칭해줌으로써 시설 내 문화예술교육활동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

식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9.11.27.). 그러나 진흥원과 협회의 역할이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애인들도 관습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기존 장르를 지속해서 반복 수행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조현성 외, 2017).

이러한 문제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장애인복지시설과 강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문화기획자, 복지관 담당자, 관련 단체 및 기관, 문화시설 등이 연계될 때 기존 복지시설에서도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arte.ifac.or.kr)’와 장애인복지시설 간 연계·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맞춤형 강사 보급 등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천문화재단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양성사업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교류 지원도 필요하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대부분 문화예술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68.4%)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입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적합한 단체가 없어서’ 순이다. 반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가입 이유로 ‘협업, 공동발표 등 활동 교류’(41.9%), ‘활동 장르에 대한 정보 교류’(34.2%) 등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가 주목적이라고 응답했다. FGI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장애예술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나타났다.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기회와 규모가 비장애 예술인과 단체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예술인(단체)의 경우 정보 접근이 어려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인천시도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당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장애예술단체 수가 적고,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체 가입으로 인한 이점이 없을 경우, 장애예술인들의 단체 가입률은 높아질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정보 습득과 교류활동 기회도 얻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단체를 조직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간 상호교류와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행사, 워크숍 등 네트워킹 사업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장애예술인 창작 및 활동 지원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애예술단체는 5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 장애예술인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재단에서 장애예술인을 구분하여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18년 1월부터여서 기존에 장애 구분을 하지 않고 등록한 예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전체 장애인 수가 142,994명(총인구의 4.83%)인 것에 비하면 장애예술인과 단체의 수는 너무도 미미한 수준이다. 예술인으로 등록해야 제도권 안에서 예술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의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천시의 장애예술인 수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천시가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및 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예술인의 대다수가 예술 창작·발표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62.0%는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장애예술인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이 ‘장애인 예술활동 직접 지원사업의 기회 확대’(97.3%)인 것을 보면, 장애예술인들은 절대적인 창작·발표 기회의 부족과 직접지원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 소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천시가 장애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한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직접지원 외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접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예술 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 보조인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는 입주 장애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일부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조성할 경우, 활동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장애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처럼 어릴 때부터 예술교육이나 영재교육을 꾸준히 받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예술인의 68.5%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예술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이 전문예술교육을 받으면 인력과 시설, 기자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 사업도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전용시설 조성 시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용시설 조성 이전이라도 장애인복지관에 초보적 수준이 아닌 전문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복지관 간 연계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비장애예술인 교류·협업 지원’도 요구된다. 장애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 장애예술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와 관련된 주제나 내용만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없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비장애예술인과 동등하게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예술인과의 협업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각과 표현방식을 접함으로써 예술적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창작, 콜라보 공연과 같은 창작 협업 방식 외에 전문예술인이 장애예술인에게 멘토링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 상호이해가 부족하면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교류·협업을 위한 사전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목적은 ‘부산지역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의 협업을 통한 상호역량 강화’와 ‘부산지역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발표 기회 제공'이다. 장애예술인 최소 2명 이상과 비장애예술인 최소 2명 이상이 협업하는 것이 지원조건이다. 사업내용에 비장애인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표 4-8 | 부산문화재단 2019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프로그램 개요

구분	내용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장애·비장애 예술인 간 협업 통한 상호역량 강화 ◦ 부산지역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발표 기회 제공
운영기간	◦ 2019.8.~2020.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작품(프로젝트) 공모·선정·지원 ◦ 프로그램 참여 비장애예술인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진행 ◦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작품 발표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및 비장애예술인 각 2명 이상 참여 ◦ 부산에서 부산시민 대상 사업종료 전 공연·전시행사 개최

출처: 부산문화재단(2019.8.4.)

■ 장애예술인 공공 일자리 지원

장애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얻고 자립할 수 있다면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동기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례로 살펴본 수원 에이블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상품화하여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시 차원의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예로 '인천시립장애예술단 조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천시가 비공무원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시립 장애인예술단을 설립해 지원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정창교, 2019.10.18.).

그 외에 문화예술교육과 전문강사교육을 받은 장애예술인을 예술강사 및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기업체 연계 고용 지원 등의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공공기관에서 구입하여 전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아트마켓 사업에서 일부를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구성해 판매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장애예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장애예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지원

인천시의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는 2018년 11월 기준 38개이며, 이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3~4개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예술인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나 풀뿌리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의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활동가들 수요조사 결과,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경연대회 운영’도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전국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경연과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재능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장애예술인의 사회적·예술적·경제적 활동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2019.11.28.). 인천시에서도 아직은 장애예술인과 단체 수가 적지만 경연대회를 통해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면 점차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2개 단체의 행사를 지원한 바 있으나 이 정도로는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공모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더 많은 장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양성 및 지원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과 관련 단체에서 일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하지만 전문강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은 역할에 따라 크게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개별지도강사, 전체지도강사 및 활동보조인력, 행정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양성하여 복지기관이나 유관 시설·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는 문화예술적 전문성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요소를 예술적 장애로 생각하고 교육한다면 올바른 예술교육이 될 수 없고 발전 또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한계를 설정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장애인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린 창작활동과 특별한 장애예술의 범주를 만들 수 있는 개방된 사고의 문화예술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노하우가 있고 편견이 없는 예술강사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이나 시설에 파견되기 전에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로 살펴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전병태, 2015)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표 4-9>와 같이 제안한 바 있다. 프로그램 대상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자이며, 총 12주 과정(1회 120분), 24시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분야는 시각예술(회화, 공예 등), 음악, 연극, 무용 등을 포괄한다. 장애유형별 이해와 교수법, 전문 예술강사 세미나, 팀별 교육현장실습, 교육계획 발표 및 모의수업으로 이론과 실습과정 및 교육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 표 4-9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안)

구분	강의명	강의내용
1회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론	◦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특수교육 과정 이해와 우수 교육사례 소개
2회	장애유형별 이해 I	◦ 장애 유형별(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발달장애) 개념 및 특성 이해
3회	장애유형별 이해 II	◦ 유형별 행동패턴 및 대처방안에 대한 현장사례 중심 강의
4회	장애유형별 교수법 I	◦ 교사 중심형 및 내용 중심형 교수법 통한 효과적인 교육설계와 적용법
5회	장애유형별 교수법 II	◦ 학습자 중심형 교수법에 따른 학생의 능력, 요구 및 관심에 맞는 협동적 계획과 적용법
6회	문화예술 유형별 교수법 I	◦ 시각예술 및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목표 설정 및 계획/실행의 체계적인 교육법 강의(각 60분)
7회	문화예술 유형별 교수법 II	◦ 연극 및 무용교육을 위한 학습목적, 내용, 대상에 맞는 교육방법 강의(각 60분)
8회	리더쉽 및 창의적인 학습방법	◦ 교육자의 감정 및 심리적인 셀프 매니지먼트를 위한 컨설팅 제공으로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9회	장애인 학습자 대상 전문예술강사 세미나 I	◦ 시각예술 및 음악 전문교육자의 현장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각 60분)
10회	장애인 학습자 대상 전문예술강사 세미나 II	◦ 연극 및 무용 분야 전문교육자의 현장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각 60분)
11회	(팀별과제 I) 교육현장 실습	◦ 문화예술 분야에 따른 교육현장 방문(특수학교, 복지관, 특수학급 중 택1) 및 보고서 제출
12회	(팀별과제 II) 교육계획 발표 및 모의수업	◦ 문화예술 유형별 학습계획 및 모의수업 발표 (각 30분)

출처: 전병태(2015)

게다가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교육 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별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도해 줄 수 있는 개별 지도강사도 필요하다. 더불어

공동작업이나 단체 수업 시 전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체지도강사와 수업 및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력도 있어야 한다. 예술적 기술을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도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 강사 및 장애예술인의 소통을 돕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장애인예술의 표현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다.

그 밖에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도 양성해야 한다. 당장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적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장애인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시범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지역문화예술 거점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도에는 해당 사업 공모 결과 부산, 광주, 대구, 제주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3~5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수업교재를

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 복지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 교육대상자와 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장애유형과 중증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도 중요하다. 치유와 재활, 예술적 역량 강화, 장애예술인으로서 자립 등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별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보재(교육 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를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장애유형(시각장애, 정신장애)별로 필요한 교보재가 다르므로 원활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보재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표현’을 고려해야 하며 ‘교육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야 한다(김지영 외, 2019). 교육현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 참여자가 1명이어서 1:1 교육이 가능한 상황과 5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일 경우, 그리고 10명 이상일 경우 교육의 방식과 필요한 교보재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체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과 소통능력이 부족해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으로 교육할 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FGI 조사결과에서도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이 부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교육과정의 부재로 조기에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례로 살펴본 수원 에이블아트센터는 예술적 재능과 흥미를 고루 갖춘 발달장애인을 교육해 작품성을 갖춘 전문 예술가로 성장시킴으로써 ‘장애예술’ 장르 확립하는 것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충남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도내 장애인시설로 찾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3개월 이상 정기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재단이 배정해주는 장애인시설로 찾아가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강사비, 기획비, 재료비, 기자재 임차비(악기, 카메라), 대관료, 학습교재 제작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체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전에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재단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워크숍 등에도 참석해야 한다(충남문화재단, 2019.2.).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인천에서도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 내 우수한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여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0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체계

구분	역할
충남문화재단 (사업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및 검토 ◦ 문화예술교육단체, 장애인시설 컨설팅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단체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 교육프로그램 성과관리
장애인시설 (교육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생 모집 및 수업 참여율 관리 ◦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모니터링
교육수혜자(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참여 및 교육평가
↑	
사군 지자체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시설 행정지원 ◦ 사업 홍보지원

출처: 충남문화재단(2019.2.)

■ 장애인 생활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외에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발굴·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범주에는 생활문화활동도 포함되지만 아직까지 인천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도 결국 자립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외되어있는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제7조~9조에 근거하여 전국에 생활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이

크게 늘었지만 장애인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에도 생활문화센터 8개소(부평생활문화센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자월면 생활문화센터, 중구 생활문화센터,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2019.11.28. 검색). 따라서 향후 조성하게 될 생활문화센터나 생활권 내 문화시설은 반드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를 토대로 한 장애인 생활문화활동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과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 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해 보인다. 장애인복지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생활문화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들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해나가면서 타 시설이나 다른 지역의 동아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지원’도 필요하다. 교류 네트워크 지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이미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장애인 생활문화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장애인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함께 모여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2019.11.28. 검색).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이나 생활문화 지원사업 대상에는 장애인이 빠져있으므로 향후 사업영

역을 확대해 장애인도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개별적 취미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학습하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커뮤니티 아트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풀뿌리 장애인 커뮤니티를 발굴하여 커뮤니티아트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정착되도록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풀뿌리 장애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과 커뮤니티 활동가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영화를 제외하고 지난 1년 동안 문화향유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장애인이 97.5%라는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비율은 지극히 낮다. 그 이유는 높은 비율로 ‘인접시설 부재’와 ‘프로그램 부재’가 차지했다. 인접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타시설 등)로 찾아가거나 재가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찾아가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한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읍면동 사회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장애인 창작물 연합전시

회를 시행하고 있다(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2019.11.28. 검색). 인천시에서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찾아가는 나눔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외에 문화공연도 장애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공연 외에 학교 및 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공연 및 전시 관람 지원도 요구된다.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접하고 감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등 공공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인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의 향유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장애인들을 초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으며, 장애예술인을 지망하는 경우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분산된 정보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들은 문화행사 정보를 TV·라디오(35.2%) > 인터넷(30.1%) > 지인(19.2%) 등의 채널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라디오의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하나 수동적인 정보 접근만 가능하므로,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문화예술행사 정보 외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생활문화동호회 정보, 무장애 문화시설 정보, 각종 지원사업 정보가 망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시설 및 단체와도 시스템상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정보시스

템이 구축된다면 장애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한 장애예술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관련 시설 및 단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장애인 자체가 아니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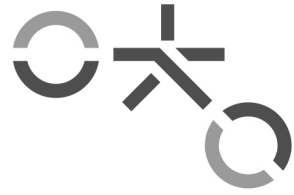
이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1년에 1회 하는 교육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회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외에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험하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작품 공모 사생대회, 멘토&멘티 문화체험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인천시에서도 교육청 주관으로 ‘장애공감 어울림 퍼레이드’와 북콘서트 등을 개최한 바 있다(박상도, 2018.9.11.). 이러한 사업이 연중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더 자주, 더 가까이 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발표·전시·공연 기회가 자주 주어져야 하고 비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도 요구된다.

문화행사 외에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로 살펴봤듯이 수원 에이블아트센터는 소속 장애인 작가들이 제작한 컵 홀더를 인근 카페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홀더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장애예술인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예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장애 인식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들이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의 의미도 있고, 상품 제작 및 판매로 인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예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복지나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관련 사업도 복지적 관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인천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과와 공감복지과, 교육협력담당관실이 주무부서로 주로 장애인단체의 일회성 행사와 복지시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2018년부터 문화예술과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산이 미미하여 2~3개 단체 밖에는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2017년에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예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별도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문화정책이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의 문화권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누리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생활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예술활동을 통해 자립할 권리를 오롯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정책대상에서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한 법률과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인천시의 조례와 정책,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인천시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장애인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또한,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검토하여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현황과 문제점, 수요를 분석했다. 더불어 인천시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례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조사과정을 거쳐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더불어 행복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정책의 포용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추진목표는 크게 3가지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상위법과 정책, 계획을 참고하여 ①제도, ②시설, ③인력, ④사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4대 추진전략을 ①조사·연구 및 지원제도 개선, ②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지원, ③장애예술인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④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4대 추진전략 별로 16개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했다.

16개 중점 추진과제 중 일부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일부는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정책에 발맞추어 인천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그 밖에 인천시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활동가, 장애인시설 관계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새로이 제안한 과제들도 있다. 제안된 과제를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 정책제언

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방향 설정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사업이 부족하고 관련 시설이나 인력, 예산도 미흡하다.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같은 복지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취미·여가활동 관련 지원사업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문화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장애인을 창의적인 문화주체로 보기보다는 복지와 치유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정책 분야와 복지정책 영역 간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장애예술 지원정책도 마찬가지다. 장애예술 안에서는 창작/향유, 프로/아마추어, 장르 간 구분에서 모호한 지점이 많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는 창작과 향유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예술에서는 이것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모호성을 반영하여 장애예술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즉,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면 장애예술인과 단체는 당장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치료, 사회 복귀, 자아완성, 행복감 추구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복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예술인과 단체를 아마추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문화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이와 같은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은 경험·향유·교육·창작과 일자리 창출의 순환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릴 때부터 전문예술교육을 받으며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비장애 예술인과 달리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소질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러한 장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험-향유-교육-창작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장애예술의 저변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애예술인의 자조모임 형성과 자립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전문인력 확충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 전문인력이 정책 수행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 차원에서는 장애인 문화정책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복지나 교육, 체육, 문화 등 관련 부처의 경계를 넘나들며 협업과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 파악, 모니터링,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구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는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장애인 문화정책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광역문화재단인 인천문화재단 내에 관련 팀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공유팀’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의 문화향

유와 참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재단이 장애인 문화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면 기존 지원사업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재단은 장애인과 장애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복지시설,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기구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연계·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지역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게 더 많은 향유와 참여,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실태조사 우선 추진

본 연구는 연구여건 상 인천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직접 추진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됐다. 따라서 인천시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실태나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활동보조인이나 기관·시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인 모집단을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므로 장애인 등록명부를 활용할 수 없고, 장애인 등록명부를 활용하더라도 그중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2019)에서는 국내 장애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여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시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는 정책구상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특화사업이나 시설 맞춤형 사업, 장애유형별, 중증정도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실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연구를 추진해야 인천시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활성화를 위해 어떤 분야를 특화할 수 있을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는 장애인, 장애예술인 외에 장애인 전문인력(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보조인, 문화기획자 등 매개인력)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가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전문성을 지닌 강사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전문인력과 문화예술단체 DB를 구축한다면 향후 지원사업과 관계 기관 연계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배리어프리 시설 조사 및 확충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시설의 조성은 인식 전환의 속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1,874개 중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은 39개로 전체의 2.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도서관이 24로 가장 많고, 박물관(8개), 미술관/문예회관/문화보급·전수시설(각 2개), 지방문화원(1개) 순이다.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중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이 2개, 문예회관이 2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문화향유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시 내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센터, 민간문화시설의 배리어프리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지도로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때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활동보조기기 확보 여부와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안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하여 새로 짓는 문화시설을 배리어프리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이나 한글자막 제공 등 무장애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비장애인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진 전시작품들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낮추는 등 장애인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배리어프리 시설을 확충해나감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이동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김지영 · 신원정 · 신재 · 유선 · 최선영(2019).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및 교보재 연구. 창작그룹 비기자.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현황통계 분석.

박신의 외(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이영규 외(2012). 한국장애인예술정책 연구. (사)장애인문화진흥회.

인천광역시(2017).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인천문화재단(2018).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연구(2018~2022).

전병태 외(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정병은·윤니나·이운성(2017).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2006). 에이블 아트. 파주: 사회평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Arts Council England(2003). *Disability access: A good practice guide for the arts.*

■ 문헌자료

- 김홍규(2012). 국외 출장 결과 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융성위원회(2014.4.16.). 서울시 문화정책 좌담회.
- 송기호(201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송은일(2019.8.9.).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 예술인의 생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오세형(2019.1.).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향. 2019년 장애인 문화 예술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장병용(2011). 에이블아트센터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장애인 종합 문화예술 공간. 문화나루. 16호. pp.60-61.
- 최도인(2019.8.9.).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및 콘텐츠 접근성 현안과 과제.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해외동향분석-장애인 문화정책. 문화관광인사이트. 15호.
- 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독일 연방 차별금지기구](2019).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AGG).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독일 연방 재무부](2019.6.26.). Regierungsentwurf zum Bundeshaushalt 2020.

■ 관련 법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8.2.25. 시행 [1987.10.29., 전부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15815호). 2018.11.17. 시행. [2018.10.16., 일부개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4630호). 2017.3.21. 시행. [2017.3.21., 일부개정]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5638호). 2018.6.12. 시행. [2018.6.12., 일부개정]
-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5821호). 2019.1.17. 시행. [2018.10.1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801호). 2017.6.5. 시행. [2017.6.5., 제정]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258호). 2019.1.15. 시행. [2019.1.15.,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9.1.1. 시행. [2018.12.24., 타법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72호). 2018.6.20.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0호). 2018.6.20. 시행. [2018.6.19.,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2014.7.29. 시행. [2014.1.28., 제정]

■ 행정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부산문화재단(2019.8.14.). 2019년도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프로그램 지원신청 안내.

서울문화재단(2018.1.19.). 2018년도 잠실창작스튜디오 업무분장.

_____ (2019.1.28.). 잠실창작스튜디오 2019년 운영 기본계획.

_____ (2019.2.25.). 잠실창작스튜디오 2018년 사업운영 결과보고.

_____ (2019.4.5.). 2019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 추진계획.

인천광역시(2016). 인천비전2050.

_____ (2018).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인천문화재단(2018.11.).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인천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2019.7.1.). 2018~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지원현황.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2019.5.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계획.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2018.11.16.).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_____ (2019.6.9.).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현황(2019년 5월말
 기준)
- _____ (2019.7.1.a).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19년 5월말 기준).
- _____ (2019.7.1.b). 장애인 복지시설 개요(19년 5월말 기준).
-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2018.5.).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디아스포라영화제.
- _____ (2019.1.16.). 2019년도 인천영상위원회 기본 사업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18.5.16.a). 문화비전2030.
- 문화체육관광부(2018.5.16.b). 새예술정책(2018~2022).
- 문화체육관광부(2019.2.25.).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 충남문화재단(2019.2.). 2019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9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설명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9.6.27.). 인천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중 장애인 현황(2019
 년 6월말 기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3.29.). 201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결과.
- _____ (2019.4.8.).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역별 신청
 단체 리스트.
- _____ (2019.4.11.),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선정 결과.
- _____ (2019). 2019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 한국만화영상진흥원(2018.4.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반현황.

■ 보도자료/신문기사

고영득(2019.4.18.). 송파구, 서울시 최초 중증장애인 특화차량 운영.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81034001&code=620100(검색일: 2019년 11월 27일)

대구문화재단(2019.7.5.). (재)대구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대구문화재단 보도자료.

박상도(2018.9.11.). 인천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 위해 발벗고 나서... 브레이크뉴스 인천. http://www.ebreaknews.com/sub_read.html?uid=19621(검색일: 2019년 11월 28일)

부산문화재단(2019.8.8.). 부산문화재단 2019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본격 추진. 부산문화재단 보도자료.

서울문화재단(2013.9.5.). 에이블아트의 베이스캠프, '잠실창작스튜디오' 6일 재개관!. 서울문화재단 보도자료.

시흥저널(2011.7.16.). 국내 최초 장애인 종합문화예술공간. 시흥저널. <http://www.siheu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4>(검색일: 2019년 9월 26일)

양가람(2019.6.23.). 예술날개 프로젝트,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전남일보. <https://jnilbo.com/2019/06/23/2019062318123219094/>(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우종희(2019.7.2.).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기반 구축사업 프로젝트 진행한다.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188>(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이동화(2018.8.6.). 인천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연중 상시모집. 인천일보. http://news.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310&replyAll=&reply_sc_order_by=C#reply(검색일: 2019년 11월 26일)

이명희(2019.4.24.). 당사자주의는 독일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2).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8>
(검색일: 2019년 9월 19일)

임해원(2017.11.13.). [장애인예술운동 ①] 에이블아트센터. 이코리아.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4>
(검색일: 2019년 9월 30일)

정창교(2019.10.18.). 전국 최초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설립 가능할까.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32906&code=61121111&cp=du>(검색일: 2019년 11월 27일)

최태용(2019.10.15.). 인천시, 내년부터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늘린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67234>(검색일: 2019년 11월 26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1.3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실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보도자료.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경기건축포털 https://ggarchimap.gg.go.kr/archives/2612#img_3
(검색일: 2019년 9월 26일)

경기문화재단 <http://www.ggcf.kr/>(검색일: 2019년 9월 24일)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http://www.hanmaeum.org/>(검색일: 2019년 7월 9일)

디아스포라영화제 <http://www.diaff.org>

문화누리 <http://www.mnuri.kr>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s://www.cda.or.kr>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2016.2.11.). 에이블아트센터: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이 꽃피는 곳. <https://m.blog.naver.com/mcstkorea/220623407230>
(검색일: 2019년 9월 26일)

- 만들레의 집 <http://tanpoponoye.org/>(검색일: 2019년 9월 24일)
- 방귀희(2015.4.16.).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의 사회적, 제도적 장벽과 개선방안. 예술경영 310호. http://gokams.or.kr/webzine/mobile/plan/view.asp?idx=1502&page=11&c_idx=48&searchString=&c_idx_2=
(검색일: 2019년 8월 22일)
- 부산문화재단 <http://www.bscf.or.kr>(검색일: 2019년 11월 28일)
-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seogwicrc.or.kr>(검색일: 2019년 11월 28일)
- 송암점자도서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ngam3504/>
(검색일: 2019년 7월 10일)
- 수원평생학습관(2013.3.4.). 「에이블아트센터」차이가 차별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탄생하는 공간. <http://www.wasuwon.net/2325>(검색일: 2019년 9월 27일)
- 아르떼 365(2018.2.5.). 누구에게나 평등한 문화예술교육. <http://arte365.kr/?p=64225>(검색일: 2019년 9월 23일)
- 에이블아트센터 <http://ableart.or.kr/index>(검색일: 2019년 9월 26일)
-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http://www.jgwelfare.or.kr>
(검색일: 2019년 7월 9일)
-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http://www.ibu.or.kr>(검색일: 2019년 7월 10일)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rte.ifac.or.kr
- 인천영상위원회 <http://www.ifc.or.kr>
- 일본 문화청 www.bunka.go.jp(검색일: 2019년 9월 23일)
- 위키피디아 독일어판 <https://de.wikipedia.org/wiki/Wikipedia:Hauptseite>
(검색일: 2019년 9월 20일)
- 잠실창작스튜디오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
(검색일: 2019년 9월 26일)
- 지역문화진흥원 www.rcd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business/society/welfare/intro/index.do>(검색일: 2019년 1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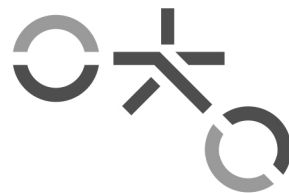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www.fdca.or.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http://www.i-eum.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www.hinet.or.kr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독일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https://www.behindertenbeauftragter.de/DE/Home/home_node.html(검색일: 2019년 9월 19일)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독일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 https://www.bmjbv.de/DE/Startseite/Startseite_node.html(검색일: 2019년 9월 19일)



부록

부록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부록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5801호

제정 2017. 6. 5.

시행 2017.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9년도 기초연구과제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852-4 9333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인천연구원 201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